

MAXIM

KOREA

WANNA BE HER MARIONETTE? STELLAR

핫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현존 최강의
섹시 걸그룹. 제발 날 갖고 놀아 줘!

Stuff

식목일 특집 도구: 마테체

GALAXY S5

아직 안 샀다면 필독
샀다면 그냥 읽지 말 것

조던 6 인프라레드

Law & Order

변호사 에디터의 피&살 가이드

- 기록 안 남기는 법
- 합의 잘 보는 법
- 갯값 정산법

25 AMAZING PLACES

죽기 전에 꼭 해 봐야 할 장소 25가지

Sex

Reason for Sex

여자가 낯선 남자와 자는 이유

For Ladies 7

할 때 해야 할 것
할 때 하지 말 것

Girl's Naughty Talk

여자는 섹스의 이유가 필요하고
남자는 오직 할 장소만이 필요하다

2014년 4월호
정가 5,900원

신의칼

제작비 100억의 초대형 스케일
수려한 그래픽과 탄탄한 스토리
무협 액션 RPG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의 칼〉
대한민국 웹게임의 지축을 흔들다

대만 신세경, 소니녀
천쓰잉

VOTE NOW! 2014 MISS MAXIM CONTEST

올해 참가자는 4월까지지만 받는다

The Original MAXIM PARTY

4.25. FRI. @CLUB HOLIC

한국 KLPGA 대표 미녀 4인방
김하늘, 양수진, 김자영, 안신애



+ MAXIM의 책 속 특별 부록
FREE 브로마이드 1+1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TIMELESS PERFECTION ME800-42.LC

www.marben.ch
마르벤 시계사업부 02.783.8910

MECHANIKER COLLECTION

The Mechaniker collection has been reinterpreted and equipped with the in-house movement. Throughout its rich history and know-how, MARBEN has been conspicuous by its capacity to develop outstanding movement.

70th
ANNIVERSARY



1945



1947



1957



1959



1961



1974



1982



NOW



인터넷 검색창에서 **신의 칼**을 검색하세요 ▼

“갖고 싶다”

화려하고 찬란한 희대의 무협 액션

아시아를 홀린 RPG

신의칼





FLY YOUR OWN FLAG™

**STAR
WARS™**



WWW.NEWERACAPKOREA.COM

59FIFTY STARWARS LIMITED EDITION

BOBA FETT



9FIFTY STARWARS COLLECTION

HAN SOLO | CHEWBACCA | YODA | DARTH VADER | STORM TROOPER | STORM TROOPER | DARTH VADER | BOBA FETT





FLY YOUR OWN FLAG™



Contents

April / 2014

98

Cover
천쓰잉

MAXIM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대만에서 날아 온 마성의 여자
천쓰잉. '신세계 님은 꿀'로 이미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톡톡히
치른 그녀가 MAXIM 4월호의
표지를 장식했다. 결점이라곤
눈 씻고 봐도 없는 완벽 미모에
글래머러스한 몸매까지!
페이지를 넘겨서 그녀의 화보를
감상하라! 당신도 꿈쩍없이
그녀의 노예가 되고 말거대!



SWISS + MADE



OFFICIAL PARTNER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ESSENTIAL GEAR.

RECON Point Man Series No. 8823.KM: 45mm, carbon reinforced polycarbonate case and case back, unidirectional ratcheting bezel with aluminum ring compass rose, antireflective sapphire crystal, walking tachymetric scale, water resistant to 200 meters, gray NATO strap with signature buckle, and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Swiss Special Forces and outdoor enthusiasts.**

www.facebook.com/luminox

www.luminox.com

루미녹스 판매처

공식수입원 및 서비스 센터 밀림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imwatch.co.kr

직영점 [모멘트]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 02-772-3181 / 잠실점 1층 02-2143-1920 / 청량리점 1층 02-3707-1179 / 평촌점 2층 031-8086-9232 / 중동점 1층 032-320-7012 / 대전점 1층 042-601-2109 / 대구점 1층 053-660-3122 / 부산 광복점 1층 051-678-4039 / 울산점 1층 052-960-4533 / 아울렛 서울역점 2층 02-6965-2637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1층 02-3438-6093 / 일산 킨텍스점 1층 031-822-2929 / 충정점 1층 043-909-4148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1층 032-430-1555 (AK백화점) 구로점 1층 / 원주점 1층 033-811-5525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1층 055-791-1170

특약점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1층(TM 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임21) 02-3424-7073 / 강변 테크노마트 1층(타임21) 02-3424-1210 / 동대문 OK아웃도어닷컴 1588-8796 / 종로 YMCA 1층(타임존) 02-737-3627 / 종로 중앙상가(노블워치) 02-745-8789 / 동대문 두산타워 5층(매션존) 02-3398-7527 / 동대문 두산타워 3층(타임갤러리) 02-3398-5528 / 상계동 하이힐빙상가 A동(도라시계) 02-971-5334 / 종로 세운스퀘어 1층(정우상사) 02-2272-2688 / 명동(이와치) 02-771-7033 / 종로 피카디리 플러스1층(정신사) 02-741-9678 / 을지로6가 굿모닝 시티 2층(사포) 02-2118-8075 / 잠실 롯데월드 웰빙센터 1층(제네바) 02-419-5622 / 왕십리 민자역사3층 (원타임) 02-2200-1355 / 용산 아이파크몰 6층(해피타임) 02-2012-0625 / 용산 이태원(월드워치) 02-794-7210 / 안양 안양동(시계상사) 031-441-0158 / 안양 안양동(보석상사) 031-466-1014 / 부천 심곡동(특목) 032-662-2026 / 고양 장항동(타임24) 031-931-5555 / 안산 고잔동(타임루트) 031-487-9057 / 평택 평택동(유빈) 031-658-6883 / 수원 갈매리 백화점 1층(GG클렉스) 031-221-4997 / 화성 엔더스스 2층(타임 플러스) 031-371-6850 / 인천 흥플러스 가좌점 2층(스위스) 032-578-2002 / 인천 구월동(워치보이) 070-8632-5300 / 대전 세이브존 1층(타임터치) 042-482-2328 / 대전 가오동(에진시계) 042-280-9117 / 대구 삼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대구 덕산동(스위스) 053-252-8111 / 천안 신부동(알파8오메가) 041-564-5465 / 청주 가경동(보보 스위치) 043-235-1510 / 청주 남문로27(복와치) 043-223-1333 / 충주 메가박스1층(메가와치) 043-857-9125 / 진주 롯데백화점 5층(세광명) 063-289-3592 / 광주 롯데마트 첨단점(원남상사) 062-971-8523 / 광주 황금동(시계이야기) 062-233-9100 / 포항 블루플러스(조이필) 054-613-1170 / 구미 원평동(엘가시계) 054-451-6940 / 진해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5-542-8521 / 부산 광복동(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리브워치) 051-746-6112 / 부산 서면(엘가시계) 070-7569-5766 / 제주 연동(티아라) 064-745-3008

Contents



ICON
이윤석

성냥개바 같은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보였던 국민 약골이 MAXIM을 만나 상남자로 변신했다. 없는 활배근도 샘솟게 만드는 MISS MAXIM 엄상미와 이현지, 마초의 상징인 할리 데이비스와 징 박힌 라이더 재킷으로 무장한 그의 대변신을 눈으로 확인하라!

Maxim Inside

26 요즘 MAXIM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Circus Maximus

- 30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인형의 섬
- 32 식목일 기념! 사연 많은 나무 총집합
- 34 약빨고 만든 MAXIM 기획 게임, 〈혁명 2014〉
- 36 인생 업그레이드! 치트키 전격 공개!
- 38 구라 한 번 쳐보겠다고 철야 밤샘작업도 마다치 않은 그들의 사연
- 40 음악 하는데 왜 이렇게 웃겨? 영배 해리슨의 사망 소감
- 42 황후에서 기방전설로, 마담뚜 호태후

How To

- 44 30m 절벽에서 죽지 않고 다이빙하기
- 46 정신만 차리면 가능한 넷째지 회피 스킬
- 48 색은내 작렬 방구탄 만드는 법

Comment

- 50 "스파르타!" 없는 〈300: 제국의 부활〉, 뭐가 문제일까?
- 52 솔직한 성 상담 일지, 〈내 소파 위의 남자들〉

Game

- 53 초능력을 흡수하는 초능력자의 등장! 〈인퍼머스: 세컨드 선〉의 델신 로우
- 54 PC방 죽어도 여왕으로 모실 LOL의 미녀 여성 게임단, 〈MVP PURE〉
- 56 정통 무협 사파로 폭 고야넨 고퀄리티 웹 게임, 〈신의 칼〉
- 58 게임 카툰: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임들
- 59 본능 자극 게임 〈제천대상〉과 MISS MAXIM 3인방의 콜라보레이션
- 60 쯤쨌도 알 권리가 있는 게임판 소식 이모저모
- 61 '도원결합'의 욕망을 부르는 삼국지의 장수들! 으훗한 모바일 TCG 게임 〈연희몽상〉

MAXIM from US

- 62 미국판 Miss Maxim, 〈Hometown Hotties〉의 결승 진출자가 말하는 랜제리 예찬론!

Sex

- 64 그녀는 왜 갑자기 당신과 자고 싶어졌을까?
- 68 첫 섹스를 망치는 여자의 쓸데없는 걱정들

Sports

- 72 필드 위의 여신 강림! 미녀 골퍼 4인 만나기
- 74 UFC의 전설적인 여성 챔피언, 론다 로우시와 MAXIM의 만남! '사상 최강의 암바'만큼 와이드하고 거침없는 그녀의 인터뷰를 감상해 보자.

Stuff

- 80 욕심 버린 섹스의 비장한 각오: 갤럭시S5
- 82 MAXIM 편집부의 지름 리스트 대 공개
- 85 망나니 룩을 완성하는 마체테



홍진호, 수호지로 STAR의 전략을 말하다

수호지 for KAKAO 시즌 2



지금 스마트폰에 수호지 깔고, 홍진호 약탈하러 가자!

LUCKY CODE

사용기간: 4월 30일까지

01 쿠폰 입력만 해도! 100% 선물!

02 홍진호 약탈하면 매일
싸인 마우스 증정!



수호지



왕년에 빈집털이 좀 하고 놀았다면! 수호지에서 홍진호 털고 100% 경품받자!

Contents

112 스텔라

과감한 콘셉트, 아찔한 의상, 콧김이 뜨거워지는 안무로 돌아온 스텔라를 만나고 왔다. 현존하는 가장 '핫한' 걸 그룹답게 뜨겁게 스튜디오를 달군 촬영 현장 속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Motor

- 87 BMW 라인업의 화룡점정!
- 88 독자의 차 화보 프로젝트 #10: 형형색색 시로코가 상큼발랄 김지예를 만났을 때
- 92 MAXIM 시승기 #44 낫산 JUKE

Truth of Lie

- 120 만우절 거짓말 특집: CIA 요원들의 거짓말 수사 기법을 이용해 애인의 거짓말 잡아내는 방법을 전수해준다.

Miss Maxim Contest

- 124 역대 최강 글래머 vs. 역대 최강 각선미

Military

- 128 컬러 쇼크! 전부 구라인 줄 알았던 게임 속 무기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Ultimate Sex Place

- 132 죽기 전에 꼭 가 봐야 할 의외의 섹스 플레이스 25곳! 모텔 거울 방 이제 식상하잖아.

Law&Order

- 138 법을 알고 폭행을 배우면 백전 무패라!

수능신공

- 142 수능 국어영역 특강: 맥심 구독을 탄압하는 교사와 부모에게 대항할 구실이 되어주마!

Medal of Heroes

- 146 각국 최고 무공훈장을 받은 영웅을 모아 지구 최강 연합군을 구성해봤다.

From MAXIM Australia

- 150 호주의 미녀 모델 3인방: 서리던, 엘리, 르네. 그녀들의 집 뒷마당에서 열린 매우 사적인 비밀 파티 훑쳐보기

Style

- 159 없어서 못 팔아 조던 6 인프라레드
- 160 봄이 왔음을 알리는 청바지 10선
- 161 술독에 빠뜨려도 끄떡없을 방수시계 5선

Party

- 164 스쿨룩 걸들의 화려한 봄춤 감상! 그러다 교무실에 끌려갈라~

Smoke&Drink

- 168 여자의 마음을 100% 사로잡는 과일주 만드는 법
- 170 담배 패키지!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Unpicked

- 175 에디터들을 눈물 흘리게 한 아까운 사진들

142



92



160



159



161





본 자료는 MAXIM Korea의 저작물이므로 개인 소장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곳에 재업로드, 제3자에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MAXIM
KOREA

UFC 전체 랭킹 1위
‘절대 챔피언’ 존 존스
그가 돌아왔다!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전
UFC[®] 172

4월 27일 (일) 오전 10시 30분
수퍼액션 독점 생중계

SUPER
ACTION



ALBA

POSITIVE & SMART

수입원 삼정시계(주) 02)511-3182 • 직영매장 세이코부티크 스타시티점 02)454-8400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12-4144 • 직영매장 모멘토 롯데본점 02)772-3181 / 롯데잠실점 02)2143-1920 / 롯데청량리점 02)3707-1179 / 롯데명동점 03)8086-9232 / 롯데대전점 042)601-2109 / 롯데대구점 053)660-3122 / 롯데광복점 051)678-4039 / 롯데울산점 052)960-4533 / 롯데아울렛서울역점 02)6965-2837 / 롯데중동점 032)320-7012 / 롯데부산본점 4월초 오픈 / 현대본점 02)3438-6093 / 현대무역센터점 02)3467-8797 / 현대킨텍스점 031)822-2929 / 현대충청점 043)909-4148 / 신세계인천점 032)430-1555 / AK구로본점 02)6923-2112 / AK원주점 033)811-5525 / AK수원점 3월말 오픈 / 갤러리아진주점 055)791-1170 • 면세점 롯데 / 신라 / 위커킵 / 동화 / 신세계 / JOC / JIO / KTO / 그랜드 •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화지(771-7033) 종로 타임존(737-3627) / 노블워치(745-8789) / 정신사(741-9678) / 정우상사(2272-2688) 동대문 패션존(3398-7527) 서초 시계독립(6282-2777) / 신바피(532-2121) 송파 타임존(411-0829) 강동 현대골드(484-2029) 용산 해피타임(2012-0625) / 월드타임(794-7210)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50-8470) 관악 타임(6289-7166) 구로 시계백화점(211-1120) / 타임타임(2111-1141) 양천 티파니(2648-8333) 강서 타임피스(2668-0871) 광진 T.M타임2(3424-7073) 성북 해시계(217-1755) 노원 도라시계(971-5334) 인천(032) 남동 정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982-5534) 부천 시계나라(329-0894) / 북북(862-2026) 경기(031) 고양 타임24(931-5555) 성남 AK프라자(781-8194) / 동성당(753-0769) / 타임24시(728-5370) / 엔타임(707-1289) 수원 AK프라자(240-2199) / 덴아블랙(201-7100) / 지지빌렉션(221-499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석상자(441-1014) / 시계상자(441-0158) 동탄 타임플러스(371-6850)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제사(245-1230) / 불광(245-7965) / 타이머블(919-4704) 부산진구 플라이(922-2008) / 프로포즈(818-6573) / 동해시(644-5551) 울산(052) 금보당(960-4848) 경남(055) 창원 롯데창원(279-3192) / 대경사(223-7746) 대구(053) 중구 타임프라자(428-2668) / 바젤(425-8707) / 동이스라엘(252-8111) / 해피타임(428-3086) / 엘가(255-6940) / 정미(428-0338) / 레츠(425-0157) / 삼성사(422-300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0) 포항 조이텔(613-1170) / 주얼리(244-8172) / 타임피어(253-8855) / 스위스(246-8944) 충북(043) 청주 명공사(266-4574) / 드림플러스(235-1510) 대전(042) 보옥당(253-9241) / 세이백화점(257-7745) / 연비(255-6292)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천안 티파니(561-9438) / 알파오메가(564-5465) / 신세계예진(640-5081) / 루티타임(522-6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66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프유(225-0175) / 현대제일사(515-7172) / 시계명가(226-2251) / 골드북(410-0137) / 티타(222-3114) 전주(063) 세광당(289-2590) / 컴포(285-7596) 제주(064) 순금사(758-1717)

MAXIM

www.maximkorea.net

편집장 이영비

Editorial / 편집부

편집 1팀	조용재	주임 / 팀장
에디터	박정욱	사원
	채희진	인턴
영상 에디터	김상수	사원
디자이너	김려은	사원
	전수진	인턴

편집 2팀

에디터	손안나	주임 / 팀장
	김소윤	사원
	이슬기	인턴
뷰티 에디터	장혜민	사원
디자이너	이상윤	사원

편집 3팀

수석 에디터	유승민	팀장
에디터	김진욱	과장
	김화성	대리
	정재식	사원
	김민경	인턴

객원 에디터

격투 전문 칼럼니스트	이용수
<엑스포츠> 기자	김덕중
<마이메일리> 스포츠팀 기자	강산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기자	김민석
카툰 작가	곰시니스트
카툰 작가	onesound
번호사	Felix Lee
핀드 매니저	Fred Kim

교열

신선경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과

재무 회계	최인영	과장 / 팀장
유통	안재만	사원
	정광석	인턴
비서	정석영	사원
법무	방인식	대리

Marketing / 마케팅과

	김진욱	과장 / 팀장
광고	박상준	사원
홍보	정재식	사원
제휴	원유진	인턴

Web & Mobile Service / 웹·모바일

토현 서정민 팀장 남원규 팀장

Photography / 사진

포토그래퍼	정기수	실장
	박 울	실장
	이진호	실장
	김도훈	팀장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이용관 대표

Printing / 인쇄·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재수

MAXIM Korea 발행인 / CEO 유승민

MAXIM Contact

독자 Q&A / 일반 문의 www.maximkorea.net 접속
 상단 BOARD 메뉴 ▶ Q&A 게시판 이용
 partner@maximkorea.net
 TEL. 070-4010-8994
 정기 구독 / 대량 구매 joy@maximkorea.net
 TEL. 02-323-1182

MAXIM에 귀사의 브랜드 및 이벤트, 인물과 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싶으시면 편집부 대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취재 문의 및 화보, 협찬: press@maximkorea.net / 영화, 공연 홍보: movie@maximkorea.net



발행처 (주)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5가길 22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4년 4월호 통권 제48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MAXIM INTERNATIONAL

CHAIRMAN AND CEO, BIGLARI HOLDINGS INC. Sardar Biglari
 PRESIDENT, MAXIM INC. Ben Madden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USTRALIA Santi Pintado	GERMANY Boris Etter	RUSSIA Sasha Malenkov	THAILAND Sirote Petchjamroansuk
AUSTRIA Boris Etter	INDIA Vivek Pareek	SOUTH AFRICA Dirk Steenekamp	UKRAINE Sasha Malenkov
BULGARIA Hristo Zapryanov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SOUTH KOREA Young-Bee Lee	UNITED KINGDOM Alpha Media Group
CZECH REPUBLIC Jan Stepanek	ITALY Paolo Gelmi	SWITZERLAND Boris Etter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Maxim Media Inc.는 한국의 (주)이미디어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이미디어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Maxim Media Inc., (주)이미디어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Maxim Media Inc.와 (주)이미디어에 귀속하므로 허락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4 Maxim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Maxim Media Inc., and used under license by Y Media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Maxim Media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Beza & Bell
 Butterfly From Germany

베카인벨 | www.bekandbell.co.kr | 02.3397.7100
 (주)가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 롯데백화점 마미 (02-944-2130)

하이힐 (02-2136-9743)

[판매점]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 (051-678-4191) / 대구백화점 (053-422-3191)

[면세점] 제주 JDC면세점 (3월 30일 오픈 예정)



가노코퍼레이션 공식 쇼핑몰 유포타임 www.eurotime.kr

the

APRIL • 25 • FRIDAY

MAXIM

CLUB
IN HOLIC

Party

Dry d



HPNOTIQ®

• TOUS LES JOURS

• LOTTE CINEMA



OPEN PM 10:00 - AM 09:00 | VIP RESERVATION 010.6564.6066
ENTRANCE FEE FRIDAY 20,000 / SATURDAY 30,000[KRW]
NO MINORS ALLOWED, PLEASE BRING YOUR OWN ID
B1, YOUNGDONG HOTEL, 6,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KOREA
WWW.CLUBHOLIC.CO.KR CAFE.NAVER.COM/UJOOHOLIC WWW.FACEBOOK.COM/CLUBHOLIC

Letter From MAXIM

“사랑해 C8”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의 주인공 태일(황정민)이 사랑하는 여자 호정(한혜진) 앞에서 방귀를 뽕 끼더니 툭 내뿜는 말. “사랑해 씨뽕(황정민 발음으로는 [씨랑헤, 씨 : 뽕]).” 그러더니 마주 보고 배시시 웃는다. 성숙한 남녀 관계를 위해서는 드라마나 영화가 전파하는 ‘사랑에 대한 환상’에 휩쓸려선 안 되지만, 이 장면에서는 무너지고 말았다. 따뜻하고 좋아 보였다. 그 이전 시점. 호정을 본 그 순간부터 시작된 태일의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인 구애에 호정은 “당신 같은 사람이 사랑이 뭔지 아느냐?”며 화를 낸다. 태일은 “눈앞에 아른거리고 자꾸 생각나면 그게 사랑이 아니냐?”고 한다. 갓 싹을 틔운 사랑은 모두에게 그런 마법을 부린다. 눈앞에 아른거리고 자꾸 생각한다. 서로를 향한 집중도는 최고조에 달하고, 보통 이 시기의 남녀는 단지 살을 부비고 같이 있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사람이 평생 쓸 지력과 창의력은 이 때 풀로 발휘된다).

봄이 와버렸다. 지난겨울, 크리스마스나 밸런타인데이를 죽어도 혼자 보내지 않겠다며 이렇게 저렇게 만수산 드렁침마냥 급히 엮인 커플들이 개강이나 날씨 변화, 1/4분기 데이트 비용 지출 결산(이어지는 감정 결산) 등을 거치며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시점이다. 마냥 좋고 고마웠던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고, 심각한 공작지 상태에선 귀엽게까지 보이던 상대의 흠이 ‘참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게 하는 결점이 된다. 3월 중순이니까 지금쯤 솔로 매물이 꽤 나왔겠다.

그럼 위기의 봄이 지나면 되느냐? 아니다. 짧은 옷과 휴가철 짧은 로맨스... 유혹의 계절 여름이 기다리고 있다. 가을이 오면 좀 안정될까? 아니다. 여름에 탄 연락처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시기다. ‘눈앞에 아른거리고 자꾸 생각나던’ 감정만 가지고는 한두 계절도 버티기 어렵다. 이번 편은 틀렸다면 이별을 택하고 또 다른 설렘을 찾아도 괜찮다. 하지만 반대로 둘의 관계에 ‘이해’와 ‘관용’, ‘시간’을 들이면 처음의 정열과 설렘, 흥분은 잦아드는 대신 편안함, 의지, 믿음이 자란다. 뜨겁고 심장이 벌렁대던 것이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에 깊어지는 따뜻한 유대감은 연애 초반에 팔팔팔 튀는 스파크 이상의 가치가 있다. 마침내 태일의 자극정성에 호정이 마음을 열고, 행복에 겨운 그가 그녀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래로는 장내 가스를 뽕고, 입으로는 욕을 섞어 찐한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MAXIM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나? 대부분은 섹시하고 자극적인 ‘보는’ 재미에 혹해 지갑을 열었을 거다. 잡지를 읽지 않고 온라인에 도는 자극적인 화보만을 본 이들은 -나로선 좀 섭섭한 표현인데- ‘MAXIM은 그냥 야한 잡지’라고 한다. 어떻게 표현하든 MAXIMI 눈길을 끄는 잡지라는 건 틀림없다.

최근 MAXIM은 지난 1월호부터 3월호까지 3개월 연속 모든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완판 기록’을 세웠다. MAXIM의 디지털 매거진 역시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그것도 고도를 더 높여서! 꽤 오래전부터 세계 출판 산업이 위축되어 온 걸 목격해왔기에 놀라움과 감격은 더 크다. 그 어떤 출판물도 ‘그냥 야한’ 섹시 화보만으론 이 정도의 판매고를 올릴 수 없다.

2002년 10월 25일은 대한민국 땅에 MAXIM 매거진이 최초로 발행된 날이다. 당시 초대 편집장이자, 후에 나를 MAXIM에 입성하게 해준 박덕건 편집장은 잡지 첫 머리에 ‘남자는 다르다’는 제목의 편집장의 글을 적었다. 글은 이렇게 끝이 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은 아주 단순하다. 남자와 여자들은 그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남자들의 사고방식이 있고, 남자 고유의 화법과 관찰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켜줄 유일한 우리나라 잡지가 MAXIMI 될 거라는 점. 바로 그거다.
- 2002년 11월 MAXIM 창간호 / 편집장의 글 -

그날로부터 4,169일이 지난 2014년 3월 24일 발행되는 MAXIM의 ‘편집장의 글’을 쓰면서 저 글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그의 말대로 ‘남자의 사고방식과 화법, 관점을 만족시킬 유일한 우리나라 잡지’이자, 지금의 출판 산업 침체기에 3개월 연속 완판을 이를 만큼 정력적인 남성잡지가 바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MAXIM이다.

나는 이것이 앞서 말한, ‘팔팔 튀는 스파크’로 시작해 4,16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독자와 MAXIM의 자연스러운 유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는다. 주변에 볼 거리, 놀 거리가 지천에 널렸지만 MAXIM을 믿고 선택한 당신, MAXIM을 ‘읽고’ 지지해주는 독자(讀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AXIM을 ‘읽고’ 참여해준 많은 스태프와 모델, 인터뷰이를 비롯한 셀러브리티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누군가에게 늘 신선하고 자극적이며, 또 누군가에게 매달 믿고 돈과 시간을 쓸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MAXIM은 자기관리를 멈추지 않겠다.

“씨랑헤, 씨-뽕.”

2014년 4월 편집장

이영희

REVOLUTION.

MINI 그대로 모든 것을 바꾸다.



THE NEW MINI. THE NEW ORIGINAL.

MINI.CO.KR WWW.FACEBOOK.COM/MINIKOREA.KR



» TALK TO MINI. 080-6464-003

> MINI SHOWROOM 강남 02.549.3400 | 서초 02.2146.8900 | 목동 02.2646.4600 | 용산 02.3409.3400 | 잠실 02.469.3400 | 분당 051.709.4600 | 인천 032.213.4600
부천 032.285.4600 | 일산 031.8076.4600 | 대전 042.637.3400 | 광주 062.370.5900 | 대구 053.745.7900 | 부산 051.747.8100 | 창원 055.237.8040 | 제주 064.757.34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차종명: THE NEW MINI COOPER (스텝트루닉 6단 자동변속기/배기량: 1,498cc/공차중량: 1,115kg) · 복합연비: 14.6 km/l / (도시연비/고속도로연비: 12.9 / 17.5 km/l) · 등급: 2등급 · CO2배출량: 117g/km
THE NEW MINI COOPER S (스텔트로닉 6단 자동변속기/배기량: 1,998cc/공차중량: 1,175kg) · 복합연비: 13.7 km/l / (도시연비/고속도로연비: 12.0 / 16.6 km/l) · 등급: 3등급 · CO2배출량: 126g/km

※ 해당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위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Fägermeister

ICE COLD SHOT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신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Jägermeister

PRODUCED AND BOTTLED BY
Mast-
Jägermeister SE
WOLFENBÜTTEL
GERMANY

70 cl 35%
700 ml vol



WE NEVER FREEZE

www.facebook.com/jagermeister.Korea

★*the*

MAXIM

Party★

Dry d

HPNOTIQ

DJs
S2/ ROEM
JIEUN/ J - ONE
INSERT COIN
LEO/ KYO
RUMEN
BIG TEETH
EVAN/ JUAN

EVENT INFORMATION:
4월 15일 입장권 이벤트 오픈!
WWW.MAXIMKOREA.NET
f : maximkorea

INFO

RSVP

010-9839-0529

Cover

20,000KRW

Location

Club Holic, B1
Youngdong Hotel
6,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Korea

DRESS CODE

Black & White

2014.04.25

Friday

PM 10:00



AR510SWS

R Real **A** Automatic **W** Watch what you want

Automatic 시계의 새로운 A/S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보증기간 내 완전 무상교체” 부품 수리가 아닌 새 부품으로 무상교체 해 드리겠습니다.

ARBUTUS®
 New York

공식수입처: 글로벌타임 Tel 02.778.1590 www.GlobalTime.co.kr

서울 노원 워치룩 070-4136-5090
 신촌 이타임월드 02-313-4108
 종로구 전진상사 02-764-4716
 테크노마트 타임21 02-3424-7063
 두타 타임갤러리아 02-3398-5528
 신도림 타임타임 02-2111-1141

가로수길 블랙브라운 1588-6768
 수원AK 031-240-2277
 안양1번가 시계상자 031-441-0158
 안양1번가 샤론 031-463-9788
 일산 웨스트타운 타임24 031-931-5300
 인천 구월동 워치보이 070-8632-5300

인천 부평 타임런 070-7516-4545
 충남 대천 대천마켓 041-935-4994
 청주 복와치 043-223-1333
 부산 광복동 명성시계 051-253-5356
 제주 한림읍 부띠 010-9083-5706
 제주도 티아라 064-745-3008

대구 열가 053-255-6940
 광주 시계이야기 062-233-9100
 가산 오케이워치 02-2104-3883
 서교 오케이워치 02-324-3880



Letters

당신을 괴롭히는 지독한 고민을
거짓말처럼 깨끗이 해결해주는 MAXIM 고민 상담소!

페이스북
MAXIM
페이지
방문하기



이제 미숙이가
오늘 술 사달래

난 어제
사줬다

난 내일

호구 탈출 넘버원

이제 개학시즌이네요. 헌데 그런데 어째서 왜 저희 복학생들을 위한 호구 선배 탈출법은 없는 거요!
MAXIM은 각성하고 호구 선배 아닌 인기쟁이 선배로 거듭나는 법을 알려주시요!
아니... 부탁드립니다. 흑흑 <정승원 모바일 사연>



편집장 → 남자로 태어나 겨우 '인기쟁이 되려고 애쓰는 선배'가 될 텐가? 당신은 군필 복학생만이 뽐
수 있는 '진짜 사나이'다운 매력으로 어필하라! 여자를 위해 강의실 문을 열어줄 땐, 제실 작업 할 때 삼
쥘던 악력을 발휘하자. 팔과 이마의 핏줄이 태백산맥처럼 꿈을 솟구치면서 손잡이가 문에서 뽐나가자 진짜
남자다. 여자 후배들 앞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는 "호호!" "갈!" 등의 기합을 지르며 검지 끝에 기를 모아
뽐 내질러라.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거나 질문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큰 소리로 관동성명을
대자. 여자 후배들은 이제 당신만 보면 너무 좋아 부끄러워서 손발을 부들부들 떨며 멀찍이서 눈치만 살피게 될
거다. 씨익 웃어주며 주목을 들고 이렇게 외쳐라. "의리!" 이제 적어도 당신을 만만히 보거나 밥 사달라며
들러붙는 후배들은 없을 거다. 이유가 뭐든 간에.

땅딸보 vs. 뽐뎅기

쌍둥이는 아니지만 저와
얼굴이 닮은 친동생과
했던 얘기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어떤 평균의
조합을 갖춘 남자를
선택할까?' 라는 주제였는데
평균 이상의 키, 그러나 평균 사이즈를 가진 남자.
평균 이상의 키, 그러나 평균의 키를 가지고 있는
남자. 궁금합니다. 평균 이상의 키 + 평균 사이즈 vs.
평균 이상의 키 + 평균 키 (최병광, 이메일 사연)

키 말고 크기를 봐



호갱님 잘못이십니다~

서른 살 영업사원입니다.
나를 말뽐로 먹고
사는 사람이면만 손님
입장만 되면 호갱이
됩니다. 얼마 전에는
가만히 있던 핸드폰이
고장 나서 AS센터에 갔는데 직원 말에 놀이나 고객
과실로 처리됐네요. 어떻게 하면 호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승현, 이메일 사연>

아이폰보다
좋은 거 샀어.



에디터 유승민 → 제기랄, 어렵게도 빙빙 돌려
얘기하네. "여자들은 XX 큰 땅딸보랑, 뽐뎅기
XX의 하루대 중에 뽐 더 좋아해요?" 하고 물어보면 뽐
것을. 이 사람이, 여자들이 실제로 뽐 더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키 큰 남자겠지!
소라넷이 아닌 이상 초면에 "흑시 존슨 길이는 어떻게
되세요? 둘레는요?"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따위 것을
묻는 걸 보니 자네는 키보다 존슨에 더 자신있나 본데,
여자 만나면 솔직하게 표현해 보게나. 이거 완전 '모
아니면 도겠는데?' 후기 남겨주세요.



에디터 손안나 → 몇 달 전의 쓰라린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야말로 슈퍼 호갱이거든요. 베가
시크릿 노트를 할부 원가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샀드렸죠. 후덕한 인상의 휴대폰 매장 사장님이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달에 2만 원만 내면 지문인식 기능이
탑재된 이 놀라운 휴대폰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유혹했어요. 찾아 보니까 지금은 공짜로 풀렸네요.
아오, 뽐치네...
P.S. 매장 직원이 구라를 치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120 페이지로 가서, 거짓말 탐지에 대한
기사 <Truth of Lie>를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MAXIM 페이스북 댓글 대화록

당신도 와서 한 마디 거들어.

>> 오늘도 평화로운 맥심 코리아



조용재 조용재 에디됩니다.
한 직장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에서 승민 선배를
인터뷰 해줬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도 있네요. 저한테
풀리세요? ㅋㅋ



유승민 선배한테 풀리나니
시발롬아



Junye Lee 오늘도
평화로운 맥심코리아

>> 술 권하는 사회



이영비 편집장입니다. 방금
손안나, 김진욱 에디터랑
돈까스 먹었습니다.
화이트데이라서 허한
거품일링이는 생맥주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다들
막바지 촬영 준비 때문에
바쁘네요. 편집부 삼실에
저밖에 없군요;;;



가마링구 편집장님의
술선수매!



이우현 화이트데이가 뭐가요
화이트나 마셔야조ㅋㅋ



MAXIM KOREA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maximkorea



나의 불금을 그녀에게 알리지 말라

여자 친구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불금에 친구들과 거하게 놀았습니다. 여자들과 헌팅해서 놀면서 화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죠? 나중에 알고 보니 헌팅했던 여자들 중 한 명이 여자 친구의 친연이네요.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을까요? <피킵,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웅재 → Rkelly와 Usher가 함께 부른 전설의 노래 'Same Girl'은 두 남자가 서로 자기 여친 자랑을 하다가, 알고 보니 같은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아채고 존나 어이없어 하는 슬픈 구명동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가 쌍둥이였다...라는 훈훈한 결말을 맞죠. 이걸 실생활에서 역으로 응용해 봅시다. 조만간 여친이 사실을 알고 분노의 싸대기를 일발 장전한 채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일단 맞으세요. 그리고 진짜 존나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리버스 싸대기를 날리고 "뭐야 이 미친년아, 나 알아?"라고 말한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서둘러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울먹이는 여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달래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오늘부터 쌍둥이 형제가 생겼되었습니다. 가끔은 형이 되어 여친 언니랑도 즐겁게 놀아주세요.

워너비 슈퍼사이즈

친구하고 내기했습니다. 1년 동안 밥 대신 햄버거만 먹기 vs. 물 대신 콜라만 마시기. 둘 중 어떤 게 더 나을까요? <curi, 이메일 사연>



간호사.avi

삼수 끝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22살 예비 나이팅게일이요. 그동안 공부 핑계로 남자친구와 금석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소. 특별한 이벤트 뭐 없소? <나비, 이메일 사연>



에디터 김소윤 → 당연히 콜라죠! 콜라는 다양한 음식과 어울리잖아요? 하지만 햄버거를 먹을 땐 콜라밖에 없어요. 독자님이 햄버거를 선택하면, 결국엔 1년 동안 콜라와 햄버거를 먹어야 할 겁니다. 차라리 콜라를 선택해 메인 디쉬에 베리메이션을 주세요. 영화 <슈퍼사이즈 미>를 보면 '한 달 동안 햄버거만 먹기'에 도전한 주인공은 중간에 우울증과 성 기능 장애를 겪으며 중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걸 어떻게 1년 동안 먹어요! 이제 고민이 싹 해결됐죠? 그럼 저는 점심 먹으러 버거킹에 가 볼게요. 오늘 콧노릇까지 단풍 사면 세트에 업그레이드 시켜준대요. 께

에디터 박정욱 → 모든 고민의 해답은 주변에 있는 법. 당장 간호사복을 준비하십시오. MAXIM 소풍실에 넘쳐나던 간호사 코스프레 의상이 지난 밸런타인데이 이후 절반 이상 사라진 걸로 미뤄볼 때 간호사복의 힘은 위대하오. 얼마 전에 야동을 봤는데, 일본 간호사들 사이에선 가터벨트와 망사 스타킹을 입는 게 유행 같더이다. 좋은 문화는 배워야 하지 않겠소? 간호사복을 반쯤 풀어헤치고 남자 친구의 옷을 벗기고 몸 상태를 진단해보시오. 중심부에 큰 혹이 자라나고 있지 않소? 고름을 빼줘야 하오. 명의 허준은 환부에 입을 대고 빨아서 고름을 빼냈다고 하오.

독자 사연 응모

▶우편 접수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22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사연이 실린 독자 모두에게 주는 이달의 독자 선물

사연이 잡지에 실린 독자 모두에게 다음의 선물을 랜덤으로 배송해 준다!

랩시리즈 멀티-액션 웨이스 워시

올해도 벚꽃엔딩이 다시 들리는 봄이 돌아왔다. 이성과 함께 벚꽃놀이 갈 준비를 하는 그대! 랩시리즈의 폼클렌저로 미세먼지와 황사가 쌓인 모공을 깨끗이 씻어내고 빛나는 피부로 당신의 그녀를 유혹하라!



엠도씨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

따사로운 햇빛에 당신의 주름을 들릴까 걱정하는 남자들이여! 엠도씨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 한 방울로 주름 걱정 덜고 탱탱하고 젊은 피부로 돌아가자. 들리지 않는가? 당신을 부르는 소리가. 오빠양~



MAXIM 여성용 V넥 티셔츠

우이 한걸 가벼워지는 계절 봄. 색시한 핏을 보여줄 MAXIM V넥 반팔 티셔츠를 입고 걸어 나가는 순간 남자들이 벚꽃 잎처럼 몰려든다. 조심해라! 몰려든 남자들이 가려져서 진짜 벚꽃 구경 놓칠래!





HELL DIVER

1942 SB2C

TRIPLE TIME



HELLDIVER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09
 N 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490
 N C백화점(해운대) 051-709-5737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TIME 21(강변점) 02-3424-7073
 TIME 21(강변점) 02-3424-1210
 테크노마트B1(신도림) 02-2111-1120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2001아울렛(중계점) 02-3399-8236
 샤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보석상자(안양점) 031-466-1014
 탐타임(안산점) 031-413-7656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티파니(일산점) 031-931-5300

롯데센텀점(부산점) 051-730-3198
 노블리(일산점) 031-961-6795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타임런(부평점) 070-7516-4545
 탕끼통(부천점) 032-662-0686
 북와치(청주점) 043-223-1333
 타임붐(부산점) 070-7530-1219
 엘가시계(부산점) 070-7569-5766

덕천시계(부산점) 051-333-8849
 M B K TIME(부산점) 070-8200-2234
 교보문고(대구점) 053-256-1575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엘가시계(대구점) 053-255-6940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더타임(진주점) 055-741-3072

Dear. Readers

개그맨 이윤석의 독자 고민 상담

상남자로 돌아온 이윤석이 당신의 고민을 때려 부순다.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을?!

상의 블라우어
바지 스톤아일랜드
모피 대한모피
신발 바이더달
반지 킹크로치
시계 닉슨

Q. 여름이 다가오면서 운동을 시작한 서른다섯 살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하면 아놀드 슈왈제네거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놀드, 모바일 사연>

A. 한국인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될 수 없어요. 해봐야 이상용입니다. 나이가 서른다섯 살이시니까 20대 시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하게 생각하지마시고 길게 보세요. 한의사인 제 아내는 운동할 때 단기간에 많이 하는 것보다 하루에 5분 동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저보다는 확실하 몸이 좋아질 것을 보증합니다! 아,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건 실례 아닙니까?

Q. 연애하고 싶은 스물두 살 학생입니다. 부끄럽지만 제법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자 친구가 안 생깁니다. 친구는 제가 너무 재미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웃기는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간상우, 이메일 사연>

A. 웃기면 완벽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제 주변에도 얼굴만 잘생기고 안 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괜히 잘생긴 사람이 욕심내다가 개그도 실패하고 얼굴도 못생겨 보여요. 꼭 참고 나는 신비로운 뭔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잘생긴 분들은 절대 개그맨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웃긴 것 빼고 여자들이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양보하세요!

Q. 여자 친구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도 참더라고요. 이리다 한 번에 터져서 극대노와 함께 이별을 겪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 친구를 화나게 할 수 있을까요? <니남자, 이메일 사연>

A. 당장 결혼하세요. 세상에 화를 안내는 여자 친구만큼 좋은 건 없어요. 결혼해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도 정말 화를 내게 하고 싶다면 극단적인 방법을 쓰세요.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보여서 여자 친구의 질투심을 유발하든가, 아니면 고백하세요. “나 사실 게이야” 라고, 그런데 그러다 헤어져도 저 찾아오진 마세요. 그런데 이게 왜 고민이지? 축복 받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 대표
커플링은 
커플이야
www.couple2ya.com

검색창에 **커플이야** 를 검색해 보세요.

Dear. Readers

맥심 파티에서
만나요!

MISS MAXIM 이현지의 독자 고민 상담

신이 빛은 몸매의 소유자 미스맥심
이현지가 당신의 고민에 귀를 기울인다.

Q. 띠 동갑 연하 여자 친구를 사귀고 있는 서른두 살 은행원입니다. 대충 제 여자 친구의 나이는 짐작하시겠죠? 여자 친구가 대학에 들어간 후로 동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하면 여자 친구를 늑대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대세남, 모바일 사연>

A. 여자 친구는 분명 같은 또래 남자보다 독자님 같이 나이 차이가 있어서 자상하고 푸근한 스타일을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가끔 학교에 데리러 가보세요. 좋아할 거예요. 또래가 해줄 수 없는 걸 해주세요.

Q. 스물여덟 신입사원입니다. 제가 다니는 기업은 꽤나 보수적인 기업인데요. 여자 친구가 있는 저에게 자꾸만 유흥업소에 가기를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프루, 모바일 사연>

A. 유흥업소에 가게 되면 그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술만 드세요. 옆에 여자들한테 미리 "여자 친구가 있어서 이런 데 오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편히 있어라"라고 말해주세요. 그분들도 여자니까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여자 친구한테는 절대 이런 거 말하지 마시길!

Q. 저희 아버지는 20년 동안 혼자 사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것도 둘 씩이나! 아버지가 양다리를 걸치다니. 바람난 우리 아버지 어떻게 말리죠? <호랭이, 이메일 사연>

A. 지금까지의 사무치는 외로움을 달랜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 같은데, 아버님께서 분명 조심스럽게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륜은 못 속이거든요. 그래도 안 고쳐지면 "한 명만 택하세요!"라고 강하게 말해주세요.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Ingersoll History



established in 1892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료타임 www.eurotime.kr

[직 영 점] 롯데백화점 분당(031-738-2140) / 롯데백화점 미아(02-944-2130) / 하이힐(02-2136-9743)

[면 세 점] 제주JDC면세점(3/30 오픈 예정)

[판 매 처] 롯데백화점 본점(02-772-3908) / 노원(02-950-2164) / 잠실(02-2143-1922) / 영등포(02-2164-6191) / 건대 스타시티점(02-2218-3191) / 부평(032-452-2146) / 전주(063-289-3191) / 창원(055-279-3192)

대구(053-680-3126) / 부산 본점(051-810-4087) / 대구백화점(053-422-3191) / NC백화점 강서점(02-2667-9902) / 해운대점(051-709-5741) / 뉴코아아울렛 강남점(02-535-1948) / 안산점(031-8085-1708)
대전 세이백화점(042-257-7745) / 서울(02) 현대아이파크 해피타임(2012-0625) / 외와치 강남점(537-8977) / 원타임(2200-1355) / 전진상사(764-4716) / 타임머신(6388-2927) / 타임21(3424-7063) / 타임월드(3132-4108) / 패션존(3398-7527) / 프로워치(779-6964) / 월드워치(6262-4611) / 경7(031) 시계상사(466-1014) / 사론주얼리(463-9788) / 유빈(658-6883) / 타임루트(487-9057) / 타임24(931-5500) / 타임플러스(371-6850) / 경기(032) 대성(325-7467) / 타임스토리(613-0516) / 뽕기통(662-0686) / 타임런(504-8245) / 청주(043) 보보스워치(235-1510) / 타임21(224-8851) / 복워치(223-1333) / 광주(062) 타임 앤템포(222-3114) / 예비뉴(222-7782) / 대구(053) 공주나라(256-0975) / 골드워치(424-4442) / 리프(425-0157) / 스위스워치(593-4844) / 신세계몰스텍(566-3316) / 주얼리아(428-2668) / 해피타임(428-3086) / 부산(051) 명성시계 광복(253-5315) / 명성시계 남포(253-5334) / 명성시계 서면(667-7356) / 명성시계 신창(253-5354) / 월드타임(245-8359) / 덕천시계(333-8849) / 타이머플(919-4704)





**Oh, Yes!
TRIPLE SOLD OUT!**



SPECIAL GUEST
서울대 공대 여신 최정문의 깜짝 방문

지난 3월호 MAXIM에 등장에 화제를 모았던 청순 미녀 최정문이 서울 홍대 앞 MAXIM 사무실을 찾아 스타프들의 사기를 만망으로 충전시켰다. 꽃 향기를 물고 온 그녀의 방문에 MAXIM의 모든 남자 스타프들이 그녀와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후 그들은 서로의 사진을 비교하며 자신의 머리통이 최정문의 머리보다 몇 배나 더 큰지를 겨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MAXIM 포토그래퍼들의 '엄şam미 클랜'에 레알 엄şam미 합류!

요즘 MAXIM 포토그래퍼들은 모바일 게임 <크래쉬 오브 클랜>에 거의 미쳐있다. 그들은 이름하야 '엄şam미 클랜'을 결성해 초등학교생인 자신의 아들과 조카까지 끌어들여 게임을 즐기고 있다. 게임을 하는 사람 중엔 세련된 패션 화보로 이름난 포토그래퍼 P씨가 있다. 그는 수천만 원대의 '현찰'을 하며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최근 '캐쉬왕' P씨가 전국 4위의 위업을 달성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다. 미스맥심 엄şam미 양이 촬영 차 스튜디오에 갔다가 MAXIM 포토그래퍼들의 꼬임에 넘어가 본인 이름을 딴 '엄şam미 클랜'에 가입한 것! 엄şam미 영입에 앞장선 한 포토그래퍼는 이렇게 말했다. "붕어빵에 붕어 없지만 엄şam미 클랜에는 엄şam미가 있다!"

'황금골반' 정인영 아나운서가 표지를 장식한 MAXIM 1월호의 완판 소식에 2014년의 스타트를 밝기차게 끊었던 MAXIM 편집부. 청마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일까. 가수 나비 표지의 2월호도 1월호에 이어 품절을 기록했다. 감개무량한 소식이 얼마 전 또 한 번 들려왔으니! 아이돌 레인보우의 멤버 조현영이 커버를 장식한 3월호도 모두 판매되었다는 것. 이로써 MAXIM은 세 달 연속 품절이라는 명예로운 '트리플 완판'을 이뤄냈다. 올레!

MAXIM ONLINE SURVEY
후라이드 치킨계의 왕은 누구인가?

<p>1위 BBQ 황금올리브치킨 (30%)</p>	<p>2위 KFC 핫크리스피&오리지널 (23%)</p>	<p>3위 네네치킨 후라이드 (14%)</p>	<p>4위 호식이두마리 후라이드 (13%)</p>
--	---	--------------------------------------	--

아주 개막을 앞둔 지금, 어떤 치킨을 시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MAXIM이 홈페이지에서 치킨 왕을 가리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1등은 메이저리거 류풍이 치킨 먹방 광고를 하는 BBQ 치킨에게 돌아갔다. 더 유쾌하고 골때리는 설문을 보고 싶나? MAXIM 홈페이지로 와!

설문조사 바로가기

<p>SEX SURVEY 나는 질의 사정만으로 피임을 한다.</p> <p>예 42% 아니오 58%</p> <p>총 투표자: 2,718 기간: 2014년 2월 17일~ 진행 중</p>	<p>GIRL BATTLE 2NE1 vs. 소녀시대, 붙으면 누가 이길까?</p> <p>소녀시대 68% 2NE1 32%</p> <p>총 투표자: 1,407 기간: 2014년 2월 28일~ 진행 중</p>
---	---



MAXIM INSIDE



INFO
RSVP
 010-9839-0529
Cover
 20,000KRW
Location
 Club Holic, B1
 Youngdong Hotel
 6,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Korea

DRESS CODE
 Black & White

2014.04.25
Friday
PM 10:00

DJs
 S2/ ROEM
 JIEUN/ J- ONE
 INSERT COIN
 LEO/ KYO
 RUMEN
 BIG TEETH
 EVAN/ JUAN

EVENT INFORMATION:
 4월 15일 입장권 이벤트 오픈!
 WWW.MAXIMKOREA.NET
 f : maximkorea

NO MINORS ALLOWED, PLEASE BRING YOUR OWN ID

THE MAXIM PARTY COMING SOON~

드라이 d, 힙노틱과 함께하는 MAXIM 파티가 4월 25일 봄바람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온다! 이번 집결지는 논현동의 핫 플레이스, 클럽 홀릭!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블랙 앤 화이트다. 검은색과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뒤섞여 빠르게 스텝을 밟으면 희색백 회오리가 일어나려나! 궁금해서라도 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 4월 15일부터는 MAXIM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입장권을 나눠주는 이벤트가 열린다. 딱 주목하고 있어!



MAXIM 촬영 스태프, 드디어 공중파 출연?!

4월호의 ICON 이윤석 백커버(p.106) 촬영이 있기 하루 전, 담당 에디터 조웅재는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화보 촬영 현장을 취재하러 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를 비롯한 현장 스태프 몇몇은 방송을 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새 옷을 사고 피부 관리까지 받는 등 설레발을 쳤다. 하지만 공중파의 벽은 높았다. 화보 촬영 장면은 순살같이 지나갔고, 리플레이-플레이 버튼을 뽐사지도 못 놀러봐도 MAXIM 스태프의 모습은 단 1초도 나오지 않았다.



방송에서 당신은 섹스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명종: 고자 되면 자살 할건가?

유승민: 어떡해, 아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장난 목을 필요도 없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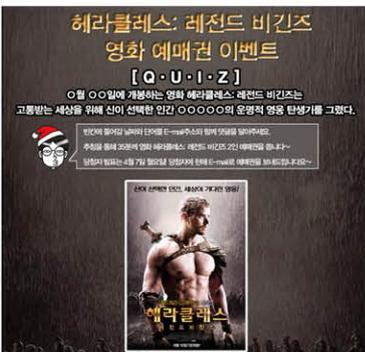
명종: 아예 발기도 안된다면

유승민: 아... 그런 한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아, 어떡하지, 마약을 하지 않을까?

수석 에디터 유승민, <오피스 N> 인터뷰

맨날 인터뷰를 진행만 하던 유승민 에디터가 최근 매거진 <오피스 N>에 인터뷰를 당했다. 그는 "고자가 되면 정관을 묶을 필요가 없으니 더 좋을 수도 있다", "나는 섹스를 위해 산다" 등의 고급진 발언으로, 품격과 교양이 넘치는 잡지 에디터의 에지를 드러냈다.

HOT EVENTS ON MAXIM FACEBOOK



헤라클레스: 레전드 비긴즈 영화 예매권 이벤트
 [Q·U·I·Z]
 ○월 ○○일에 개봉하는 영화 헤라클레스: 레전드 비긴즈는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신이 선택한 인간 ○○○○의 운명적 영웅 탄생기를 그렸다.



MAXIM 페북 바로가기
 MAXIM의 집결처입니다. 저자 산물 보따리를 풀어 봐요~?
 이번엔 4월 10일 개봉 예정인 영화 <헤라클레스: 레전드 비긴즈>가 주인공입니다. 사연과 관련된 질문은 제로 댓글과 E-mail을 남겨주세요. 주제를 통해 35분짜리 영화 <헤라클레스: 레전드 비긴즈> 2인 예매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문장안에 답이 있는데~ 이렇지도 못 물론 아니거나 아니지요~!



공짜 너무 좋아하면 나처럼 대머리 된다~

MAXIM 홈페이지 & 페이스북 시사회 이벤트
 MAXIM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기웃~기웃~거리면 선물이 와르르 쏟아진다. 이번 달에는 4월 10일 개봉 영화 <헤라클레스: 레전드 비긴즈>의 2인 예매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언제 어떤 이벤트가 뿡 터질지 모르니 늘 시선집중!

홈페이지: maximkorea.net, 페이스북: facebook.com/maximkorea

퇴마사들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오컬트 블록버스터 시리즈

슈퍼액션
바로가기



수퍼내추럴 9

4월 11일 (금) 밤 10시 TV최초

**SUPER
ACTION**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안내면 솔래~
가위, 바위, 보!

영상으로
구경하자



aximus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인형의 섬



인형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에게
이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여기서 맘껏 골라보렴.” BY 손안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이곳은 리투아니아 공동묘지, 체르노빌의 놀이공원, 곤지암 정신병원 등을 제치고 CNN이 선정한 지구 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인형의 섬’이다. 섬 전체에는 버려진 인형들이 빨래처럼 주렁주렁 널려 있다. 바람이 불면 이 인형들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부딪히는데, 그 소리 또한 매우 음산하고 괴기스러워 ‘귀신의 음성’이라 불린다.

이 섬의 주인은 돈 줄리앙 산타나. 1975년, 그는 멕시코시티 소치밀코 운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인공 섬에 정착했다. 그리고 26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마다 인형을 매달아 지금의 장관을 완성했다. 평범한 유부남이던 그가 무슨 사연으로 인형을 매다는 일에 인생을 바치게 된 걸까? 1950년, 산타나는 소치밀코 운하에서 한 소녀를 만났다. 산타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지고 놀던 인형을 실수로 물속에 빠뜨린 소녀는 그걸 건지기 위해 몸을 속이다가 그대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날 이후 소녀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그에게 매일 밤 죽은 소녀의 원혼이 찾아왔다. 산타나는 그 무렵부터 인형을 모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인형들을 주워 섬 곳곳에 부적처럼 걸었다. 이렇게 시작된 한 남자의 호러 컬렉션은 반백 년에 걸쳐서 지금 이 섬 안에 1,500여 개의 인형으로 완성되었다.

산타나는 2001년 사망했다. 돌봐주는 이 없이 흉측한 꼴로 방치되었던 인형들은 후에 이 섬을 우연히 방문하고 기겁한 멕시코 청년 두 명이 세상에 알려면서 유명해졌다. 아, 참고로 산타나의 사인은 익사였다고 한다. ☹

Circus Maximus

식목일 기념!

오늘 교정기
빼러 가는 날!

나무에게도 사연은 있다



살인 현장 목격, 납세의 의무, 성 전환...
당신보다 사연 많은 나무들이 여기 모였다. BY 박정욱

나무를
울기는
신박한
방법



1 트랜스젠더 은행나무

성군관에는 성 전환 의혹을 받고 있는 나무가 있다. 명령당에 있는 400살 먹은 은행나무가 열매를 맺는 암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로 성전환 됐다는 것이다. <신중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해마다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땅에 떨어져 똥 냄새를 풍겨 성군관의 한 관원이 제사를 드렸고, 그때부터 열매를 맺지 않아 세상에서 괴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바뀌었다면, 고추도 생겼을까?



2 대치동 은행나무의 전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는 500살 먹은 한 은행나무에 얽힌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먼 옛날 한 할머니가 용문산으로 치성을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은행나무 지팡이를 땅에 꽂았는데 지팡이가 움이 트며 자라났다. 그 뒤로부터 이 마을에서는 장애인이 태어나지 않았고, 이 곳에서 이 나무가 재해를 없애주고 악귀를 쫓아 상업을 융성하게 해주며 농가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고 있다. 아... 그래서 대치동이 잘 사나 보다.



3 세금 내는 나무 석송령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에 있는 석송령은 해마다 4만 원이 넘는 재산세를 내고 있다. 석송령이 호적에 등기되고 재산을 갖게 된 것은 1928년의 일. 아들이 없었던 이수목이라는 사람이 나무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군청에 가서 나무의 호적을 만들고 자신의 전 재산인 토지 2,000평을 나무에 등기 이전했다. 얼떨결에 '김탄' 뽐치는 상속자가 된 석송령은 자신의 토지에 집 세 체 세 내주어 재산을 불리고 있다고.



4 살인 목격 미루나무

판문점 인근 공동경비구역. 미군은 원활한 관측을 위해 시야를 방해하는 미루나무의 가치를 치기로 했고, 미군 장교 둘이 이 작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북한군 장교가 이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급기야 도끼를 빼앗아 휘두르며 두 미군 장교를 살해했다. 이 일로 미군은 북한군 초소를 공격하는 '폴 버니언 (미국 전설에 등장하는 거구의 나무꾼)' 작전을 수행했으며, 대한민국에는 데프콘2(공격준비태세)가 발령됐다.

숫자로 보는 나무



2,000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셰코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아메리카삼나무 '제너럴 셔먼'으로 무게가 무려 2,000톤에 달한다. 이는 아프리카 코끼리 320마리의 무게와 같다.

6.5

나무 심기 가장 좋은 온도는 6.5°C다. 시기상으로 3월 중순이 이 기온에 가장 부합하여 정부가 식목일을 3월 중순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409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평생 소비하는 나무의 그루 수.

115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하이퍼리언'으로 115m에 달한다. 이는 아파트 40층 높이다.



공식 수입원 성원 : 02-3445-4603

직영매장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4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82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7 신라면세점(장충동) 02-2230-3997
 한국관광공사면세점(인천공항) 032-743-2107 제주관광공사면세점(중문단지) 064-780-7670

지정판매처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6191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53-6841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4191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1909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490 AK플라자 수원점 031-240-2199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85 NC 해운대점 051-709-5741 뉴코아아울렛 안산점 031-8085-1708
 롯데파우어홀렛 031-960-2873
 엘가 대구점 053-255-6940 삼성사 대구점 053-422-3002 해피타임 대구점 053-428-3086
 엘가 구미점 054-451-6940 타임피아 포항점 054-253-8855 조이필 포항점 054-613-1170
 엘가 부산점 070-7569-5766

J.SPRINGS
CHRONOGRAPH
BORN IN JAPAN

상상 그 이상의 전략 시뮬레이션이 온다! 〈혁명 2014〉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스타크래프트2〉의 아성을 잠재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MAXIM이 직접 구상해 봤다. 빌 로퍼 같은 유능한 개발자 분만 모십니다. BY 조용재

*이 기사는
특정 인물 및 단체, 사건, 사고와
다루는 내용이 없습니다.

혁명군 진영 Demonstrators

주로 노동자 계급과 지식인들로 구성된 혁명군 진영은 오랜 시간동안 공권력의 횡포에 맞서 왔다. 오늘도 그들은 무수한 희생을 치르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 중이다.



파이버 (Piper)



'시위대의 꽃'이라 불리는 파이버들은 혁명군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투쟁의 주역이다. 일반 노동조합원에서 생산이 가능하며, 별다른 스킬 없이 쇠파이프를 들 수 있는 근력만 있다면 누구나 파이버가 될 수 있기에 생산 속도가 빠르다. 진압군 진영의 전투경찰과 맞서는 근접전 유닛으로, 파이버가 무거워 공격 속도는 느리지만 데미지가 상당하다. 다만 두건과 모자, 마스크를 제외하면 방어구가 없어 방어력이 약하다.

↑ 혁명 동지의 분노 (Berserk)



유닛 주위 반경 5m 내에 있는 동료 조합원이 적의 공격으로 쓰러질 때마다 5초간 데미지가 5%씩 증가한다. 다만 백골단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



슬링슈터 (Slingshooter)



오랜 세월에도 걸친 파이버들의 희생으로 혁명군 진영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만 했다. 혁명군 지도부는 오랜 연구 끝에, 원거리 전투에 약한 전투경찰을 제압할 전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탄생한 유닛이 바로 새총으로 쥘들을 쓰는 '슬링슈터'다. 원거리 공격에 특화되어 있으며 별다른 장비가 없어 혁명군 유닛 중 가장 빠른 기동력을 자랑한다. 다만 방어력이 무척 약해 근접전에서 적군을 만나면 답이 없다. 살수차에게는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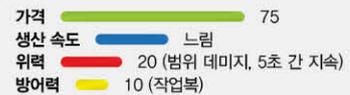
↑ 볼트와 너트 연구 (Metalizer)



조립공장에서 이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면 슬링슈터가 더 강력한 볼트와 너트를 발사한다. 대신 이동속도가 느려지며, 발사할 때마다 비용 3원이 발생한다.



칵테일러 (Cocktailer)



혁명군 지도부는 진압군 병사들의 단단한 무장을 순식간에 거적대기로 만들어버릴 특수 병사를 키워냈다. 그것이 바로 적에게 혼란과 타격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칵테일러다. '7080 주점'에서 생산되는 이 유닛은 원거리에서 화염병을 던져 광범위한 지역에 지속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주점을 '클럽 MB'로 업그레이드하면 '예거 Bomb'을 개발해 화염병의 범위와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다. 대부분의 진압군 유닛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살수차에게만큼은 대책이 없다.

↑ 언더스로우 (Underthrow)



화염병을 바닥에서 쓸어들리듯 던져 불꽃이 원형으로 터지지 않고 직선 방향으로 길게 뻗어나간다. 화염 지속 시간은 짧아지지만 더 넓은 범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진압군 진영 Suppressers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과 군부대로 이루어진 진압군 진영은 조국의 안위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그동안 피나는 훈련을 해 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반란군'이라 부르는 혁명군을 제압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장르	전략 시뮬레이션
플랫폼	PC
기획	MAXIM Ent. \
개발사	누기 즘 해줘
서비스	개발도 안 됨

실시판
무비
트레일러



전투경찰 (Guardian)



철저한 검열과 훈련 끝에 탄생한 진압군의 전투경찰은 주로 육군으로 지원했다가 차출된 병사들, 혹은 잦은 정기 휴가에 눈이 멀어 지원한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력 무기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커다란 '평화의 방패'. 이 유닛은 경찰청에서 생산이 가능하며, 세 명당 한 명 꼴로 기동대가 아닌 방범순찰대(방순대)가 생산된다. 방순대의 전투력은 일반 기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출격 전 편의점에서 물레사 온 천하장사 소시지로 HP를 채울 수 있다.

↑ 그리인딩 실드 (Grinding Shield)



거친 시위대를 단번에 제압하기 위해 방패 아래쪽을 날카롭게 갈아 두고 강력한 일격을 날린다. 사정거리가 짧아 근접전이 아닌 이상 맞추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백골단 (White Skull)



무술 유전자들로 구성된 직원 경찰대 '백골단'은 진압군의 악명 높은 최정예 부대다. 그들은 흰색 하이바와 전신 데님 패션으로 방어력을 포기하는 대신 기동력을 끌어올렸다. '알방'이라 불리는 한손 방패,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경찰봉으로 무장한 백골단은 '미처 날뛰는 전장의 지배자'라 불린다. 생산 속도가 느리지만, 일단 모이기 시작하면 파이프 몇 부대는 손쉽게 쓸어버린다. 고급 건물인 경찰학교에서 생산할 수 있으며, 직원 중대라 지속적으로 월급이 나간다.

↑ 위장술 (Transforming)



백골단은 사복경찰이라는 특징 덕에 적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스킬을 사용하면 헬멧을 감추고 제임스 딘 코스프레를 하며 적에게 공격받지 않는다.



살수차 (Water Cannon)



인산인해를 이루는 혁명군에게 수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진압군은 단번에 많은 혁명군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효율적인 병기가 필요했다. 살수차는 살상 능력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많은 적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고,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에 맞은 모든 적들의 체력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다. 다수를 상대로 강한 위력을 발휘하나, 게릴라전을 펼치는 슬링슈터에게 다구리를 맞으면 쉽게 파괴된다. 가격이 비싸고 기동성도 떨어지므로 여러모로 관리가 힘든 유닛.

↑ 혈세 수리 (Bloody Repair)



데미지를 입은 살수차는 놀랍게도 상대 혁명군의 어마어마한 자원을 끌어와 수리할 수 있다. 늘 그렇듯 공공재는 늘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관리하거든요.

Circus Maximus

Better your life



주의: 함부로 따라하다가 숨질 수 있음



복잡한 인생이 쉬워지는 치트키 전격공개!

만사가 귀찮은 당신도 슈퍼맨 뺨치는 히어로가 될 수 있다.
현대인이려면 과학을 이용하자. **윤기 김민겸**



1 호랑이 기운이 땀!

당신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가? 아줌마들로 가득 찬 헬스장에서 육즙을 짜내며 고생스럽게 근육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백배는 더 간편한 방법이 있다! 뉴욕 버팔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배트맨 사진을 본 사람들은 그 즉시 몸이 좋아지는 기분을 느꼈으며, 실제로도 힘이 강해졌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길 가다가 시비 거는 놈이 있으면 배트맨 사진을 슬쩍 꺼내 보고 주먹을 날리도록 하자.



2 LTE급으로 승진하기

프렌치 레스토랑의 송아지 스테이크와 여름철 보양식인 영계백숙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새끼 동물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심지어 새끼 동물은 당신의 초고속 승진을 도와주기도 한다. 히로시마 대학의 연구 결과, 어린 동물의 사진을 보면 일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진급심사가 코앞이라고? 그럼 업무시간에 당당하게 <아기공룡 둘리>를 시청하자.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부장은 당신을 진급자 명단에서 영원히 제명시킬 수도 있다.



3 1년 365일 먹방 찍기

싸구려 컵라면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최고급 이탈리아 파스타의 흥미를 즐기는 방법이 있다! 스위스의 네슬레 센터는 맛집 사진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뇌는 그 밥을 실제보다 맛있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맛 없는 여자 친구의 요리를 꾸역꾸역 먹어치우느라 고생이었다고? 앞으로는 그녀가 음식을 내 놓는 타이밍에 맞추어, 식탁 아래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맛집 블로그에 접속하자.

21세기 생활형 히어로들

치트키 없이 초능력을 선보인 레알 능력자들.



김성한 / 대한민국

그는 중학생 시절, 날달걀을 병아리로 만들고 눈으로 종이를 태우는 기적을 행하였다며 신문에 대서특필 됐다. 이후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업무 협조 요청을 받기도 한 김씨. 현재 명상호흡에 기반을 둔 수련에 전념하고 있다.

엄신 / 중국

한의사인 엄신은 기를 불어넣어 DNA 구조를 바꾸고, 산불 현장에서 비를 내리게도 했다. 그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고, 혹여 받게 되면 난민 돕기에 썼다. 지금도 양복 두 벌만으로 검소하게 살아간다고, 형 좀 멋있다?

제라드 크로아셋 / 네덜란드

제라드는 어려서부터 물건을 만지면 소유자의 정보를 떠올리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 능력으로 경찰서에서 취업해서 여러 가지 강력 사건을 해결하였다. 하.. 이전 초능력도 스펙인가?

신이 선택한 인간, 세상이 기다린 영웅!



〈월드워Z〉 〈그래비티〉 제작진

헤라클레스

레전드비긴즈

4월 10일 대개봉!



온라인에 업로드 된 모든 영상이 DVD로 제작된다.



고양이 헤드폰을 쓰면 음악을 듣는 척하며 주인의 말을 씹을 수 있다.



2013년 보물 지도에 표시된 우리나라 보물은 사이였다. 2012년 지도에는 8비트를 돌리기에 컴퓨터 사양이 부족할 수 있다는 벨스리가 적혀있다.

구라도 스마트하게! 대기업의 만우절 거짓말

이거 회장님 컨펌은 난 거냐,
이 미친 사람들아! BY 김소윤



오프라인 유튜브 동영상 DVD 세트

창의성 ★★★★★ 완성도 ★★★★★
재미 ★☆☆

유튜브는 만우절만 되면 사람들을 뉘으려고 혈안이다. 그들은 지난 2012년 만우절에 유튜브에 업로드 된 모든 동영상을 DVD로 감상할 수 있다는 생구라를 쳤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지금의 서비스를 다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물량은 유튜브 택배 트럭으로 배송될 것이며, 댓글을 남기고 싶으면 우편을 통해 접수하라는 뽀뽀한 소리를 했던 유튜브. 이게 진짜면 MAXIM 화보 영상도 DVD로 캔소할 수 있었을 텐데!

소니, 애완용 가전제품 '애니멀리아 라인' 출시

창의성 ★★★★★ 완성도 ★★★★★
재미 ★☆☆

작년 4월 1일, 소니는 제법 간지나는 포스터로 사람들을 속였다. 포스터에는 개, 고양이, 햄스터가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소니가 악을 빨고 애완동물용을 위한 가전제품 '애니멀리아 라인' 출시했다고 뽀뽀한 거다. 색맹인 개를 위해 녹적색을 뽀 TV, 햄스터 쳇바퀴의 템포에 따라 리듬이 바뀌는 스피커 등 있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 아주 디테일한 설명도 덧붙였다. 거짓말에 솔깃했던 동물 애호가들은 무척이나 아쉬워했다고.

구글 맵스로 보물찾기 및 8비트 지도로 세계 여행하기

창의성 ★★★★★ 완성도 ★★★★★
재미 ★☆☆

2013년 만우절, 구글 맵스에 '보물 지도'라는 항목이 등장했다.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지도에는 전 세계 보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구글이 장난 한 번 치려고 각 나라의 기념물을 그림으로 표현해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보물 지도를 완성한 거다. 구글은 그전에도 지도 서비스를 8비트 버전으로 승화해 마치 '드래곤퀘스트' 게임을 하는 것처럼 길을 검색하게 했다. 너무 고퀄 아니야? 그깟 구라 하나 치려고 밤샘 야근 한 거야?

스타크래프트 II 한정판 케리건 메이크업 풀세트

창의성 ★★★★★ 완성도 ★☆☆
재미 ★☆☆

평소 화려한 메이크업을 즐겨 하는 케리건. 블리자드는 케리건의 메이크업 비법을 공개해하는 여성 플레이어들의 요청으로 그녀를 모델로 한 한정판 화장품을 출시한다는 구라를 쳤다. 블리자드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색상 선정에 직접 참여하고, 3만 마리의 울트라리스크에게 테스트한 결과 단 한 건의 피부트러블도 일어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홍보한 그들. 다음 만우절엔 케리건 헤어스타일링 제품 어때!!



하면 좇되는 거짓말

만우절이라고 아무 구라나 싸지르고 다니지 말자.



119에 장난전화

소방재난본부 규정에 의해,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어딘가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난전화 때문에 출동이 지연될 수 있거든. 200만 원이면 MAXIM 정기구독이 40년이다. 교양있는 MAXIM 독자라면 장난전화 한 통으로 그걸 날리지 않겠지?

공공기관 사칭전화

공무원을 사칭했다간 크게 좇될 수 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 제118조에 걸리는 공무원자격을사칭죄이기 때문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아무리 입이 근질거려도 "내가 국정원 사람이야!" 라는 구라는 참자.

신변과 관련된 허위 신고

작년 4월 1일, 술취한 남성이 자신이 납치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잠들어버렸다. 그날 대규모의 경찰 인력이 동원돼 밤새 그를 찾아다녀야 했다. 납치 신고는 많은 경찰을 투입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다. 공무원집행방해죄가 적용돼 형사입건될 수 있다.

남남서심녀의 발랄한 연애 교습소

오늘 밤 어대마?



IT'S SO GOOD!!!
유승민
!남성지 MAXIM 데이트



HHO~
서유리
성우, W



AAARGH~
가수 김동민



AH... AH...
박은지
MC, 전 개성캐스터



MMM... 데니안
영화배우, 가수

AAHHH...
박철민
OSEN 기자



Sexy ...안영미
개그우먼



O...OO
여연희
모델



성인 인증 필수!!

매주 토요일 밤 11시에 트렌디에서 본방사수!!

영배 해리슨 고영배

밴드 소란의 보컬이자 <비틀즈 코드 3D>의 MC 고영배는 죽는 마당에
즐거분하다. 근데 왜 두 눈이 축축해? by 김소윤 ILLUSTRATION 김진욱

예능
평니무의
유언



당신에게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기분이 어떤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던
것을 많이 해봐서 다행이다. 소란
콘서트, 라디오와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아, 즐거분해!

그럼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하고
죽어서 아쉬운 건?

내가 무척 좋아하는 유재석과
방송하기. 그와 방송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아, 또 하나 있다 죽기 전에
십센치를 가요계에서 매장해버리거나
음원으로 불어서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확 꺾어버리고 싶었다.
그걸 못 하고 가니 억울해서 눈이
안 감기네!

저세상에 가져가고 싶은 물건이 있나?

기타랑 피아노. 너무 식상한가?
죽어서라도 명곡을 남기겠다는 사명감
같은 건 아니고, 사실 달리 생각나는 게
없네. 하하.(웃음)

요즘 엠넷 <비틀즈 코드 3D>에서 요즘
열심히 이빨을 털고 있다. 예능에서의
목표는 뭔가?

죽음을 앞두고 안타까운 점을 하나
꼽으려면 아직 예능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다. 방송 초반에는 주눅이
들어 별로 말도 못했지만 갈수록
욕심이 생긴다. 나도 예능에서 빵
터뜨려서 인터넷에서 화제도 되고,
실시간 검색어 1위 해봐야 하지
않겠나!

방송에서 장동민보다 안 웃기다고
비교 당하더라. 가수가 개그맨보다 안

웃기다고 욕을 먹다니, 좀 억울하겠다.
장동민은 방송보다 실체가 훨씬 세다.
거의 '미친 사람' 수준이지. 초면에
"뜰어 죽인다"고 하지 않나, "니가
뭔데 이 자리에 있나?"라고 하지
않나...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그 사람보다 재밌을 수는 없을 거다.
재미 쪽으로는 포기하고, 방송에서
음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훨씬 유리하겠지. 그 사람은 음악을
모르잖아?

그러면 예능감 충만한 뮤지션으로서,
생전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누구였나?

십센치의 권정열. 지금은 그 친구가
음악이 잘돼서 건방지게 예능
프로그램이나 라디오에 출연하지
않지만, 실은 말도 잘하고 굉장히
재밌다. 언젠가 사정이 급해지면
예능에 슬금슬금 기어 나올걸? 음악은
몰라도 재미 면에서는 개한테 지고
싶지 않다.

밴드 소란의 2집 타이틀 곡 '리코타
치즈 샐러드'의 뮤직비디오를 보니
음식이 무지하게 많이 등장하더라.
본인의 제사상에 꼭 올랐으면 하는
음식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상징하는 음식인
리코타 치즈 샐러드는 꼭 올라와
있었으면 좋겠다. 상큼하게!

저승에 가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고
싶나?

마이클 잭슨. 그의 내한 공연을 못 가본
게 천추의 한인데, 죽으면 그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막 설렌다.

그가 춤추며 노래하면, 나는 옆에서
탤버린을 흔드는 거다. 어때,
근사하겠지?

춤은 탤버린? 당신이 현숙인가?
죽기 전에 얼굴에 주먹 한 대 날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장동민. 주먹질까지는 아니고, 코에
딱밤 한 대 때리고 싶다. 맨날 나보고
코주부 안경 썼다고 놀리거든.

<“뮤직뱅크”에 출연해서 사이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목표의 몇 퍼센트 정도
이룬 것 같나?

<엠카운트다운>까지는 나가봤는데,
공중파 3사는 아직... 3집 활동 때를
노리고 있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죽어버리다니!

사람들이 당신의 영정 사진 앞에서
뭐라고 수근거릴까?

“재는 말이 너무 많았어.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죽은 거야!”라고...

마지막으로 물겠다. 본인 입으로 '홍대
이병헌'이라고 말했던데, 다음 생에는
어떤 얼굴로 태어나고 싶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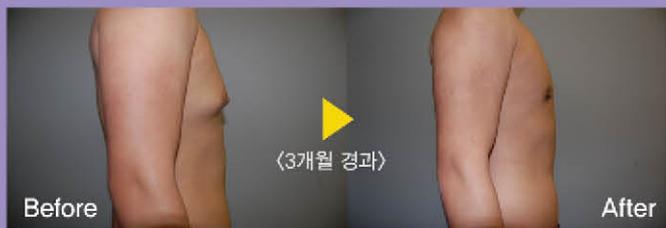
얼굴은 지금처럼 태어나고 싶다. 다만
키는 좀 컸으면 좋겠다. 이 얼굴에
몸매만 조인성. 어떤가?

아, 네... ㅎ





남자가
버려야 할
한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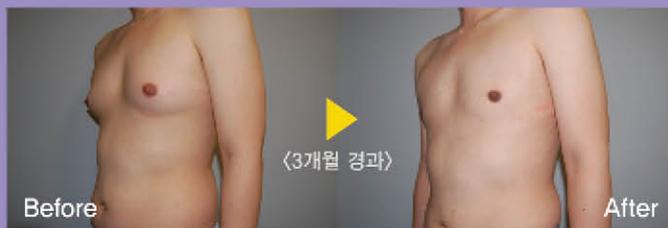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한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성형외과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2-15 실루엣 빌딩 4, 5, 6층 실루엣 성형외과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30312-중-40312호

麥心

최고위급
업소전설
호태후
胡太后

BY 굽시니스트



아들 황제가 이를 눈치채고 호태후와 관계를 가진 중들과 신하들을 죄다 처살. 호태후는 복궁에 유죄됨.



그리고 아직 30대였던 호태후는 갓 20세 며느리인 목황후를 고쳐서-

장안에 황실 컨셉 업소를 열어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기방 사업으로 성공하고 잘 살다간 호태후는 역사에 명언을 남겼으니-



"황태후 인생보다 궁녀 인생이 더 행복하다네"



전 세계를 사로잡은 단 하나의 쇼!

볼쇼이 아이스쇼

2014년 4월 23일 개막 ❁ 목동아이스링크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오픈리뷰 1588-5212 예스24 1544-6399

주최 **MBC** 주관/제작 (주)공연타임스 협찬 한국증기세포뱅크 **LEXING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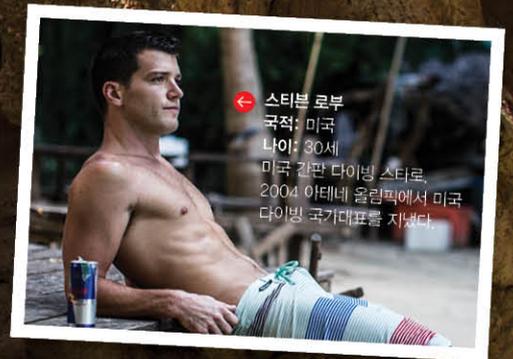
HOW TO

절벽에서 죽지 않고 다이빙하기

레드불 클리프 다이빙의 스타 스티븐 로부가 30m 높이의 절벽에서 다이빙하는 비법을 소개한다. 모가지 안 꺾이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걸?

BY Steven Lobue





← 스티브 로부
 국적: 미국
 나이: 30세
 미국 간판 다이빙 스타로,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미국
 다이빙 국가대표를 지냈다.

1 시작은 걸음마부터
 처음은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워터파크나 수영장에서 3m 다이빙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차근차근 5m, 7m, 10m까지 높이를 올려라. 10m 다이빙까지 쉽게 성공했다면 거만한 표정으로 이 정도는 거들먹거려도 좋다. “여긴 너무 시시한데, 63빌딩 옥상에서 한강으로 다이빙해도 법에 안 걸리나?”

4 높이 뛰어라
 30m 점프대에 오르면 이미 이성은 마비된다. 하지만 겁먹고 소심하게 점프했다가는 공중에 있는 동안 몸을 가누기 힘들게 되고,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칠 것이다. 그러다 배부터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다. 기억할 것! 높이 뛰어야 몸을 여유롭게 컨트롤해 비틀고, 접으며 존나 멋진 모기를 보여줄 수 있다.

2 장소 파악하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뛰어내렸다가는 바람에 날려 절벽에 부딪히고 만다. 떨어지는 동안 김동현 백스핀 엘보우를 온몸에 맞다고 보면 된다. 또한 수심이 낮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엉덩이에 사커킥이 꽂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다. 바람이 불지 않고,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라.

5 발부터 먼저
 수면에 닿는 순간 팔과 다리를 처렛 자세로 모아 쭉 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만큼 몸을 수면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나는 입수 각도가 겨우 몇 도 정도 빗나가서 꼬리뼈에 금이 간 적도 있다. 각도가 빗나가는 순간 물은 물이 아닌 콘크리트가 된다. 잘못하면 평생 앓은뱅이로 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3 정신 줄 놓기
 자, 지금부터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점프대에 올랐다고 상상하라. 심장이 쿵팡거리는 극도의 흥분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차분해지는 연습을 해라. 그렇게 많은 다이빙을 성공했지만 나도 가끔 점프대에 오르면 풀어서 멈출 때가 많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죽어야 하겠어?

오금이
 저리는
 점프 영상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여



How To Wild Boar

멧돼지 피하는 법



어미 멧돼지가 포유를 시작하는 4월은 멧돼지가 가장 난폭할 때다. 이럴 때 멧돼지를 잘못 건드리면 그냥 뉘지는 거다. BY 박정욱

여기
일방통행인데요?



1 등을 보이지 말 것

(원피스)의 조로는 죽기 일보직전에도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등에 난 상처는 검객의 수처다." 적어도 멧돼지 앞에서는 이정도 패기는 보여줘야 한다.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절대 등을 보이거나 겁먹은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멧돼지는 상대방이 뒷모습을 보이면 겁을 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기 때문이다. 멧돼지를 마주했을 때는 절대 쫓지 말고 최대한 당당하게 거만한 표정을 지어라. 그리고 멧돼지의 눈을 노려보면서 침착하게 뒷걸음질로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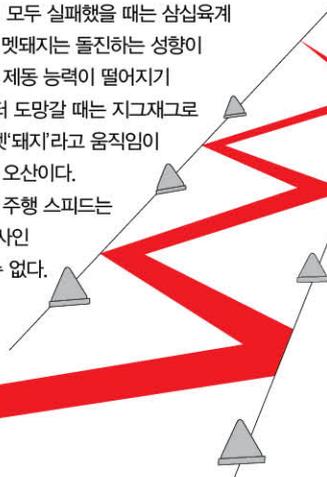
2 우산을 이용할 것

산에 오를 때는 멧돼지를 만나는 일을 대비해 우산을 챙겨가는 게 좋다. 그렇다고 우산으로 멧돼지를 쿡쿡 찌러서 열받게 만들라는 뜻은 아니다. 멧돼지는 후각이나 청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각이 덜 발달했다. 때문에 멧돼지를 마주했을 때 우산을 펼치고 그 뒤에 숨으면 멧돼지는 앞에 바위가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우산을 펼는데 투명 일회용 비닐우산이라면? 그냥 좇 된 거다. 우산 펼치는 소리가 멧돼지를 더 자극하기만 할 뿐이다.



4 지그재그로 도망갈 것

위의 방법이 모두 실패했을 때는 삼삼육육 줄행랑이 최선이다. 멧돼지는 돌진하는 성향이 강하며 방향 전환과 제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멧돼지로부터 도망갈 때는 지그재그로 도망가는 게 좋다. 멧돼지라고 움직임을 느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멧돼지의 평지 직선 주행 속도는 70km/h 정도로 우사인 볼트가 와도 어쩔 수 없다. 평소 산행이 잦다면 러버콘을 세워놓고 지그재그로 달리는 연습부터 하는 게 좋다.



3 붉은색 옷을 입을 것

멧돼지는 색맹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멧돼지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멧돼지가 싫어하는 붉은색 옷을 입으라고 조언한다. 사실 멧돼지는 색을 구별하지는 못하지만 주변 환경에 비해 튀는 색깔을 인식하고 경계한다. 때문에 초록색의 보색인 빨간색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홍의장군 객재어나 빨간 마스크는 멧돼지 우리에게 있어도 공격당할 일은 없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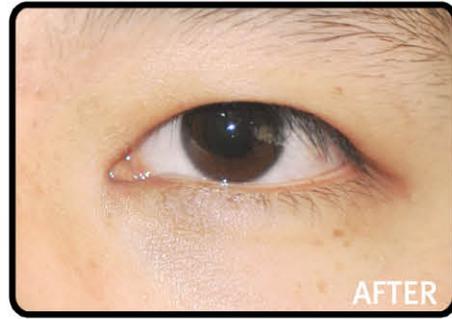


멧돼지 고기, 알고 먹자!

당신이 몰랐던 멧돼지 고기에 대한 사실들 7

1. 멧돼지 고기는 일반 돼지에 비해 지방 함량이 적어 색깔이 짙고 질기다.
2. 12~1월에 잡은 60kg 정도의 암돼지가 가장 맛있다.
3. 도살 후 7~10일이 지나야 고기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다.
4. 일반적으로 고기는 오래 익히면 단단해지지만 멧돼지 고기는 익힐수록 부드러워진다.
5. 멧돼지 고기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대부분 야생 멧돼지와 일반 돼지의 교잡종인 개량 멧돼지 고기다.
6. 일반 돼지와 달리 멧돼지 고기는 육회로 먹기도 하는데,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 건 일반 돼지와 똑같다.
7. 토종 흑돼지는 비계가 너무 많아 멧돼지와 교배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제주 흑돼지다.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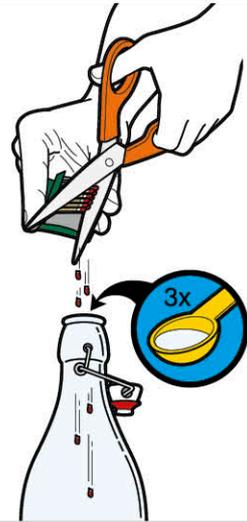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How To Stink Bomb



방구탄 테러하는 법

기억하나? 때는 20세기 말, 전국의 초등학교를 휩쓸던 공포의 방구탄을,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악취를 내뿜는 이 무시무시한 아이템으로 알미운 후배 놈을 똥싸개로 만들 수 있다. [원어 이슬기](#)



이런 시발, 방독면 샌드!!!



- 재료**
- 성냥 한 움큼
 - 가정용 암모니아
 - 뚜껑이 달린 유리병
 - 가위

1 조심스럽게 성냥의 머리 부분을 자른다. 앙상한 몸통이여 큼지막한 머리가 당신의 불품없는 육신을 생각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다 기본 탓이다.

2 잘라낸 성냥의 머리 부분과 암모니아 2~3스푼을 함께 병에 투척한 후 뚜껑을 닫는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밤 연습해온 자연스러운 손목 스냅으로 미친 듯이 병을 흔들어준다. 쉼! 쉼!

3 3~4일 동안 그대로 방치한다. 이 시간 동안 액상 혼합물은 썩은 달걀 냄새를 풍기는 황화암모늄과 황화수소 가스를 만들어낸다. 자, 이제 결전의 날만 기다리면 된다.

4 황화수소 가스는 가연성을 지니고 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주변에 화기가 있는지 확인하자. 없다면 코를 막고, 뚜껑을 연다. 그리고 নিজ처럼 재빠른 동작으로 후배 놈의 의자 밑에 물건을 숨긴다. 이제 경악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소리쳐라. "OOO 씨! 흑시 똥 싸어?!"

방구탄 제대로 투척하는 법



만들었으면 써먹을 줄도 알아야지?

나 기억하지?

공격 장소: 교실

쉬는 시간, 재빨리 옆 반 교실로 이동한다. 선생님이 안 계산 게 확인되면 바로 공격을 시작한다. 뒷문을 열고 율봉길 의사 도시락 폭탄 던지듯 교실 한복판을 향해 방구탄을 투척하라. 그리고 빛의 속도로 도망치면 된다. 절대 당신이 몇 반인지 들켜선 안 된다. (주의: 걸리면 반 대항 패싸움이 일어날 수 있음.)

공격 장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앞에서 얼정대며 친구를 기다리는 척 한다.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면 천천히 문 쪽으로 접근한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방구탄을 안으로 함껏 던져 넣어라. 성공한다면 엘리베이터 안은 삼시간에 화생방 훈련장이 될 것이다. (주의: 닫히던 문이 다시 열리면 헬게이트를 맞 보게 됨.)

공격 장소: 지하철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은 '멀티킬'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목표 역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방구탄을 바닥에 떨어 뜨리고 지하철에서 내려라. 어르신께 자리 양보 안하던 싸가지도 벌떡 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의: 신호대기로 지하철이 출발 하지 않을 수 있음.)

OD MUSICAL COMPANY, CJ E&M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올 봄, 데이트코스 강력추천!
공연부터 식사까지! 하나도 놓치면 앙~대요!



스타일리쉬 펍 레스토랑
식사 패키지

그리스 R석 1매 + 식사권 1매

약 ~~92,000원~~ ▶ 68,000원

(VAT 포함)

No.1 뮤지컬 그리스

2013.10.22~ OPEN RUN | 대학로 유니플렉스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제작| OD |연출| 오드리뷰(주) |주관| 오픈리뷰(주)

Comment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300: 제국의 부활>에 관대해질 수 없는 이유



이번엔 아테네다. 전작에서 스파르타가 “호모 철학자 놈들”이라고 비웃던 바로 그 아테네 말이다. BY 손안나



7년 전 이맘때는 많은 사람이 “스파르타”라는 대사와 ‘초콜릿 복근’에 열광하던 <300>의 계절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분노했다. 채찍질로 노예를 부리고 호시탐탐 그리스를 노리는 탐욕의 페르시아와 그에 맞서는 정의로운 스파르타라니, 스파르타야말로 시민 인구의 열 배가 넘는 헬로트(농노)가 존재하던 강력한 노예국가였고, 18세가 되면 그 헬로트를 살해하는 일명 ‘노예사냥 시험’을 성년식으로 치르던 나라 아니던가. 그럼에도 <300>을 둘러싼 이런 비난은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이다. 감독 잭 스나이더는 한 인터뷰에서 <300> 시리즈의 정치적인 의미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정치적인 의미라면 독재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좋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미쳤나? 독재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좋다니 누가 그런 걸 말한단 말인가?”

그렇다. <300>은 원작자 프랭크 밀러의 그래픽 노블 <300>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재현하고 싶어 하던 잭 스나이더의 집요함에서 탄생한 결과물일 뿐이다. 그 때문에 영화에서 무수하게 목이 잘려나가는 스파르타군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스파르타’, ‘마초’, ‘피’, ‘전사’ 등의 단어가 우리의 아드레날린생을 자극하지만, 각각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은 없다.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장풍을 맞고 녹다운된 캐릭터를 보고 찢어질 듯 마음이 아프지는 않잖아? <300>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지고 있어서 나쁘다’, ‘이기고 있어서 좋다’ 정도의 1차원적인 감정일 뿐이다. 그 이상의 것을 느끼기에 그들과 우리 사이에 놓인 사공간의 벽이 너무나 두텁다.

지난 3월 6일, 전작 <300>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되, 캐릭터는 새로이 무장한 후속작 <300: 제국의 부활>이 개봉했다. 영화는 스파르타 전사 300명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군과 전투를 벌인 그 시기에, 아르테미지움에서 있었던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살라미스 해전을 다룬다. <300>에 레오니다스(제라드 버틀러)가 있었다면, 이번 편의 주인공은 아테네의 명장 테미스토클레스(설리반 스태플턴)다. 그는 마라톤 전쟁에서 다리우스 왕을 화살로 명중시킨 전쟁 영웅이다. 하지만 승리감에 도취되기는 커녕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를 함께 죽이지 못한 것에 오랜 시간 후회의 나날을 보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자신이 크세르크세스를 처단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났다고 자책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아테네군의 선봉에 서지만 그의 눈빛은 시종일관 불안하게 흔들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게 과연 잘한 일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 보인다. 오직 ‘스파르타’를 외치는 레오니다스가 철저히 게임적인 캐릭터였다면 후회와 고민 속에 살아가는 테미스토클레스는 우리 같은 보통의 존재인 것이다. 한마디로, 게임의 세계관에 연극적인 캐릭터가 들어와서 <300: 제국의 부활>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전작 <300>을 보고 극장을 찾은 관객이 기대한 건 레오니다스보다 더 세고, 더 잘 싸우는 사기 캐릭터였지,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는 햄릿이 아니었다. 분명히 100원을 넣었는데! 분명히 ↓↘→ + 키를 눌렀는데! 쓰라는 아도겐은 안 쓰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를 고민하는 류를 상상해보라. 복장 터질 일이다. 🍌



“

Let it be shown!
We chose to die on our feet!
Rather than live on our knees!

보여주재 우리가 적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가느니,
선채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

〈300: 제국의 부활〉

원제: 300: Rise of an Empire

주연: 설리반 스타플턴, 에바 그린

감독: 노암 무로

러닝타임: 10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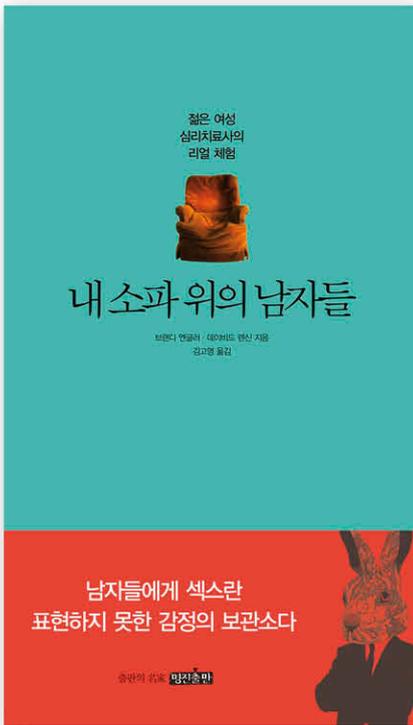
등급: 청소년 관람 불가

개봉: 2014년 3월 6일

내 소파 위의 남자들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들어줄 사람도 있다. BY 김소연



▶ **〈내 소파 위의 남자들〉**
브랜드 엔글러, 데이비드 렌신 저
김고명 역/ 명진출판사/ 14,000원

→ MAXIM 입사 면접 때, 이상형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별명이 쓰레기예요. 아무래도 제가 쓰레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때까지 만났던 몇 명의 남자 중 일부가 나를 찾거나, 여러 여자와 연락을 했거나, 바람을 피웠던 경험이 있어서다. 난 그들에게 화가 났었고, 주변의 친구들은 그들을 ‘섹스밖에 모르는 쓰레기’라고 정의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젊은 여성 심리치료사 브랜드 엔글러가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의 사연을 담은 책 〈내 소파 위의 남자들〉을 읽게 되었다. 책은 초반부터 돌직구를 날린다. “남자가 섹스밖에 모른다고?! 아니거든?”

엔글러의 상담소를 찾은 여섯 명의 남자는 남들 앞에서 쉽게 밝히지 못할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갖고 있었다. 매춘에 중독된 남자, 아동이 아니면 서지 않는 남자, 습관적으로 여자의 전화번호를 따는 남자 등.

엔글러는 그런 독특한 취향이 극으로 치달아 인생이 배배 꼬여버린 여섯 남자의 고민을 풀기 위해 인내심 있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상담소를 찾은 데이비드는 습관적으로 처음 보는 여자의 전화번호를 따는 바람둥이였다. 그는 엔글러에게 “섹스보다 헌팅이 더 재미있다”고 고백한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자에게 접근하고 같이 하룻밤을 보내지만, 마지막 단계인 섹스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다. 헌팅의 횟수는 도를 지나쳤고, 그가 느끼는 공허함은 커져만 갔다. 엔글러는 상담을 통해 그 행동이 ‘육정’이 아닌, ‘경쟁심’과 ‘정복감’에 기인한다는 걸 데이비드에게 일깨웠다. 그는 그 여자를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는 ‘호기심’보다는 먹잇감 사냥에 성공했다는 ‘자신감’과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남자들에게 느끼는 ‘우월감’에 심취했던 거다. 데이비드는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변하기로 한다.

상황도, 결과도 제각각이지만, 소파 위의 여섯 남자는 공통적으로 자신을 ‘흥분’시키는 것에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사실 사람의 성적 취향에 정해진 왕도는 없다. 그래서 브랜드 엔글러는 환자들에게 “진짜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여섯 남자들이 그녀에게 털어놓은 속 이야기들처럼 말이다. 〈내 소파 위의 남자들〉은 ‘남성의 성 고민’을 다루고 있지만,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꼭 ‘남성’과 ‘섹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엔글러가 말하는 ‘행복을 얻는 방법’은 모두가 겪는 일상의 고민을 해결하기도 한다. 어쩌면 우리가 술자리를 찾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거다. 친한 사람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머리를 짓누르는 고민을 털어놓다 보면 안 보이던 해결의 실마리가 눈앞에 ‘뿡’ 하고 나타나기도 하지 않는가.

책장을 덮으면서 1년 전 에디터에게 ‘쓰레기’ 소리를 들었던 남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개네들은 지금 ‘진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려나? 🍷



에디터가 밀줄 짝 친구절들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공통된 한 가지를 내게 물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지’였다.

-〈내 소파 위의 남자들〉, 6p 중에서-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 자존심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내 소파 위의 남자들〉, 52p 중에서-

성적으로 연기하면서 정작 자연스러운 충동은 마구 억누르거나 아예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 소파 위의 남자들〉, 69p 중에서-

욕구는 곧 ‘에너지’다. 성욕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꼭 아름다운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프로디테나 신비로운 러시아인처럼 외부 요인에 힘입어야만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내 소파 위의 남자들〉, 87p 중에서-

섹시함의 바탕은 선택과 행동이지 어떤 조건에 억지로 육체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다.

-〈내 소파 위의 남자들〉, 103p 중에서-

발기부전, 즉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이를 수행 불안이라 하는데, 이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이들이 대체로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내 소파 위의 남자들〉, 128p 중에서-

“에이미, 그건 위험한 착각이에요. 섹스가 항상 좋은 수는 절대로 없어요. 두 사람이 깊이 사랑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저절로 늘 섹스까지 좋을 수 없다는 거죠.”

-〈내 소파 위의 남자들〉, 146p 중에서-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고 대신 야동을 이용하면 사실상 진밀감 불안증을 피할 수 있다. 야동은 성관계보다 안전하게 느껴진다. 거부당할 일이 없다.

-〈내 소파 위의 남자들〉, 163p 중에서-

Game

CHARACTER OF THE MONTH

inFAMOUS SECOND SON

뉴페이스 초능력자 델신 로우

PS4 버전으로 새로이 발매한
(인퍼머스) 시리즈, 그리고
새로운 능력자가 등장했으니... BY 조웅재

장르	액션
플랫폼	PlayStation®4
개발사	서커펀치 프로덕션
유통사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

영화야,
게임이야?



인퍼머스: 세컨드 선

플레이스테이션의 히트작 시리즈, 서커펀치 프로덕션은 PS4 데뷔작인 이번 시리즈에서 캐릭터의 표정을 생생히 살리는 '페이스 캡처' 기술을 도입했다.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 전작과 달리 이번엔 게임 제작 스태프들의 고향인 시애틀을 배경으로 해 리얼리티를 더욱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3월 13일 12시부터 시작한 국내 예약 판매는 오픈한 시간 만에 매진되었다고, 곧 PS4 인퍼머스 세컨드 선 번들(합본) 팩도 발매될 예정이니, 물량이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던 유저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겠지?

PlayStation®4
인퍼머스 세컨드 선
번들 팩
553,000원



→ 지난 (인퍼머스) 시리즈에서 무지막지한 초능력을 자랑하던 콜 맥그레스, 그 뒤를 이어 새로이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곧 출시될 신작 (인퍼머스: 세컨드 선)의 델신 로우다. 맥그레스와 마찬가지로 델신 로우 역시 평범하기 그지없는 24세의 길거리 아티스트였다. 딱히 직업도, 별이도 없는 한량 주제에 어느 날 우연히 얻은 초능력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또 다른 로또 사나이. 콜 맥그레스가 전기를 사용하는 초능력을 보여준 것과 달리 로우는 '초능력을 흡수하는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흡수 능력자야말로 배틀물에서 가장 뛰어난 클래스가 아니던가. (드래곤 볼)의 셀이 손오공 일당을 쓸어버리고, 마인부우가 지구의 절반 이상을 날려버린 것처럼 말이다. 이런 적들은 늘 게임

속에서 밸런스를 파괴하지만, 반대로 이런 괴물을 유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내 끌리는 대로 할 수 있는 오픈 월드에서 무적의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단니, 벌써부터 엉뚱이 쫓기해진다. 뭐 소리인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당신이 GTA를 플레이하는데, 주인공이 스티븐 시걸이야. 어때? 재밌겠지? 🎮

Game

Ladies Battle



LOL 레이디스 리그 챔피언 MVP PURE



귀여운 외모 속에 날카로운 전투 본능을 품은 MVP PURE. 그들의 결승전 경기를 보기 위해 3월 7일 직접 강남의 넥스 아레나 스타디움을 찾았다.

왔노래 보았노래! 발랐노래! BY 조웅재 PHOTOGRAPH Zho



LADIES BATTLE

Winter 2014

LOL 레이디스 배틀

지난 1월 9일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의 <리그 오브 레전드> 여성부 리그, 약 보름 간 피 말리는 단판 승부로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이 본선에서 각각 3판 2선승제로 승부를 가리며 진행되었다. 소싯적 유타 컨트롤 좀 해 본 에디터는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여동생이나 구경하자는 생각으로 현장을 찾았다. 거만하게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찻러 넣은 채 경기를 감상하던 에디터는, 그녀들의 살벌한 경기력에 바짓가랑이가 점점 축축해져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유로웠던 결승전, 그리고 우승

결승전이 열리던 3월 7일, MVP PURE의 대기실을 찾은 에디터는 몹시도 느긋한 그녀들의 모습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태평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카톡을 하거나, 메이크업이 잘 먹었는지 연신 체크 중인 그녀들이 격정스러워 "연습 많이 했어요?"라고 물었더니 "어제 했어요. 두 시간?" 이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아마 충북 음성면 생극리 노인회관 공연을 한 시간 앞둔 가왕 조용필도 이렇게까지 여유롭지는 않았을 거다. 이벤트전이 끝나자 본 경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광고가 흘러나왔다. 그녀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각자의 키보드를 어깨에 걸쳐메고 하나 둘 대기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에서 에디터는 마지막 전장으로 향하는 레오니다스 왕의 늠름한 승모군을 보았다. 결국 이 날, '미쳐 날뛰려고 왔다'는 슬로건을 내건 팀 '레이디나라'는 더 미쳐 날뛰는 팀 MVP PURE에게 연속 3패를 기록했다.



MVP PURE?

'우승의, 우승에 의한, 우승을 위한' 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참가한 MVP PURE. 다른 팀들이 '매서운 강킹의 정글러', '빠른 라인전 격파' 등 무시무시한 주특기를 어필하며 등장한 반면, '항상 즐겁게 게임을 하자'라는 건전한 모토를 달고 등장에 다른 팀들을 가차 없이 처발라버렸다.

MVP 소속 간판 스타들



정나래(흠먹는날래)

나이 25
이상형 군인
매력 포인트 잘 먹음
주력 캐릭터 케이틀린



오현아(baby h)

나이 22
이상형 게임 잘 못 해도 이해해주는 남자
매력 포인트 큰 키
주력 캐릭터 퀸



이수민(Xiety)

나이 20
이상형 남자다운 남자
매력 포인트 씩씩함, 댄스
주력 캐릭터 슈버나



강지나(gin gin gina)

나이 19
이상형 드레이븐 같이 박력있는 남자
매력 포인트 백치미
주력 캐릭터 레오나



이진주(밤비)

나이 26
이상형 치아가 가지런하고 고기 잘 굽는 남자
매력 포인트 생커플 없는 눈
주력 캐릭터 레오나



윤가은(윤 은)

나이 22
이상형 키 큰 남자
매력 포인트 동양적인 눈매
주력 캐릭터 이블린

미녀 게이머들의 주력 캐릭터

마우스질이 서툰 오빠들에게 알려 주는 캐릭터 운영 TIP!



① 퀸

“퀸은 유저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원딜이라 매력이 넘치지요. 원딜 상대로 거리를 내주지 않고 초반에 최대한 같이 성장하다가 한 방을 노리는 플레이가 중요해요.”



② 케이틀린

“초반에는 사거리를 이용한 평타짚짚이를 통해 CS를 많이 챙겨야 합니다. 닷 설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글러가 갭 오다가 밟을 수도 있고, 적이 후퇴하다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슈버나

“슈버나는 미니언 정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궁극기 용의 강림은 분노수치를 쌓으며 적당히 운용할 수 있다면 일반 스킬처럼 자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예요.”



④ 레오나

“라인전에서는 2렘을 찍자마자 천공의 검(Е) - 여명의 방패(Q) 콤보로 거침없이 들어가 주는 갭이 필요해요.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진입을 해야 합니다. 라인전은 패기니까요!”



웹 게임도 대륙의 스케일!
신의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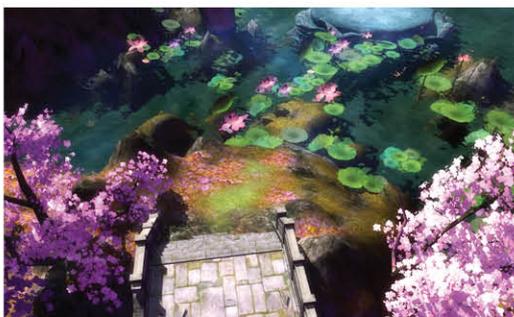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웹 게임계의
블록버스터가 나타났다. BY 조용재



파일X리에서 우츠노미야 시온의 노모작을 뒤지듯 하루 종일 탐색전을 퍼다 보면 가끔 코피 터지는 비주얼의 웹 게임 광고가 뜬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우스를 광클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이런 '웹 게임'을 실행하고 나면 한숨 나오는 비주얼과 조악한 조작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야말로 낚시 중의 낚시다. 프레스티지의 뽀샵 딱칠한 AV 커버와 다를 게 뭐야. 이 시기꾼 새끼들아.

대륙발 초대형 스케일 웹 게임
<신의칼>

그러던 어느 날, 에디터는 <신의 칼>이라는 중국발 대륙 웹 게임이 국내 게임 시장으로 곧 수입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개발 단계부터 스케일이 남다르다. 100여 명의 개발자가 4년 동안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만든 웹 게임이라니. 우리가 흔히 아는 웹 게임은 적은 예산을 투자해 최대한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아 뽕(본전)을 뽑는 장르인데 말이다. 이 정도면 대형 MMORPG인 <마영전>에 맞먹는 제작 비용을 투자한 셈이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임을 보여주려고 작정한 걸까?



1 유니티3D 기반의 유려한 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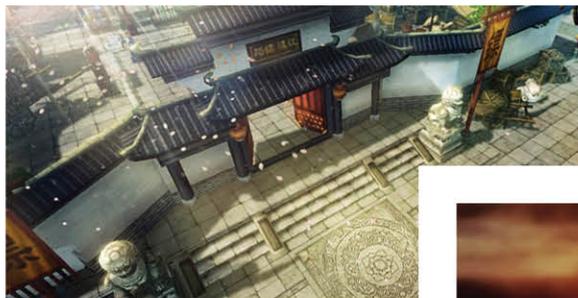
유니티3D(UNITY3D)라는 개발 툴은 접근성이 매우 높으면서도 고성능 결과물을 뽑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게임, 웹 플래시 게임 등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개발자들이 애용한다. <신의 칼>은 이러한 유니티3D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으로, 이룸값 하는 고성능 3D 그래픽을 자랑한다. 화려한 광원 효과, 깔끔한 3D 그래픽은 기존의 2D 기반 웹 게임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유저들에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뿐 아니라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 등에서 보여준 시네마틱 컷 신을 게임 곳곳에 삽입해 드라마틱한 연출을 만들어냈다. 무협이라는 게임 장르는 무엇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신의 칼>이 자랑하는 높은 수준의 시네마틱 컷 신은 유저들을 게임 속 스토리라인에 깊게 빠져들게 하는 좋은 요소다.

2 정통 무협을 바탕으로 한 짜임새 있는 스토리

〈신의 칼〉은 본디 대만에서 개발된 RPG 게임을 원작으로 한다. 〈의천도룡기〉나 〈소오강호〉 등 유명 무협 게임의 강국 대만의 작품답게 〈신의 칼〉 역시 탄탄한 스토리로 많은 유저에게 호평을 받았고, 이는 곧 대륙에서 드라마화되는 기쁨을 토했다. 무려 '대륙판 전지현'이라 불리는 미녀 배우 유역비가 드라마판 〈선검기협전〉의 여주인공으로 등장해 대륙 남성들의 낭심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신의 칼〉은 원작 〈선검기협전〉의 요소를 한껏 차용해 캐릭터간의 멜로를 주요 소재로 삼았고, 결혼 시스템 등을 통해 유저들간의 단합(?)을 도모했다. 물론 나와 결혼할 유저가 남자는 여자는 내 일바 아니지만, 미모의 캐릭터를 마누라로 두는 재미는 꽤 쓸쓸할 것 같다.



3 낚시가 아닌 고급 원화 퀄리티

허반신이 반응하는 색서한 일러스트나 초미녀 모델을 배너에 써서 박아 넣은 일부 웹 게임을 실행하면 멘탈이 붕괴되는 일이 잦게 마련이다. 새우 과자처럼 자꾸만 손이 가서 클릭하면 추억의 디스켓 3장짜리 〈삼국지 무장쟁패〉만도 못한 그래픽에 기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모델 고용하고 사진

찍고 후보정하느라 개발비를 몽땅 날려먹은 게 아닐까. 하지만 〈신의 칼〉의 유려한 원화 퀄리티와 수준 높은 CG는 유저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개미지옥 같은 몰입도에 웹 게임에서 〈진 삼국무쌍〉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그래픽까지 선사하니, '100억으로 프로그래머 등골까지 뽑아먹고 장례 비용까지 충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4 체계적인 게임 시스템

웹 게임의 약점은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다. 오랜 시간 현실하며 플레이하다 보면 내가 선택한 캐릭터가 전사였는지 궁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고렘이면 장땡이다. 마치 대기업 부장이든, 중소기업 사장이든 결국 30년 후 치킨집 사장으로 수렴되는 현상과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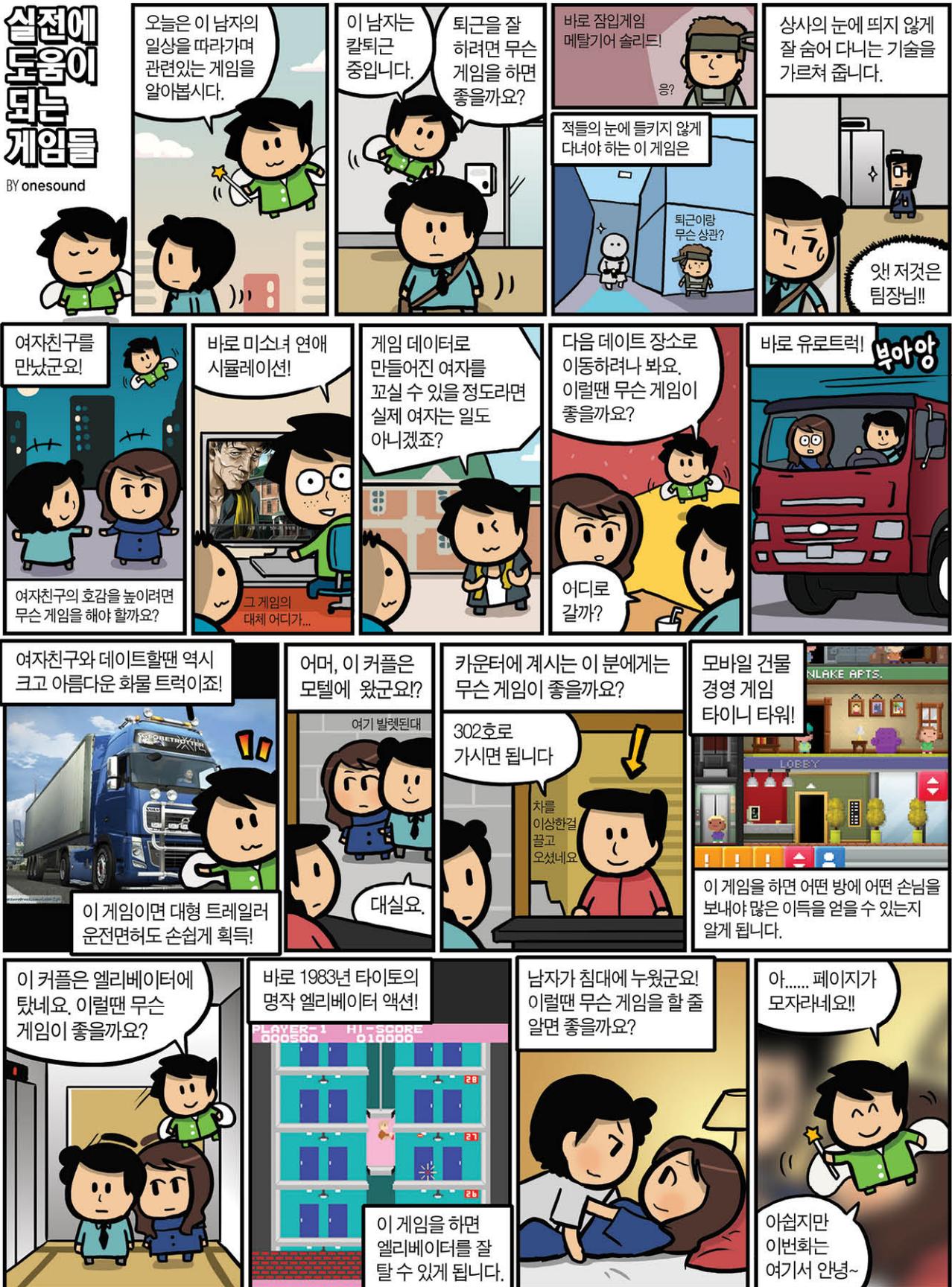
〈신의 칼〉은 이런 장르상 애매한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거부한다. 캐릭터의 직업이 명확히 나뉘어 웹 게임이지만 MMORPG가 제공하는 육성의 재미를 그대로 이식했다. '키우고 싸우는' 단순한 구조를 넘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젠 정통 무협 게임이지, 병아리 키우서 닭 만드는 타이쿤 게임이 아니잖아? 🐔

➔ 총평

〈신의 칼〉은 웹 게임의 단골 소재인 '무협'을 호쾌한 연출과 화려한 이펙트로 풀어낸 게임이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자동 전투 시스템' 같은 웹 게임 특유의 인터페이스도 잘 녹여냈다. 게다가 MMORPG에서 느낄 수 있는 육성의 재미를 가미했으니, 전례 없던 하이브리드형 웹 게임이 탄생한 셈이다. 선택권이 있다면 짜장면보다 짬짜면을 먹는 편이 더 좋지 아니한가.

실전에 도움이 되는 게임들

BY onesound



내 안의 본능을 깨워라! 본능 RPG <제천대성>

일상에 지친 게이머들의 본능을 일깨워 스트레스를 훑! 날려버리라는 특명을 받들고 화교산의 왕 제천대성이 게임판에 강림했다. 선녀라기엔 너무 아찔한 미녀 세 명을 옆에 끼고 말이다. BY 김소윤



개발사 이엔피게임즈의 신작 게임 <제천대성>은 옥황상제의 함정에 빠져 인간의 모습을 한 채 인간계로 쫓겨난 제천대성의 모험을 그렸다. 전투 중 분노 게이지가 차오르면, 캐릭터가 야수로 돌변해 전장을 쓸대밭으로 만들어놓는다. 아무래도 '야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미녀' 아니겠나? 당신을 자극해 야수로 만들어버릴 미녀 삼인방, MISS MAXIM 최혜연, 엄상미, 김소희를 만나보았다.

이렇게 섹시한 미녀 셋이 함께 모이다니!

혜연: 안녕하세요! MISS MAXIM 최혜연, 엄상미, 김소희입니다. 이번에 성인 웹 게임 <제천대성>의 모델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쁘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해 순식간에 야수로 변신시킬 수 있도록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이번 촬영의 콘셉트는 뭔가?

상미: 남성들이 숨은 본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제천대성 홈페이지(jc.pupugame.com)에 가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제천대성>을 플레이해본 소감은?

소희: 설치 없이 게임할 수 있다고 하기에 솔직히 크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게임 그래픽이 생각한 것보다 좋아서 깜짝 놀랐죠! 다른 게임과 달리 분노 게이지가 차오르길 기다려야만 스킬을 쓸 수 있는데, 한 번에 화려한 공격을 하니가 속이 시원했어요. 제천대성으로 변신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웬지 웃기기도 하고요.(웃음)

2010 MISS MAXIM 우승 최혜연



2012 MISS MAXIM 준우승 엄상미



2013 MISS MAXIM 우승 김소희



<제천대성>, 뭐가 그렇게 짱어?



1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초간편 웹 게임

복잡한 건 싫대!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요즘 게임의 트렌드. <제천대성> 또한 그러한 유행에 맞게 설치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초간편 웹 게임이다. 평소 복잡한 게임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잠깐 동안 플레이를 하며 순식간에 게임에 몰입할 수 있다.

2 망막 자극! 속이 다 시원해지는 궁극의 비주얼

화려한 그래픽과 임팩트 있는 비주얼 효과는 웹 게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한다. 게다가 점차 강해지며 스킬뿐 아니라 외형도 성숙하게 진화하는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원래 게임 속 여캐는 강할수록 덜 걸치는(?) 법! 강해져라. 더 강해져라!

이렇게 섹시한 저렇게 봤성?



이달의 걸다리 게임 뉴스

뜨랩도 알 권리가 있는 게임판 소식 이모저모.



1 <디아블로 3: 영혼을 거두는 자> 소장판 13분 만에 매진
 3월 13일, <디아블로 3: 영혼을 거두는 자> 소장판 4,000개가 나오자마자 매진됐다. 일반 수령판 3,000개는 6분 만에, 24일 전야제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장 수령판 1,000장은 13분 만에 매진됐다. 당초 블리자드는 소장판 판매를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구매하려 했던 팬들은 아만용사가 되어 마우스를 집어 던지며 분노를 끌어모았다. 한편 3월 24일, 용산역에서 진행된 출시 기념행사에서는 선착순으로 다양한 상품이 지급됐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게이머들의 살기에 악의 화신 디아블로도 꿈꾸리를 뺄 지경이었다고, 예약 물량을 제외한 소장판 패키지는 3월 25일부터 옥션 및 전국 대형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2 아무도 당신을 까먹지 않을 걸? 게임보이 명함 '아두보이'
 테트리스 게임을 할 수 있는 명함이 등장했다. 게임 개발자 케빈 베이트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개발 중인 명함 '아두보이'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이 명함에는 전자 기판과 스피커,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터치패널이 탑재돼 간단한 게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명함의 디자인은 닌텐도 '게임보이'와 유사하지만, 두께는 1.6mm로 일반 종이보다 조금 두꺼운 수준이다. 그냥 게임기 같다고? 이 녀석은 명함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하다. 버튼을 누르면 액정에 자신의 QR 코드가 뜨고, 이를 텍스트로 변환해 보여줄 수도 있다. 이 명함 한 장의 가격은 약 3만 원이다. 아무래도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줘야 할 것 같다.

3 떠난 유저들 헤쳐모여! <리니지 모바일 헤이스트> 공개
 어제의 리니지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LTE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PC방이 아닌 각자 스마트폰 앞으로 모였다. 엔씨소프트가 3월 26일 모바일 게임 <리니지 모바일 헤이스트>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리니지 모바일>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기반으로 개발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임이며, 모든 데이터를 PC 게임과 공유할 수 있다. <리니지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SK텔레콤을 사용한다면 월정액 3,000원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PC방에 은거했던 리니지 팬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카페나 지하철에서 공성전을 한다니, 세상이 좋아지긴 했구나.

남친 사귀기 vs. 공주 키우기

오덕질은 남녀 없이 평등하하니.



현실감 높은 여성향 게임 <연애데이> 공개
 <러브브레이크>, <닌자야화>, <딜리셔스키스> 등 다양한 여성향 연애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작한 안다몰코리아가 신작 <연애데이: 그에게 사로잡히다>를 공개했다. <연애데이>는 스마트폰용 게임으로, 높은 수준의 그래픽과 유명 성우의 목소리로 게임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많은 여성 오타쿠를 끌어 모으고 있다.



<모바일 프린세스메이커> 스크린샷 공개
 게임 포털 엠게임이 <프린세스메이커 for Kakao>와 원작 PC 게임 <프린세스메이커>를 비교할 수 있는 스크린샷 4종을 공개했다. <프린세스메이커>는 1990년대 수많은 오타쿠를 양성해내며 그들이 딸과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꿈꾸게 했다. 공개된 스크린샷에는 무사수행, 휴식, 교육, 아르바이트 모습 등 PC 게임과 동일한 게임 플레이 장면이 담겨 있다.

연희몽상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출렁이는 미소녀 세계에 삼국지 영웅호걸들이 험뎡고 뛰어들었으니, 그 광경 참으로 보시기에 모에 하였다. BY 정재식



← 궁극의 섹시 관우
청룡언월도의 시원한 일격만큼 시원한 노출로 눈이 즐거운 섹시 관우! 예쁜 장수가 다 모인 촉 세력 중에서도 비주얼을 맡고 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미소녀 TCG* <연희몽상>

미소녀 관우, 장비, 여포로 꿀 하렘을 창조한다? <연희몽상>은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연희무쌍>을 원작으로 한 카드 배틀 모바일 게임이다. 과감한 노출을 감행한 삼국지 캐릭터들이 불거리를 제공하는 게 특징. 스토리와 스테이지가 완성도 있으며, 300여 장의 캐릭터 카드로 나만의 장수 조합을 만드는 재미도 쏠쏠하다.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내가 서울대 갔을 텐데!

*TCG: 카드 교환 게임

제작사	문블락
서비스	하이원ENT
플랫폼	Android
등급	18세 이상 이용가



궁극의 아크 여포
여보 삼고 싶은 HOT한 여포! 오죽하면 유저들이 <연희몽상>을 '여포몽상'이라고 할까.



궁극의 히피 유비
촉 세력의 수장이자 최고 인기 장수! 다른 카드보다 확연히 약하지만 상관없다. 예쁘니까 크니까!



우월한 키크 진궁
레이드 보스를 꺾기 위해 태어났다! (단지 더 예쁘다는 이유로 주유보다 진궁을 택하는 유저가 많다능!)



궁극의 히트걸 장비
다 큰 처자가 저리 민망한 물건을 타고 있다니(참 좋네)! 원작 로리 꼬마가 성인으로 태어났다.



궁극의 전략가 주유
오의 군사 주유의 가유화! <연희몽상> 최고 완소녀! 극악의 획득률! 레이드 보스의 천적!



궁극의 인형 초선
<연희몽상>에 존재하지 않는 초선 여성화 버전. 원작에는 남성으로 나오지만 여성화가 되면서 인기다!

어떻게 나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야

<연희몽상>이 MAXIM 독자에게 미소녀를 쏜다!

선착순 3만 명에게 '궁극의 워크 여몽' 카드를 뿌린다. 어떻게 하나냐...



참여 방법

1. 게임 하단 메뉴 '도감'의 '특전'에 아래 코드를 넣고 보내기를 누른다.

➔ **맥스 독자만을 위한 코드 넘버**

310EUNJ1K

- 소식함의 '메일함'에서 '궁극의 워크 여몽' 카드 획득 메일을 클릭!
- '편성' 메뉴에서 '궁극의 워크 여몽' 카드를 확인한다.

<연희몽상>은 오른쪽 QR 코드를 스캔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연희몽상
다운 받기





*Amazing
Grace*



MISS MAXIM의 양키 버전인, 미국 MAXIM의 홈타운 하티스 (Hometown Hotties) 콘테스트! 치열했던 이번 대회의 결승 진출자 그레이스가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고 궁금한 '그것'을 입고, '그것'에 대해 말한다.
란.제.리.

BY ALEXA LYONS
PHOTOGRAPH ZOE McCONNELL

여자 친구에게 섹시하고 예쁜 란제리를 사주고는 싶은데, 괜히 줬다가 욕 먹을까 걱정하는 남자들을 위해 조언을 해달라. 그냥 당신이 보고 싶은 란제리를 사세요. 어차피 그러려고 선물하는 거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당신 취향이예요, 그녀도 다 이해할걸요.

란제리를 선물로 받아본 적이 있나? 물론이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물론 나한테 선물을 줬으면 하고 바라던 사람에게 받았다면 말이죠.

하긴 처음 보는 사람이 속옷을 주면 무섭잖아. 몸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은 어디인가? 글썄요, 엉덩이? 당신이 보기엔 어때요?

다 좋다! 어떤 스타일의 란제리를 좋아하나? 어두운 녹색과 검정색을 좋아해요. 지금 제가 촬영 중에 입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컬러 조합은 정말 섹시해요. 그리고 역시 란제리는 레이스와 시스루가 정답이죠.

여자들은 이런 멋진 란제리를 특별한 날만 입나, 아니면 평소 일상에서도 입나? 예쁜 란제리를 꼭 특별한 날에만 입으란 법은 없어요. 늘 예뻐 보이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이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 남자가 복잡하게 생긴 란제리를 벗기기 위해 깡깡대는 안타까운 상황? 아니요, 다행히 아직까진.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문제 없어요! 

Sex

여자를 흥분시키는 남자의 XX

 여자는 정말 키 크고 잘생긴 남자에게만 끌릴까? 과학적으로 살펴 본, 그녀가 당신과 자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몇 가지 이유들. BY 손안나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 출근 길 지하철에서 낯선 여자의 옆자리에 앉고,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새로운 여직원을 소개받는다. 커피숍에서 어떤 여자와 부딪히기도 하고, 어쩌면 지난 밤, 술자리 옆 테이블에 당신의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남성지 에디터라는 직업 특성상, 나도 매달 다양한 남성들을 만난다. 개중에는 “이 사람과 섹스하면 어떤 느낌일까?”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남자들도 있었다. 성격도, 직업도, 나이도 다르지만, 낯설고 섹시한 그 남자들에게서 나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과연 여자가 남자를 섹시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아마 대부분의 여자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가 섹시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고 소개팅 자리에서 그녀에게 뜬금없이 당신의 폭풍 업무 능력을 시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떤 여자들은 ‘침대 위에서 배려심 넘치는 남자’를 섹시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 처음 만난 그녀에게 당신의 넘쳐 흐르는 잠자리 매너를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이성을 만나지만, 그녀들과의 인연은 대부분 일회성 만남에 그치고 만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성에게 당신의 섹시미를 각인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직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잊지 말라. 여자도 본능에 충실한 동물이다.

1. 그 남자의 향기

바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였어요. 옛 남자 친구랑 비슷한 향수 냄새가 나길래 어떤 향수를 쓰느냐고 물었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국 그날 밤 그와 자게 됐어요. 원나잇은 처음이었지만, 생각보다 낯설지 않았어요. 그 남자에게서 헤어진 남자 친구의 향기가 났기 때문일까요?

향기에 대한 여자들의 기억은 당신의 생각보다 꽤 오래가는 편이다. 여자들은 헤어진 남자 친구가 즐겨 뿌리던 향수 냄새를 맡고, 그때의 연애 감정을 상기시킨다. 인간의 후신경 네트워크는 시신경이나 청신경 같은 다른 감각 기관보다 훨씬 더 폭넓게 뇌 전역에 고루 퍼져있다. 때문에 특정한 냄새는 시각이나 청각 등의 다른 감각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여자 친구의 살냄새를 맡고 지난밤의 섹스를 떠올리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은 흥차에 적신 과거 마들렌의 냄새를 맡고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냄새를 통해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이러한 현상은, 훗날 작가 이름을 따서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브라운 대학교 연구진은 ‘감각 자극과 성애 조사’를 통해서, 여자들이 연인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그 남자에게서 나는 냄새’라는 것을 밝혀냈다. 2위는 시각, 3위는 청각이었다. 많은 매체에서 말한다. 남자는 시각에 예민하고, 여자는 청각에 예민한 동물이므로, 만족스러운 섹스를 위해서는 필히 이 점을 공략해야 한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후각은 소홀하게 다루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여자의 후각은 남자의 그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다. 여자의 성적 흥분은 좋은 냄새에 의해서 극적으로 치솟기도 하고 나쁜 냄새 때문에 완전히 사그라지기도 한다. 그녀와의 디데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요란한 이벤트를 준비할 필요 없다. 지금 필요한 건, 당신의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섹시한 향수다.

MAXIM 여자 에디터들이 추천하는 향수



1. 크리드 타바롬

쿠바 시가 향에 강렬한 스파이스! 당신을 특별한 남자로 각인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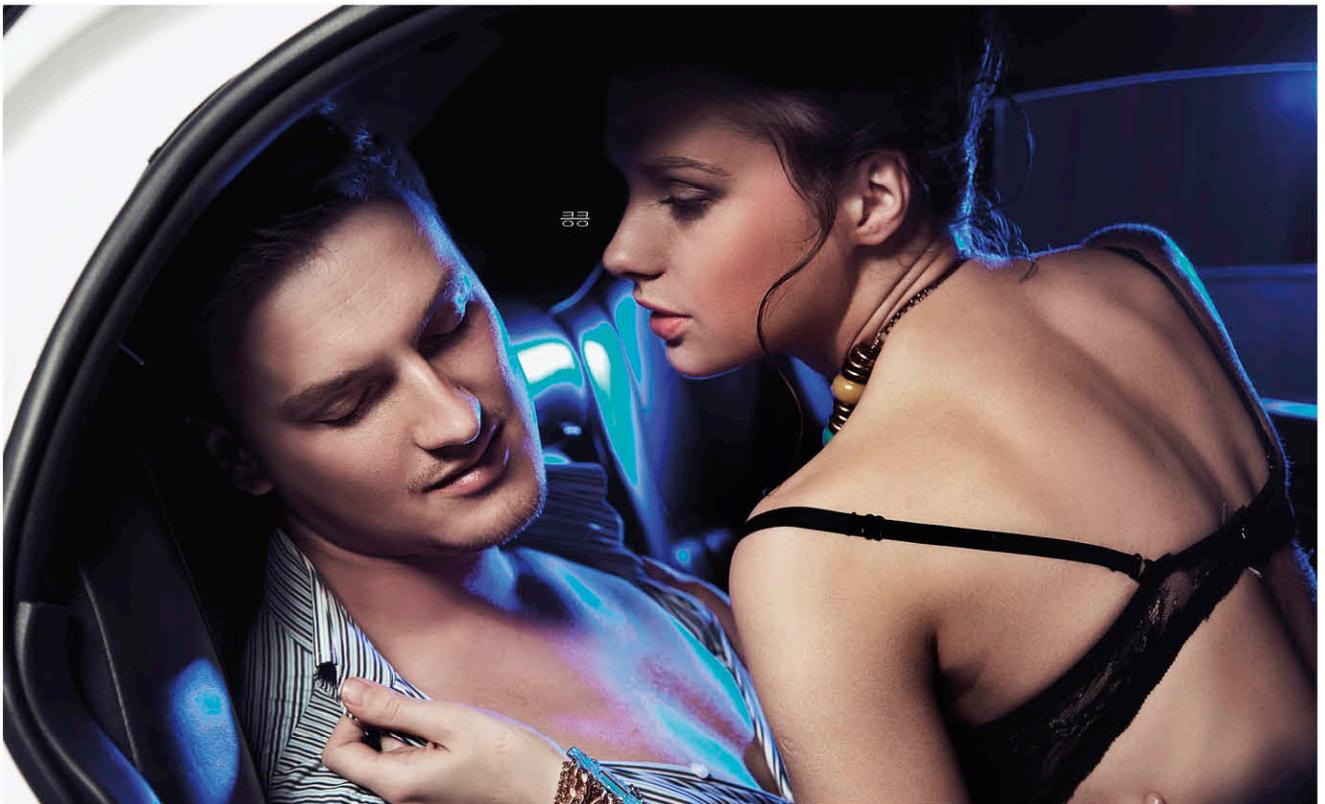
2. 프라다 인퓨전 디 옴

안아주고 싶은 파우더형! 남자의 살냄새가 이런 걸까?



3. CK One

국민 향수. 이걸 실패할 확률이 거의 0%!



Sex

2. 그 남자의 어깨와 엉덩이

키도 작고 외모도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니트 스웨터를 입으면, 이병헌보다 더 섹시하게 느껴졌죠. 근육 하나 안 붙어있는 그 남자의 일차 어깨가 전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남자만큼 여자들도 이성의 몸매에 반응한다. 방금 당신은 권상우나 차승원 같은 몸매를 떠올리며, “나는 거기에 못 미치니까 시발 망했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여성 잡지 <코스모폴리탄>과 남성 잡지 <멘즈 헬스>가 각각 섹스 상대로 이상적인 남자의 몸매 수준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수치를 매겼다. <코스모폴리탄>에서 묘사된 이상적인 몸매 수준은 <멘즈 헬스>에서 묘사된 몸매 수준보다 훨씬 관대했다. 이 연구 결과는, 남자들

스스로가 ‘여자들은 근육질의 섹스 파트너를 원한다’고 오해하며, 자신의 몸매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여자는 어떤 몸매의 남자에게 흥분할까? 여자들은 키가 큰 남자를 보고 섹시하다고 생각할까? 성기가 큰 남자를 보면 자고 싶어 할까? 연구 결과, 대다수의 여자는 어깨 대 엉덩이의 비율이 높은 V자형 몸을 선호한다고 한다. 확률적으로, V자형 몸매를 가진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섹스를 시작하고, 더 많은 섹스 파트너를 가지며, 연애 중에 다른 여자와 더 많은 잠자리를 갖고, 심지어 유부녀들의 혼외정사 상대로 더 많이 선택받는다. 근육을 우락부락하게 키우고, 운동을 많이 해야 그녀가 당신을 섹시하게 보는 건 아니다. 여자를 흥분시키는 건 당신 팔에 붙은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 당신의 남자다운 어깨와 작은 엉덩이다.

3. 그 남자의 유머 감각

나와 섹스를 한 사람들은 전부 유머 감각이 탁월했어요. 재미있는 사람과 침대에 함께 누워 웃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유머 감각이 좋으면 섹스가 더 즐겁고, 솔직해져요. 상대방이 내키지 않는다거나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섹스 큰 시도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생소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돌이 쿵쿵거리며 웃어 넘길 수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분 상태에 따라 처음 만난 상대방의 성적 호감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녀의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이 우연히 거기 있으면 그녀는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녀의 기분이 나쁠 때 당신이 우연히 거기 있으면 그녀는 당신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사람들이 세무사나 주차
요급 징수원 같은 직업보다 출생이나 뮤지션을 더
섹시하게 생각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때문에 소개팅이나 미팅 같이 여자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당신의 섹시함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그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혹시
아는가? 그녀 역시 장난삼아 은근슬쩍 당신에게
도발적인 대사를 건네올지?



그리고 더 많은 데이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즐거운 사람과 이벤트가 많은 장소'에 같이
가는 게 좋겠지? 4월 25일 클럽 홀릭에서 열리는
MAXIM 파티에 놀러 오라. 그녀에게 결코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거다.

4. 그 남자의 움직임

남자가 춤을 잘 추면 침대에서도 끝내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과연
사실일까 궁금하기는 했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춤 솜씨가 거의 스트리퍼 수준이더라고요. 섹스도
했구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침대에서도
무도장에서만큼 흥분했죠. 섹스 중에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그의 몸짓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춤 잘 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와 섹스하는
여자들이 있다면 믿어지는가? 진화론적으로 여자는
건강한 몸을 가진 남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
춤 동작은 그 남자의 운동 조절 능력이나 뼈 내구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한 큐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샘플이다. 한 연구에서 여자들에게 춤추는 남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가린 채 보여주고 어떤
남자에게 더 끌리는지 물었다. 여자들은 동작이 크고,
거침없으며 시원시원한 춤을 추는 남자를 선호했고,
그 남자의 몸동작을 보면서 성욕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춤뿐만이 아니다. 여자는 남자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흥분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여자들은 상체를
옆으로 더 많이 흔들며 걷는 남자다운 걸음걸이를
선호했으며, 가임기 여성일수록 그 선호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춤이든 걸음걸이든
그 동작이 크고 호방할수록 여자는 남자를 섹시하게
여긴다는 거다. 진화 심리학자 칼 그래머는
독신남들을 데리고 술집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술집에서 어떤 몸짓을 해야 여자와 성공적으로
맺어지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그 결과, 같은
의자에 앉더라도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앉고, 크게
움직이고, 어깨를 움츠리거나 등을 굽히는 류의 닫힌
몸동작을 적게 하는 남자가 여자와 더 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몸짓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여자들은 크고 시원시원한 남자의



몸짓을 보고 본능적으로 '이 남자는 지위가 높고 우월'하니,
'이 남자와 섹스해서 후손을 좀 더 유리하게 퍼트리리라' 마음먹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여자들은 남자가 다른 남자의 등을 '톡톡'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성적 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이이다. 등을 두드리는 남자는 대부분 두드림을 받는
남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직장 상사의 등을 '톡톡' 두드리며
"선배님, 쉬엄쉬엄 하세요"라고 말하는 후배는 없잖아?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시궁창이더라도 그녀와 만날 때는 마치 역대 연봉의
전문직 종사자나 거대 기업체의 임원처럼 행동하는 게 좋다.
여자들은 때때로 자기 잘난 걸 자랑하거나 허풍떠는 남자를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몸짓으로 잘난 척을 하는 남자는 그녀들의
본능이 거부하지 못한다.



참고 서적
《여자가 섹스를 하는 237가지 이유》
신디 메스턴, 데이비드 버스 지음/
정병선 옮김/ 사이언스 북스/
18,000원

첫 섹스를 망치는 여자의 기우 7

Don't Worry, Be Sexy!



우린 이미 육봉을 벌겍게 데워놨는데,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란 말은 말아줘! BY 박정옥

*기우(杞憂): 앞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함. 또는 그 걱정. 옛날 중국 기(杞)나라에 살던 한 사람이 '만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좋을 것인가?' 하고 침식을 잊고 걱정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당신을 집으로 초대할 그의 행동이 평소와는 사뭇 다르다. 안절부절못하고 허둥대면서도 이따금씩 결의에 찬 눈빛을 하고 입을 열어 깨문다. 옷가지가 널어져있던 침대로 오늘은 깨끗이 정리됐다. 아, 그렇다. 때가 온 것이다. 이 남자, 일주일 전에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생리일을 물어봤었지. 그가 부산스럽게 커튼을 치고, TV를 끄는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다. 그가 한없이 야한 눈빛으로 당신을 그윽하게 바라본다. "준비 됐어?" 라고 묻는 무언의 신호다. 그의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서 당신의 두뇌도 빠르게 돌아간다. '너무 빨리 허락하면 쉬워 보이지는 않을까?', '속옷은 세트로 입었나?', '내 섹스 실력에 실망하지는 않을까?', '냄새가 나진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 끝에 당신이 깨낸 비수 같은 한마디, "우리 조금 나중에 하지". 역사적인 첫 섹스를 망치는 쓸데없는 걱정들. MAXIMI 첫 섹스를 망치는 여자의 기우 일곱 가지를 소개하고, 그게 얼마나 필요 없는 걱정이었는지 낱알이 파헤쳐주겠다.

1

그는 당신의 속옷이 세트인지 아닌지 기억하지 못한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어. 그녀를 위해 별교에서 꼬막을 공수해 직접 만든 봉골레 스파게티, 그리고 소름리에 친구에게 추천받은 샤토 생 미셸 에로리카 리슬링. 게다가 그윽한 향과 조명으로 에로틱한 분위기를 완성시키는 사계 향 캔들까지. 그녀와 입을 맞추고 한 손은 그녀의 가슴에, 그리고 한 손은 그녀의 치맛자락으로 향했어. 그런데 잠시 생각에 잠긴 그녀가 갑자기 손을 뿌리치는 거야. 예상치 못했던 시나리오였지. 며칠이 지나고, 감격의 첫 합방 후 그녀에게 물었어. "왜 그땐 안 된다고 했어?" 그녀가 대답했어. "그땐 속옷을 짝짝이로 입었거든"

완벽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첫 섹스를 치르고 싶은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짝짝이 속옷 때문에 섹스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 당신이 한껏 달아올라 그의 바지를 벗기려 할 때 그가 벨트를 움켜쥐며 "오늘은 주력 팬티가 아니라서 안 돼!" 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겠는가. 당신이 물고 빨고 할 건 그의 팬티가 아닌데 말이다.

인류 역사상 두뇌 멀티태스킹을 가장 잘했다고 평가 받는 아인슈타인도 "여자에게 키스하면서 안전운전하고 있는 남자는 키스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사람의 뇌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당신과의 첫 섹스를 목전에 둔 그는 섹스를 무시하 마쳐야 한다는 목적 의식에 함몰돼 당신의 속옷이 세트인지 아닌지 눈치 채지 못한다. 남자는 당신보다 훨씬 관대하다. 특히 첫 섹스라는 절체절명의 미션이 결부된 경우에는 더 그렇다. 첫 섹스 때 상대방의 속옷이 짝짝이라고 실망하는 남자는 거의 없다. 오로지 당신과 섹스를 해냈다는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임팩트다. 당신이 티 팬티나 가터벨트, 혹은 프론트 혹은 브래지어 같이 임팩트 있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이상 속옷은 남자에게 벗겨야 할 거주장스러운 천 쪼가리에 불과하다. 남자가 "오늘 나 속옷 세트로 입었어."라는 말보다 "오늘 나 노브라에 티 팬티야."라는 말에 더 흥분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만약 짝짝이 속옷이 신경 쓰여 첫 섹스가 망설여진다면 차라리 그에게 잠깐만 눈을 감으라고 말한 뒤 브래지어를 벗어던진 후 팬티만 입고 그의 앞에 서라. 아마 그는 당신과의 첫 섹스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2

그는 당신이 섹스를 못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정말 별의별 여자와 섹스를 해봤어.
입으로 끝내주게 잘 해서 5분도 안 돼 사정하게
만드는 여자, 마법 같은 허리놀림으로 마치
조루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 여자 등 말하자면
끝도 없어. 그런데 가장 못 잊을 여자는
클럽에서 만났던 그 누나뿐이야.
나는 친구들에게 그 누나를 말할 때 일명
'물바다 누님'이라고 불렀어. 그 누나와 하고
나면 침대는 항상 물바다가 된 것처럼 흥건하게
젖었으니까. 마치 영웅이 된 것 같았어.
수많은 실력자를 만나봤지만 그 누나만큼 나를
만족시켜준 여자는 없었어.

남자는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잘하는 여자보다 잘
느끼는 여자가 낫다." <남자의 사랑은 섹스다>의 저자
데이비드 징크젠코에 따르면 49퍼센트의 남성이
자기 여자에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육체적인
희열을 안겨주었던 때야말로 최고의 섹스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여자는 남자의 섹스 실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남자는 다르다. 본인의 섹스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 강하고 오래 가는 걸 최고의
자존심으로 생각한다. 남자는 어떻게 해야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지, 어떻게 해야 본인이
만족할 수 있을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섹스에 관해서는 남자는 만족시켜야 만족하는
동물이다. 당신이 그를 만족시키려
한다면 당신이 먼저 만족하는 편이
훨씬 빠르다.
영화 <어글리 트루스>에서는
섹스리스 부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부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부인이
남편보다 회사 내에서
잘나가는 위치에 있었다.
주인공 마이크는
부인에게서 열등감을
느끼는 남편에게
발기부전이 온
것이라고 진단한다.
남자는 항상
여자보다는 조금
나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산다.
섹스도 마찬가지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잘해야 그의 자존심이
서고, 고추가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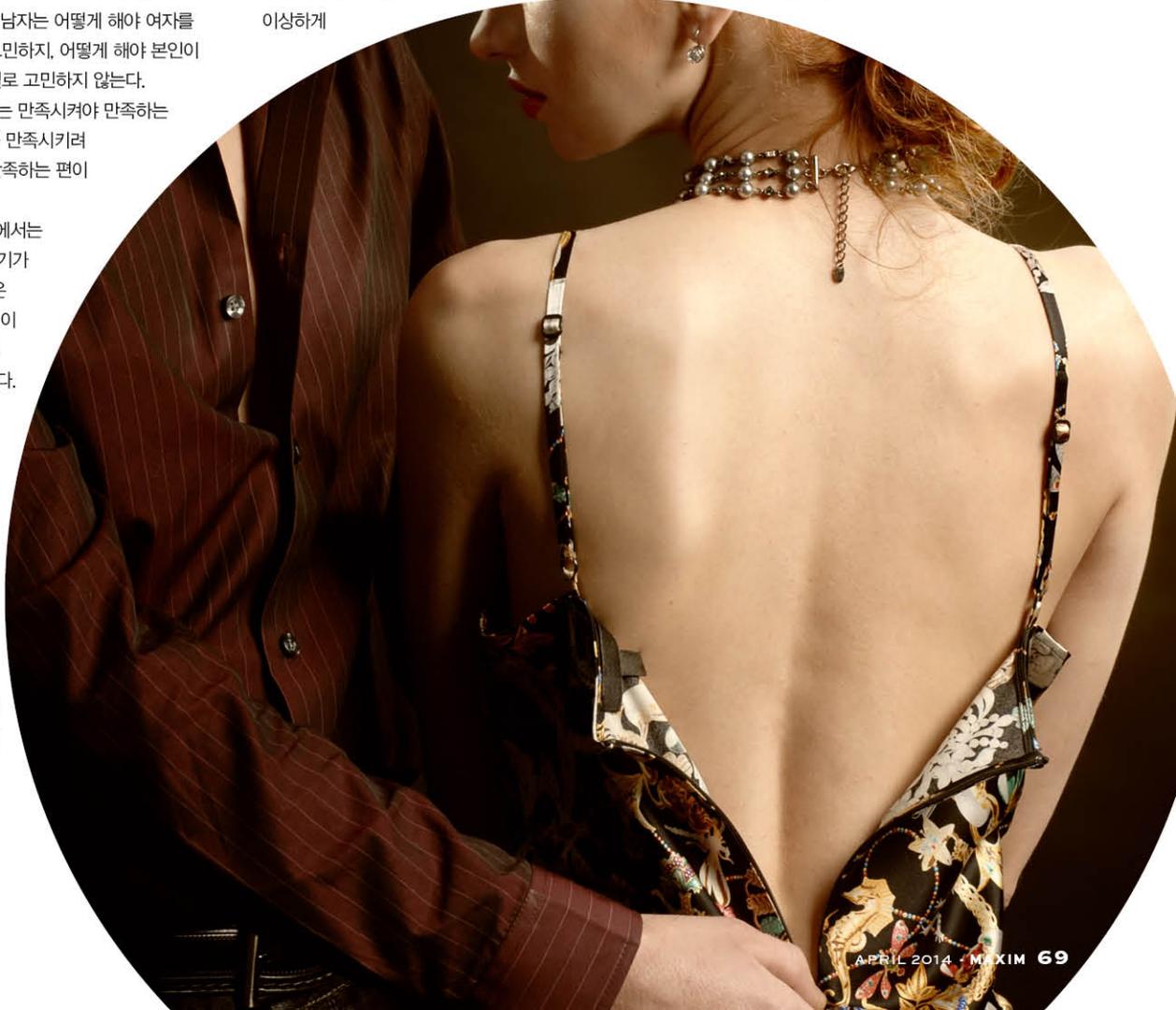
3

신음소리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다.

그 여자는 참 신음소리가 끝내주는 여자였어.
그 신음소리를 듣기만 해도 발기가 될
지경이었으니까. 예쁘냐고? 글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신음소리를 낼 수 있는 여자라면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야. 누구 얘기냐고? 대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 그때 옆집에 살던 여대생이
있었어. 잘 시간만 되면 여자없이 옆집에서
그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 그럴 때면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신음소리를 들으며
마스터베이션을 했어. 가끔 그녀가 내 첫사랑이
아닐까 싶기도 해. 어느 순간부터 그녀와의
섹스를 상상하게 됐고, 우리는 상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섹스를 나눴으니까.

첫 섹스를 할 때 거친 신음소리를 내면 혹시 자신을
음란한 여자로 볼까봐 신음소리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여자가 있다. 남자는 신음소리 없는
섹스를 할 때 흥분이 싹 가라앉으며 보리수나무
아래의 싯다르타가 된 듯 마음이 차분해진다.
당신의 신음소리를 그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남자는 이미
수많은 야동을 접하며 야동 배우의 격한 신음소리에
익숙해졌다. 남자는 섹스를 할 때 신음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남자는 청각보다는 시각에 의존하는 동물이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남자일수록 항상 똑같은 여자의
얼굴은 금방 시신경에 피로를 안긴다. 그러나
신음소리는 다르다. 때로는 격하게, 때로는 은은하게
남자를 흥분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김형태
예송이비인후과 발생센터 원장은 "사람 목소리의
평균 주파수는 100~300Hz 정도인데, 비음이나
신음처럼 2500~3000Hz 정도의 높은 주파수대의
목소리는 이성적 사고를 관장하는 전두엽의 활동을
억제하고 감성 중추인 변연계를 자극해 황홀경에
빠지게 한다."고 설명한다. 섹스 자체의 물리적 행위를
넘어선 흥분을 고집어내는 데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여자들이 있다. 그녀들은 신음소리를 자극적인
섹스의 기폭제로 사용한다. 굳이 신음소리가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내는 높은 주파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를 흥분시키니까 말이다. 그와의 첫 섹스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숨이 가쁘고 신음이 섞인
하이톤의 목소리로 그에게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라고 말해줘라. 흥분한 그의 피스톤 운동이 두 배
이상 빨라질 거다.





4 언제쯤 첫 섹스를 해야 쉽게 보이지 않을까 고민할 것 없다.

그녀와 나는 처음 만난 날 섹스를 했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조금은 쉽게 보인 것도 사실이야. 벌써부터 내 여자가 된 것 같았지. 그런데 요즘 난 완전 그녀의 노예가 돼버렸어.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처음은 쉬웠는데, 점점 그녀가 쉽지 않아졌어. 우린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 그녀와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줘야만 하게 됐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너무 쉽게 섹스를 허락하면 금방 식고, 쉬워 보일까봐 섹스를 망설이는 여자가 많다. 하지만 정작 남자에게는 섹스를 허락하는 기간과 남녀의 갑을 관계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여자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에게 섹스를 허락한다. 연인 사이에서는 사랑이, 단순한 섹스 파트너 사이에서는 섹스 그 자체의 쾌락이 이유가 된다. 그런데 더러 상대에게 '책임감'을 강요하기 위해 섹스를 허락하는 여자가 있다. "이제부터 나는 너의 여자니까 나를 책임져!" 이런 방식이다. 하지만 똑똑한 여자는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섹스를 결심한다. 진정한 밑당은 사귀기 전이 아닌, 사귀고 난 후에 이뤄진다. 쉬운 여자가 되느냐, 어려운 여자가 되느냐 또한 섹스 이전이 아닌, 섹스 이후에 결정된다. 진짜 여우의 본성은 섹스 후에 나온다. 남자는 섹스 후 당연히 여자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해진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남자를 길들이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남자는 애 같아서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가진 게 아니었을 때 더욱 소유욕이 샘솟는 법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남자가 해줄 때, 재주 부리는 공에게 건빵을 던져주듯 섹스를 허락하라. 처음엔 마약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중독된

후에는 비싼 값을 받는 마약상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 첫 섹스는 비교적 쉽게 허락하되 그후에는 절대 쉽지 않아야 한다. 섹스도 경제와 같아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존재한다. 공급이 많을수록 섹스의 가치는 떨어진다. 남자가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섹스로는 절대 그와 흥정할 수 없다.

5 요구하면 당신을 이상한 여자로 볼까봐 걱정할 필요 없다.

얼마 전에 소개팅 한 거 기억하지? 엄청난 여자를 만난 것 같아. 소개팅을 할 때는 정말 너무 따분해서 죽을 것만 같은 지경이었어. 얼굴도 막 상정한 촌뜨기 시골처녀 같이 순해 보이기만 해서 그냥 밥이나 먹고 집에 가려고 생각했지. 그런데 밥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 여자가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는 거야. 술을 마시다 보니까 둘 다 약간 취기가 오르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우린 모델로 향했어. 하루 종일 그랬듯 그 여자는 말없이 샤워를 하고 나오고, 나도 씻고 나와서 함께 침대에 누웠어. 그런데 이 여자, 놀자마자 팬티를 벗더니 입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야. 조금 놀라긴 했지만 너무 섹시해서 죽을 것만 같았어.

단호하게 말한다. 남자는 연희처럼 섹스할 때 할 말은 하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사정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면 그에게 "아직 안 돼" 라고 말해라. 더 강한 자극을 원할 땐 망설이지 말고 "애무해줘"라고 말해라. 부탁으로 말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명령조가 효과적이다. 당신의 지시에 그는 충실한 마당쇠로 변신할 것이다. 오르가슴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반드시 그에게 알려줘야만 한다. 그래야 그가 어떤 때 오르가슴을 느끼는지 알게 되고, 그런 학습 효과는 다음 섹스에서 발휘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남자들이 "나 지금 느낄 것 같아"라거나 "갈 것 같아"라는 말에 흥분을 느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사실 섹스를 잘 하는 남자는 없다. 흔히 말하는 '잘 하는 남자'는 결국 속궁합을 잘 맞추기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섹스 잘 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여자에게 달려있다.

6 당신의 땀 냄새는 그에게 향수다.

여자 친구와 등산을 다녀오고 찻뽕뽕한 몸 좀 풀려고 찻집방을 찾았어. 낮이라 그런지 손님 거의 없었고 우리 비어있는 방을 하나 찾아서 이불을 덮고 잤어. 그런데 흠뻑 땀에 젖은 여자 친구가 너무 섹시해 보이는 거야. 그녀의 목을 훑어봤어. 약간 짠 맛이 났지만 나쁘지 않았어. 여자 친구는 땀새 날 거라고 싫어했지만 난 그때처럼 그녀의 땀새가 좋았던 때가 없었어.

음식이든 섹스든 식기 전에 먹어야 제 맛이다. 섹스를 하기 전 간단하게 샤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씻는 동안 기껏 달아오른 분위기가 식는다면 그만큼 개탄스러운 일도 없다. 첫 섹스의 경우에는 더욱 애매하다. 약속된 날에 "나 먼저 씻고 나올게"라며

남자의 섹스에 대한 명언 3

- 1 여자는 섹스를 하려면 이유가 필요하다. 남자는 그저 장소가 필요할 뿐
-빌리 크리스탈
- 2 섹스 중독 여성 : 평범한 남자만큼 섹스에 집착하는 여성
-마용 맥로플린
- 3 대부분의 남자들이 갈망하는 것은 창녀인 처녀이다.
-E. 델버그

미드 (Sex And The City)에서 사만다는 섹스를 할 때 "그래, 바로 거기야"라고 외친다. 많은 여자가 사만다를 동경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침대 위에만 오르면 조선시대를 산다. 섹스를 할 때 남자에게 요구하는 게 음란한 여자로 보일까봐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남자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동물이다. 당신을 오르가슴으로 안내하는 법을 그에게 알려줘라. 첫 섹스일수록 어떤 자세가 좋고, 어떤 각도가 좋은지, 또는 어디를 애무하면 좋은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여자가 더욱 섹시하게 느껴진다. 남자들이 과외선생이 등장하는 아동을 즐기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다.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 연희는 준영과 첫 섹스를 할 때 옷을 벗으려는 그에게 "옷 벗지 마"라며

차례로 씻고 나온 다음 첫 섹스에 임하는 커플은 많지 않을 테니까. 땀 냄새 걱정 때문에 섹스를 망설이는 경우는 특히 클럽에서 만난 남녀가 원나잇을 할 때 가장 많이 생긴다. 클럽에서 나와 술 한 잔 하고 모텔에 들어가 열정적인 키스를 나눴는데, 막상 섹스에 돌입하려니 클럽에서 한껏 땀 뻘뻘 게 생각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씻고 하자" 라고 하기에 두 사람이 차례로 씻는 동안의 뻘뻘함은 더욱 참을 수 없다. 사실 남자가 여자의 땀 냄새를 약취로 느끼고 거부감이 드는 일은 별로 없다. 미국 필라델피아 모넬 센터의 찰스 위스키 박사는 남자의 땀 냄새가 여자의 땀 냄새보다 더 지독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연구 결과 향수 가운데 50%가 여성의 겨드랑이 땀 냄새를 커버했지만, 남자의 겨드랑이 땀 냄새를 커버할 수 있는 향수는 19%에 불과했다. 게다가 의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후각이 훨씬 뛰어난 걸로 나타났다. 즉, 당신의 땀 냄새는 그렇게 고약하지도 않고, 심지어 남자는 당신의 땀 냄새를 잘 맡지도 못한다.

여자의 냄새는 오히려 남자를 흥분시킨다. 본인의 발 냄새나 겨드랑이 냄새는 싫어하면서 여자에게 나는 냄새에는 환장하는 게 남자다. 겨드랑이 페티시, 발 페티시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 돌아오기 직전 연인인 조세핀에게 '조세핀, 앞으로 3일 후면 파리에 입성할 예정이니 지금부터 목욕을 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라고 편지를 썼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는 여자가 껌질을 벗긴 사과를 겨드랑이에 끼워두었다가 땀에

흘뻐 젖으면 꺼내 애인에게 쥐고 냄새를 맡게 했다. 그래도 첫 섹스 때 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옷을 입는 게 답이다. 착의 섹스는 당신의 땀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고, 상대방에게 처음으로 전신 나체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없애줘 섹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옷을 입고 하는 섹스는 남자에게 영하 속 베드신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과 스릴감을 주니, 이거야말로 일석삼조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가 당신의 옷을 벗기고 애무를 시작하려 할 때 벌떡 일어나 그를 침대에 눕혀라. 그리고 천천히 애무를 해준 후 여성 상위에 돌입하라. 여성상위는 남자의 코와 여자의 몸이 가장 떨어지는 체위라서 상대방이 당신의 냄새를 눈치 채기 힘들 거다.

7 당신의 몸매에 대한 견적은 이미 나온 상태.

난 여자 친구를 사랑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 꼭 섹스를 할 때면 볼을 꺼야만 옷을 벗는단 말이지. 배가 나와서 부끄럽대나 뭐래나. 사실 어느 정도 여자를 만나본 남자라면 여자를 속 훑어보면 견적이 딱 나오잖아. 여자 친구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당신과 섹스를 하기로 결심한 남자에게 당신의 몸매는 중요하지 않다. 첫 섹스를 성사시키기로 다짐한 남자의 뇌는 오로지 당신과의 섹스만을 상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MAXIM 퀵 성 상담소

Q 제 남친은 삽입 시간이 30분 이상이에요. 지루한가요?

A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세요. 다음 질문!

Q 남친이 자주 자극적인 코스프레를 요구해요.

A 사마귀 코스프레를 하겠다고 하세요. (얇것 사마귀는 고미 후 수컷을 잡아먹는다)

Q 남친이 섹스하자는 말을 안 해요. 성욕이 사라진 건가요?

A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헤어주세요.

남자는 여자의 몸매보다는 섹스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가 당신의 몸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눈이 정상적으로 박힌 남자라면 당연한 거다. 하지만 당신이 몸매 때문에 섹스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미 당신과 섹스하려고 결심한 남자에게 당신의 몸매는 월드컵 결승전을 앞둔 사전 광고일 뿐이다. 게다가 그는 이미 섹스 전에 당신의 몸매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자의 스캔 능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조금 과장 보태서 남자는 유치원 때부터 여자 선생님의 몸매를 평가해왔다. 만약 당신의 몸매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생각보다 가슴이 작네', '뺨살 귀여운데?' 정도 선에서 당신 몸매에 대한 평가는 끝난다.

특히 여자 경험이 많은 남자들은 여체의 비밀을 너무 잘 알기에 여자의 몸매에 더 관대하다. 당신의 몸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남자는 사실 여자 경험이 별로 없고, 인터넷에서 김치녀를 운운하며 여자를 욕하는 찌질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만약 그가 당신의 몸매에 불만을 터뜨린다면 그냥 쿨하게 "그쪽도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아"라고 대답해줘라. 다시는 당신의 몸매를 홍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첫 섹스 전 당신의 몸매가 신경 쓰일 것 같다면 사전에 예고편을 만들어두는 게 좋다. 섹스에 돌입하기 전 그에게 당신의 몸 이곳저곳을 만지도록 해라. 당신의 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그의 표정이 여전히 흥분에 가득 차있다면 옷을 훌러덩 벗어 당신의 몸매를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다. 자신 있는 부위에 따라 체위를 주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신이 골반에 자신 있다면 후배위를 유도하라. 가슴에 자신이 있다면 여성상위가 효과적이다. 남자는 후배위를 할 때 여자의 엉덩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여성상위를 할 땐 여자의 가슴에서 눈을 떼지 않으니까. 영 몸매에 자신이 없다면 그가 당신의 몸매를 감상하지 못하도록 정상위를 하면서 그를 꼭 껴안아라. 



KLPGA의 매력 속으로! 녹색 필드의 여신들

프로야구, 프로축구 개막에 스포츠 팬들의 마음이
봄치려처럼 선택거릴 거다. 안목 있는 팬이라면
여자 골프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않는다.
당신의 가슴을 뛰게 만들 필드 위
네 명의 미녀 골퍼를 만나보자.

BY 김덕중(엑스포츠 뉴스 기자)

아이돌 뺨치는 미모, 양수진

생년월일 1991년 8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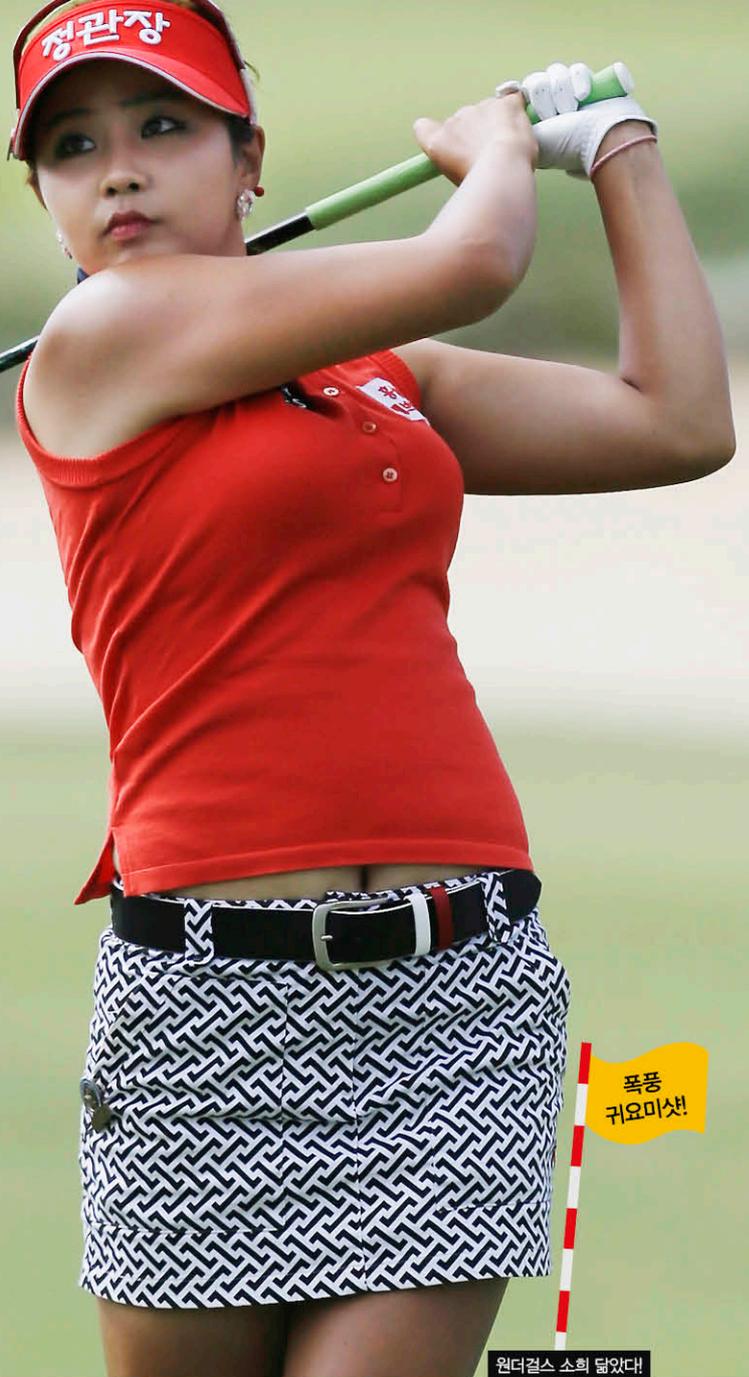
소속팀 정관장

데뷔 2008년 KLPGA 입회

수상 2011 KLPGA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 우승

2013 KLPGA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 등

국가 대표 출신인 양수진(23)은 아마 무대를 평정하고 2009년 KLPGA 무대에 데뷔했다. 당시 '신인왕 후보 1순위'로 평가받았지만 안신애에 밀려 신인왕 포인트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인 통산 5승을 기록하며 KLPGA를 대표하는 여성 골퍼로 등극했다. 어느덧 프로 데뷔 6년차에 접어든 그녀는 2014년을 변화와 도전의 해로 잡았다. 본인이 선호하는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로 진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탄탄한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쾌한 장타가 양수진의 최대 강점. 드라이브 비거리가 최대 270야드까지 나가는 장타자라 퍼팅 감각이 좋은 날은 버디 행진이 이어진다. 어려서부터 골프에만 몰두한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리는 일.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양수진은 한때 자신의 골프공에 스티퍼자발 캐릭터를 그려 넣기도 했다. 올해는 어릴 적 꿈을 살려 프로골퍼가 아닌 패션 디자이너로 첫 시험대에 오른다. 의류 후원 업체 골프웨어 브랜드 '파리케이츠'와 함께 '양수진리안'이라는 옷을 만들 계획이다. 신인 시절에는 워낙 낮가림이 심해 말이 별로 없었지만, 골퍼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인터뷰에도 능숙해졌다.



폭풍
귀요미셋!

원더걸스 소희 닮았다!

카리스마 미소퀸, 김하늘

생년월일 1988년 12월 17일

소속팀 KT 골프단

데뷔 2006년 KLPGA 입회

수상 2011 KLPGA 올스타 왕중왕전 우승, 2013 제2회 MBN 여성스포츠대상 우수상 등

김하늘(26, KT)은 KLPGA 경력 9년차인 베테랑 골퍼다. KLPGA 통산 9승을 거뒀으며 2011년에는 KLPGA 상금왕, 대상 포인트 1위, 다승왕, 인기상을 휩쓸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에 진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의 뜻에 따라 KLPGA에 잔류 중이다. 평소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김하늘은 해외로 나갈 경우 100% 성공하리라 장담할 수 없기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169cm의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그녀는 본인의 이름 때문인지 하늘색 스커트를 자주 입고 필드에 등장한다. 정교한 퍼팅과 평균 드라이브 거리 260야드를 자랑하며, 오랜 프로 경력에서 오는 노련함으로 세계 여자골프 3대 투어인 KLPGA에서 계속 활약하고 있다. 필드 위에서 성적이 신통치 않아도 언제나 웃기 때문에 '미소 퀸'으로 불린다. 김하늘은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도 웃는 이유에 대해 "웃는 것 자체가 포커페이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찔
미소셋!

오 나의 미소 천사 미소 퀸

필드 위 최강의 인기녀, 김자영

생년월일 1991년 3월 18일

소속팀 LG그룹

데뷔 2009년 KLPGA 입회



'필드 위의 신데렐라'로 불리는 김자영(23, LG)은 KLPGA에 입회한 2010년부터 갤러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빼어난 미모 덕분에 신인 시절부터 KLPGA 홍보 모델로 발탁돼 활동한 경력도 있다. 3천여 명이 훌쩍 넘는 팬 카페 회원을 보유한 김자영은 대회 중에도 구름떼처럼 모여든 '구름 갤러리'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여자골프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삼촌팬'을 확보하고 있다. 입회 첫째 신인왕을 거머쥐는 데는 실패했지만, 2012년 첫 우승과 함께 시즌 3승을 챙기며 KLPGA 대표 스타로 우뚝 섰다. 2011년까지만 해도 멘탈이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던 그녀는 2012년 활약으로 주위의 우려를 불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소속사 교체로 동계 훈련에 집중하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에 부담감을 느꼈는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해 부진을 심리적 이유에서 찾은 그녀는 올 시즌 KLPGA 부활을 위해 일찍부터 호주 전지훈련을 실시해 훈련량을 늘렸고, 마음가짐 또한 새롭게 다잡아 최근에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김자영은 드라이버샷, 퍼팅, 아이언샷 등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강점을 보인다. 지난 시즌 플레이가 다소 위축되긴 했지만, 언젠는치고 올라올 수 있는 저력을 지녔다.



시크한 매력까지!



와우! 클래식!

화제 만발 초미니스커트, 안신애

생년월일 1990년 12월 18일

데뷔 2008년 KLPGA 입회

수상 2009 KLPGA 신인왕, 2010 KLPGA 투어 하이원 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 우승 등

지난해 KLPGA는 장타자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한마디로 '장타자 전성시대'였다. 한국의 대표 미녀 골퍼 안신애(24)는 길어진 코스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케이스다. 뉴질랜드 국가 대표로도 활동한 그녀는 KLPGA 입회 첫 해인 2009년 신인왕을 거머쥐면서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듬해 히든밸리 여자오픈과 하이원 리조트컵에서 2승을 챙겼으나, 이후 3년간 우승을 하지 못했다. 지난 시즌에 대한 아쉬움은 특히 컸다. 안신애는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 5월 KG·이데일리 레이디스오픈에서 5위를 차지하며 컨디션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이후 상위권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 장타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뀐 코스 세팅 때문이 아니냐는 주위 시각에 안신애는 지난 3년의 부진을 온전히 자기 탓으로 돌렸다. 대화가 늘어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거다. 작년에는 인기 아이돌 믹키유천과 열애설이 터지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는 성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보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최근 지독한 슬럼프를 겪기도 했으나 지금은 꾸준한 체력 훈련으로 자신감을 상당 부분 회복한 상태다. 비록 장타자는 아니지만 단점에 조금해하기보다 본인에게 맞는 코스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다. 장기인 정확도 높은 드라이버 샷과 아이언 샷을 내세워 올 시즌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안신애 선수는 최근, 필드에 '초미니'를 입고 등장해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치마를 입으면 경기가 안 풀리는 징크스를 깨기 위해 일부러 짧은 치마를 입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4 KLPGA의 어메이징한 숫자들

KLPGA가 대한민국 대표 게임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저랬다...

15,500,000,000

2014년 KLPGA의 총상금은 155억 원. 대회당 평균 상금이 약 6억 원이다. 이 상금은 작년보다 24%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의 돈 잔치가 벌어질 예정이다. 올해는 더 피 터지겠는데?

26

올해 KLPGA는 총 26개 (LPGA 하나외환 챔피언십 제외)의 공식 대회를 연다.

이는 지난해보다 4개나 늘어난 숫자다. 개막전은 4월 10일 롯데스카이힐 제주에서 나흘간 열리는 제 7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미모의 프로 골퍼를 직접 보고 싶다고? 돌, 바람, 여자의 섬 제주도로 떠나자!

+11

KPGA가 주관하는 남자 대회는 15개에 불과하다. 즉 여자

대회가 11개나 더 많이 열린다는 거다. 전 세계적으로 여자 골프의 인기와 수익 규모가 남자 골프를 앞지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한민국의 우먼 빼빼! 역시 대단해!

Total Knockout

수많은 여인들의 팔을 뺨고 뼈를 주저앉힌 UFC의 강철 미녀,
UFC 여성부 밴텀급 세계 챔피언 론다 로우시와 MAXIM이 만났다. 온 몸에서 강력한
아우라를 뿜는 그녀의 비키니 차림을 구경하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이건 뭐, 맞아도 터지고 보고 있기만 해도 터지겠다.

BY LAURA LEU PHOTOGRAPH STEPHAN WÜRTH



스트라이크포스와 UFC를 정복한 동급 최강 MMA 여성 파이터 론다 로우시. 2007년 세계유도선수권 대회 은메달리스트이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그녀는 2010년 MMA에 데뷔해 지금까지 완벽한 무패행진을 해온, 말 그대로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여성 파이터다. 거기에 '여자 차엘 소넨'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거침없는 입담과 트래시토크*로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스타성까지 겸비했다. 무시무시한 파이터링과 악당의 면모에, 의외의 상큼한 미소를 더하니 눈길이 갈 수밖에. 2013년 MAXIMI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100인'을 선정하는 HOT 100 리스트에서 29위에 랭크되기도 한 그녀는 강한 것이아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미 수없이 몸으로 증명해왔다. 지난 2월, UFC 170에서 도전자 사라 맥만에게 잔인한 니킥과 펀치 콤비네이션을 먹이며 완승한 그녀를 MAXIMI 만났다. 혹시 인터뷰 중에 기쁨의 암바라도 먹이는 게 아닐지 벌써부터 공포가 엄습해온다.

*트래시토크: 경기 전, 상대를 자극하는 비난의 발언. 주로 인신공격과 뜬금없는 욕설이 많다.

MAXIM이 선정한 'HOT 100' 순위권에 진입한 것을 축하한다! 혹시 당신보다 순위가 높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리스트에 있나?

만약 내가 UFC의 옥타곤 걸인 아리아나 셀레스티를 꺾었다면,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를 누르고 42.195km를 완주한 거나 다름 없었겠지만 뭐 괜찮다. 2014년에는 분명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다. "젓가슴 끼는 건 니 전문이지만, 앞으로 더 질나가는 건 나다." 그 여자는 점점 늙고 있지만, 나는 지금이 한창이니까.

2013년 FOX 스포츠 채널의 격투 리얼리티 쇼 <TUF>에서 코치로 등장했다. 당신과 다른 여성 격투가들이 한데 모여 있으면 왠지 <베이워치>의 잔혹 버전이 펼쳐질 것 같았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흥분하는 요소가 많아 재미있었다. 전국적으로 혼자 망신당하는 건 자기 선택이니까 알아서든 하는 거지. 다들 성인이고, 난 코치지 보모가 아니잖아.

스트라이크포스 밴텀급 매치에서 당신이 미사 테이트에게 먹인 암바는 "역사상 최고로 끔찍한 암바"라 불린다. 그녀의 팔을 반대로 꺾으며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제대로 암바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녀가 자주 브릿지를 빠져나가기려고 발버둥쳤다. 그래서 한 손으로 그녀의 팔을 지긋이 눌렀지. 그녀가 항복을 외쳤을 땐 이미 다른 손으로 그녀를 흡吮 두들기고 있을 때였다. 그렇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건 아니다. 난 그저 그 상황에 맞게 행동했을 뿐이니까. 싸움의 승부는 끈질긴 그래플링에 좌우되는 법이다.

MMA는 격렬한 종목이니만큼 늘 부상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 같다.

전혀. 쇄골과 어깨가 분리된 적도 있었고, 특히면 무릎 부상에, 발은 또 얼마나 자주 다치는지... 게다가 발가락 골절, 코뼈 골절 등등 크고 작은 끔찍한 부상을 수없이 겪었다. 사실 그것도 게임의 일부라면 어쩔 수 없지. 내가 곰인형 끌어안고 노는 여자가 아니라면 걸 당신도 잘 알잖아?

그런 당신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종이에 베이는 것.

정말로? 당신 같은 파이터가?

정말이다. 종이에 베일 때 소름이 돋는 그 느낌이 너무 싫다. 한 번 베이면 그 느낌이 엄청 오래 가더라고. 얘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MMA에서는 반칙인 행위를, 예를 들어 '머리카락 쥐어뜯기'라던가 '간지럼 태우기' 같은 기술 중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게 있나?

간지럼 태우기! 난 정말 미친 듯이 간지럼을 탄다. 어렸을 때, 우리 언니가 날 눕혀 놓고 오줌을 지릴



때까지 간지럽힌 적이 있었거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누가 날 간지럽히더라도 하면 주먹이 먼저 나간다.

혹시 시합 전 징크스는 없나?

이상하게도 꼭 뭔가 하나씩 일이 꼬인다. 만약 주변 상황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본다. 시합 전에는 항상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곤 하거든. 마우스피스가 사라진다던가, 핏볼테리어한테 발을 물린다던가, 여권을 잃어버린다던가... 하지만 그런 난감한 상황 중 하나만 해결해도 시합 전 긴장감이 싹 해소된다. 전화위복이라 해야 하나?(웃음)

언젠가 "시합 전에는 항상 섹스를 하려고 한다"는 말을 했었다. 아... 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건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사실이다. 여자가 싸움에 임하기 전에 섹스를 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거든. 남자들은 시합 전에 성욕을 억제하려 하지만, 여자들은 섹스를 해야 더 호전적으로 변한다. 난 운이 없게도 기회가 잘 안 생기더라고.

남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감과 활기가 넘치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나와 팔씨름을 해서 이겨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나와 마주하는 것조차 어색한 사람이라면, 다른 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

여자들은 섹스를 해야
더 호전적으로 변한다.

”



후덜덜한
싸움 실력!





'나한테 이런 짓은 좀 그만 했으면' 하는,

유독 거슬리는 행동이 있다면?

근처에 와서 괜히 '임바'에 관한 농담 따먹기는 하지 마라. 그렇잖아도 지겨워 죽겠거든. 누가 괜히 와서 또 '임바' 얘기를 하려고 드면 "이런 미친 XX, 꺼져버려!" 라고 말해 줄 거다.

이전 임바가 아예 당신의 대표 필살기가 되었군?

지금까지 숨겨두고 있는 필살기 같은 건 없나?

아니, 전혀 없다. 누구든 '필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지겨운 기술을 맨날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잖나. 싸움은 창의적일수록 좋다. 어쨌건 나는 세계 최강의 그레플러 중 한 명이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그라운드 기술에 익숙한 편이다.

당신에게서 가장 여성스러운 점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의외로 잘 운다는 거? 아플 땐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땐 평평 운다.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예컨대 내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데 10번을 넘게 플레이해도 그 판을 깰 수 없다면 정말 평평 울 거다. 그래서 어린 시절엔 시험을 보다가 울기도 했다.

뭐야, 이거 완전 울보였구만! 🙄



“

나는 세계 최강의
그레플러 중 하나다

”



RONDA ROUSEY

론다 로우시

출생 1987년 2월 1일 (미국)

고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체격 키 168cm, 몸무게 61kg

리치 168cm

UFC 전적 9전 9승 1TKO 8SUB

Stuff

GEAR OF
THE MONTH

하드웨어 전쟁의 휴전 선포? 갤럭시 S5



하드웨어부심 찌는 쌤샘이 대체 무슨 강으로
이런 스펙의 신작을 출시했을까. BY 조용재

SPEC CHECK

크기 142.0(L) x 72.5(W) x 8.1(H)mm
해상도 5.1인치 1920x1080 FHD 아몰레드
칩셋 쿼드코어 2.5GHz
메모리 2GB
용량 16/32GB (외장 최대 64GB 지원)
카메라 전면 200만 화소/후면 1,600만 화소
출고가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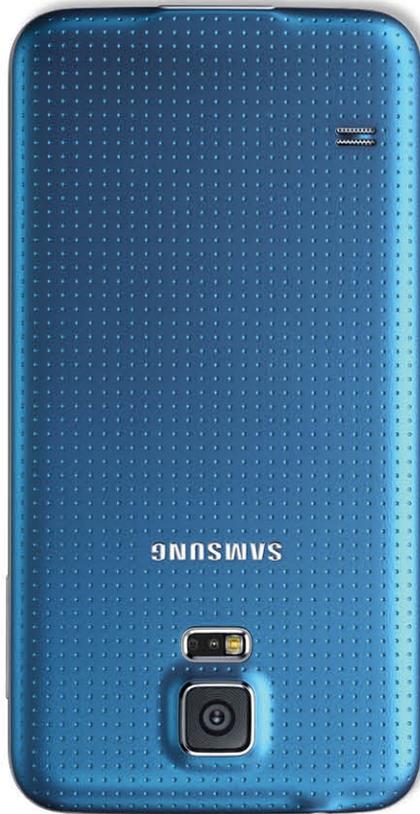




'갤럭시 S#' 시리즈는 애플에 대항하는 삼엽충들의 자존심이자 안드로이드 진영의 최종보스 '스펙 강패'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아이폰 5s가 전례없는 64비트의 고성능 A7칩을 달고 나타난 것이다. 32비트의 코어로 아무리 딸을 쳐봤자 삼엽충들은 더 이상 뿔어낼 부심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보이즈 투 맨 앞의 신용재마냥 분을 삭이며 차기작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를 어찌나. 이번에 발매된 갤럭시 S5의 스펙은 더 가관이다. 성능을 업그레이드 했지만 여전히 32비트 옥타코어 프로세서, 살짝 늘어난 2,800mAh의 배터리 용량, 심지어 램은 2GB에 불과하다.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의미를 알 수 없는 공기구멍 패턴의 백커버는 싸구려 플라스틱 같으며 대차게 까이는 중이다. 야심차게 준비한 골드 컬러는 아이폰의 샴페인 골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나, 묘한 구멍 패턴과 어우러져 '반창고'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반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방수 및 방진, 스와이핑 지문 인식 기능, 다운로드 부스터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기능을 탑재했으니 말이다. 하라는 하드웨어 자랑은커녕 안 하던 짓을 하는 걸로 보아, 64비트의 A7에 대항할 만한 칩셋을 내놓는 것은 포기한 모양이다. 무의미한 하드웨어 싸움을 피하고 편의성의 혁신으로써 애플에 대항하겠다는 의미일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모바일 하드웨어전. 일단 삼성이 먼저 후전을 선언했다. 아아, 소녀시대가 2NE1에게 처음으로 1위를 빼앗겼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핸즈온 리부!



갤럭시 S5의 선방 요소

내가 그래도 갤럭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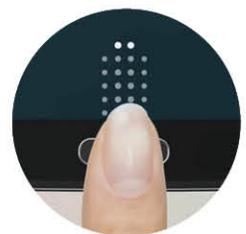
1 방수 및 방진

갤럭시 S4 액티브의 반응이 괜찮았는지, 이번 S5에서도 아웃도어를 고려해 내구성이나 강화했다. 이로써 등산이나 사위 중에도 셀카가 가능해졌다.



2 다운로드 부스터

와이파이와 LTE 양쪽 모두를 사용해 다운로드 속도를 폭주시키는 기능이다. 이번 시리즈의 필살기 중 하나. 이로써 토렌트의 고화질 AV도 순식간에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요금 폭탄은 알아서...



3 지문인식

홈버튼에 있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손가락을 스윽 긁으면 잠금 해제가 된다. 이를 이용해 Paypal 계정에서 손쉽게 결제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아이폰 때처럼 유두 잠금 해제는 자제하자. 긁히면 아파요.

그거 왜 샀어? #15



중국발 미세 먼지의 공격도
에디터들의 돈지랄을 멈출
수는 없었다. BY 김소윤 MODEL 이상윤



신일 유선 스틱 핸디형 청소기
쿠팡에서 58% 할인된 가격
44,300원에 구매

신일 유선 스틱 핸디형 청소기



정욱 씨, 요새 좀 멀끔해졌네? 옷에 붙이고 다니던 고양이 털은 다 어디 갔어?



다 새로 지른 청소기 덕분이야. 방에 꼬부랑 털이 하도 수북해서 여자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 파마머리한 아주머니랑 바람피우느냐고...



음, 진짜 싫다. 그동안 집에 청소기도 없이 산 거야?



사실 고추 털이야 휴지에 물 묻혀서 쓱쓱 훑치면 되지. 근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얼마 전부터 털갈이를 시작했어.

숨 쉴 때마다 고양이 털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죽겠더라고. 청소기가 날 살렸다.



기능이 괜찮나 보네?



빨력이 장난이 아니야. 바닥에 버려진 건 일단 주워 먹고 본단니까? 먼지 좀 치우려고 침대 위에 청소기를 들이댔는데, 그 안으로 이불이 쑥 빨려 들어가서 빼내느라 애 좀 먹었어.



오버하긴. 업소용 진공청소기라도 산 거야?



내가 산 건 핸디형이야. 붙였다 뗄 수 있는 긴 손잡이가 있어서 허리 쪽 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침대 밑을 청소할 때도 아주 좋아.

손잡이가 길어서 침대 밑이나 장롱 밑에 쌓여 있는 먼지까지 다 잡아먹어.



편하겠대! 나도 청소기 하나 사야 하는데. 그거 불편한 점은 없어?



빨력이 대단한 대신 소음이 너무 커. 옆집에서 들으면 전쟁이라도 난 줄 알 거야. 고양이는 또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그걸 켜기만 하면 소리에 놀라서 미친 듯이 도망 다니더라. 게다가 이게 유선형이라 전선이 걸리거나 달까? 청소 한 번 하자면 정신 사나워서 돌아버릴 것 같아. 고양이를 위해서라도 청소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돌려야겠어.



고양이 핑계 대지 마. 그냥 귀찮은 거잖아.

아드벡(Ardbeg) 10년산

-  승민 선배! 책상에 웬 술이에요? 술병이 참 크고 아름답게 생겼네요.
-  이 술이 얼마 전 세부로 워크숍 떠날 때 공항 면세점 위스키 코너에서 62달러 주고 산 아드벡이라는 녀석이야. 너도 한잔 할래?
-  저는 오는 술 안 마시고, 가는 술도 붙잡는 여자예요. 응응. 근데 이거 냄새가 이상한데요? 웬! 맛도 드럽게 없네! 농약 같아요!
-  네 코랑 허가 장식으로 달린 건 아니구나.

이건 스코틀랜드 서쪽 해변의 '아일라 섬'에서 만든 아일레이 싱글 몰트 위스키다. 바다 내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짹짹한 해조류 맛'이나 '요오드 향'이 느껴지지. 너처럼 뭘 모르는 초보자는 그걸 보고 소독약 맛이 난다고 그러더라. 근데 너 혹시 농약을 마셔본 거니?

-  독한 맛이 웬지 그럴 것 같다고요! 그나저나 바다의 위스키라니, 듣고 보니까 해적들이 들고 다니는 술병처럼 생겼어요. 이 큰 걸 벌써 반병이나 비우셨네요?
-  나 아드벡 바틀이야. 5년 전, 편집장이 날 코엑스 위스키 박람회에 데려갔지. 소주든

위스키든 술맛은 다 똑같다고 믿던 내 혀에 위스키의 신세계를 열어준 게 이 아드벡이었어. 아일라 섬 위스키 중에서도 이 녀석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스모키 향이 일품이거든. 처음에 마셨을 때 '이 위스키는 혼제를 했나?' 싶을 정도였다니까?

-  이렇게 개성 강한 맛을 좋아하다니... 선배는 여자 취향뿐 아니라 미각도 참 독창적이네요.
-  사실 이렇게 강으로 마시는 것보다 해산물 안주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 아무래도 '바다의 위스키'잖나. 해산물 중에서도 나는 생굴과 아드벡의 조합을 최고로 치지. 생굴 초장에 푹 찍어서 아드벡과 함께 먹으면 굉장한디니까?



나이키 블레이저 MID PRM VNTG SUEDE

-  편집장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  새 신을 질렀거든. 누군가 내 운동화를 밟지 않는 이상, 앞으로 24시간은 쪽 행복할 것 같아.
-  예전부터 살 거라고 하신 게 이거였군요!
-  맞아. 이게 원 산삼도 아닌데, 온라인 슉을 아무리 뒤져봐도 레드 컬러로 내 사이즈 (245mm)는 없더라고. 다 포기하고 밥이나 먹으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에 갔는데, 레스모아 매장에서 이걸 딱 파는 게 아니겠어? 게다가 10%나 할인된 가격에! "유레카!"를 외치며 바로 질렀지.
-  생긴 게 뭐가 매우... 나이키해요!
-  그래서 질렀지. 이 빈티지 블레이저 모델만큼 '아 시발, 존나 나이키!!!' 하는 디자인은 없어. 그도 그럴 것이 이 모델은 1970년대에 나온 초기형

Editor's Burning Cash

농구화거든. 현란한 컬러도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레드로 선택했어. 존나 나이키스럽지?



근데 스웨이드네요? 덩지 않을까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막상 신어보니까 통풍이 심각하게 구리더라고. 때도 잘 타고.



발은 안 아픈가요? 요새 하이테크 기술로 만든 인체공학 운동화도 많잖아요!



소윤 씨는 아직 빈티지의 맛을 모르는구나. 편한 신발이야 널렸지. 이걸 다른 운동화에

비해 쿠셔닝도 좇았어야. 이 2.5cm밖에 안 되는 고무 밑창은 하도 잘 닳아서 '고무지우개'라는 악명까지 있다고, 근데 왜 이거냐고? '아 시발, 존나 나이키' 잡아.

뉴에라 스타워즈 스톤트루퍼



근데 소윤 씨, 머리에 그 하얀 덩어리는 뭐야?



저도 신상 하나 질렀어요! 뉴에라에서 스타워즈 에디션으로 내놓은 초신상

모델이죠.



난 무슨 장난감 로봇 가연인 줄 알았다.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특이한 모자도 하나쯤

갖고 싶어서 샀어요. 뉴에라 온라인 스토어 (neweracapkorea.com)에 가보니까 이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톤트루퍼구나! 나도 <스타워즈> 좋아하는데. 이걸 광택부터 디자인까지 디테일이 제법이다.



여기 안에 보시면 모자 안감으로 우주 그림을 그린 천을 덧댔더라고요. 이 하얀 점들이 제비들이 아니라 별이네요, 별! 디테일이 참 감동스럽죠?



근데 이런 걸 쓰고 다닐 수 있겠어? 길거리에 나가면 멀리서도 너만 보이겠다.



왜 가끔씩 꾸러기 같아 보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후드에 운동화 신고 머리에 이걸 얹으면 한 10년은 어려 보이지 않을까요?



글쎄... 그래도 네 얼굴이 10대라는 건 우리가 있어 보인다. 꾸러기라니... 거 참..

티타카카 플라이트 F7



안나 선배! 원래 자전거도 탔어요? 생각보다 액티브한데요?



후훗. 운동하려고 산 건 아니고, 간편한 이동 수단이 필요해서 질렀어. 내 행동 반경이 거의 연남-서교-합정을 벗어나지 않잖나. 거기엔 너무 멀고 버스를 타자니 애매한 거리가 많아서 하나 샀지.



근데 왜 이렇게 작아요? 아동용 아니에요?



소윤 씨, 자전거랑 진짜 안 친하구나. 이런 바퀴 직경이 20인치 이하인 자전거를 '미니벨로'라고 해. 민첩한 주행에 딱이고 보관하기도 좋지. 게다가 이걸 접이식이라 실내에 놓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해. 하지만 이걸 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지. 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바퀴가 큰 자전거를 타면 발끝이 땅에 안 닿아 무섭더라고. 해해.



이제 날씨도 따뜻하네, 이거 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겠네요? 도로에서 타다가 막 접어서 지하철에도 들고 들어가고!



나도 처음엔 그럴 줄 알았어. 산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 어떻게 접는 줄도 몰라.



내구성은 어떤가요? 장난감처럼 생겨서 잘 망가질 것 같아요.



내구성은 좋아. 근데 얼마 전에 자전거를 한 번 넘어뜨렸는데, 체인이 감기는 크랭크 부분이 살짝 휘는 것 같아. 이거보다 한 단계 상위 모델인 P8은 그 부분이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다던데. 이 모델은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물렁물렁해.



그럼 그 단단(!)한 놈은 제가 살게요! 우리도 사내 자전거 동아리 하나 만들까요? 퇴근하고 매일 타면 몸매가 클라라처럼 되지 않을까요?



클라라보다는 김동성이 될 것 같은데? 이걸 기어가 7단밖에 안 돼서 고속 주행 성능은

떨어지는 편이야. 얼마 전 한강에서 라이딩을 했는데, 주변의 거대한 픽시 자전거랑 경쟁하다가 허벅지 터지는 줄 알았다고. 🙄



▶ 티타카카 플라이트 F7
바이키 마포점에서
자전거+전조등&후미등
313,000원에 구매

Stuff

Woman With a Tool



큰 칼 옆에 차고 망나니가 되어보자

이 녀석을 휘두르고 다닌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다가오지 못할 거야. 물론 경찰
아저씨는 수갑을 들고 다가오겠지만.



모두가 나무를 심는 식목일에
나무를 베는 망나니가 되어보자.
먼저 옷장에서 가장 거지 같은
옷을 골라 입자. 그리고 한 손엔 막걸리를,
다른 한 손엔 우드먼스 팔 밀리터리 프리미엄
마체테(날이 넓고 무거운 칼)를 들고 가까운
산에 오르자. 사람들이 묘목을 들고 선한
미소를 지으며 나무를 심고 있을 거다. 이제
당신이 나설 차례다. 마체테를 들고 미친
듯이 나무를 베자. 큰 힘 들일 필요 없다.
이 녀석은 한방에 나뭇가지를 갈기갈기 찢는
괴력을 지녔으니까. 아마 금도끼, 은도끼
가지고 잘난 척하던 산신령도, 선녀 옷을
훌치느라 정신없던 나무꾼도 금세 다가와
어디서 얼마 주고 샀느냐고 물어볼 거다.
그럴 땐 아래를 참고할 것.
87,000원 / woodmanspal.com

더 무섭게
생긴 것도
많아



MAXIM 뽐뿌질

또 다른 24개월 할부의 서막

몸매도 최고, 성능도 최고! 서피스 2 출시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의 태블릿 PC 서피스 RT(Surface RT)보다 더 얇고 성능은 뛰어난 태블릿 PC인 서피스 2(Surface 2)를 출시한다. 윈도우 RT 8.1을 기본 운영 체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 RT를 함께 제공하며 윈도우 스토어에서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지금 서피스 2를 구매하면 OneDrive의 200GB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2년 무료 이용권을 준다. 초박형! 가늘고 얇은게 인기가 있을 수도 있구나..

500,000원 대
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korea)



조명과 오디오가 하나로! 아마하뮤직코리아 LSX-700 출시

아름다운 사운드와 은은한 빛으로 집안 분위기를 한층 밝게 해줄 아마하뮤직코리아의 LSX-700이 출시된다.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음악을 무선으로 재생할 수 있고 10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한 6개의 LED조명을 탑재했다.

DTA CONTROLLER라는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전원과 음량은 물론 이퀄라이저 설정도 가능하다. 벽이나 모서리에 제품을 설치하면 더욱 부드러운 빛과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쉘 위댄스~?

798,000원 / 아마하뮤직코리아(kr.yamaha.com)



백업이 이렇게 간편해? 씨게이트 백업 플러스 슬림 (Seagate Backup Plus Slim)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백업을 실행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백업해주는 예약 백업 기능이 가능한

외장하드 백업 플러스 슬림이 출시된다. 각종 SNS에 올린 사진과 영상도 백업을 실행해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씨게이트 모바일 백업(Seagate Mobile Backup)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와이파이를 통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도 쉽게 백업할 수 있다. 이젠 이동도 블루레이 시대. 독특한 외장하드는 필수!

500GB 79,000원, 1TB 109,000원, 2TB 219,000원
씨게이트(www.seagate.com)



소니코리아, 광학 30배 줌의 최고급 카메라 DSC-HX60V 출시

대포처럼 큰 렌즈의 줌 기능성에 뺨을 후려치는 광학 30배 줌의 하이엔드 카메라 소니 DSC-HX60V가 출시된다. 모든 방향의 흔들림을 보정하는 인텔리전트 액티브 모드가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흔들림 없는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미니어처, 토이 카메라 효과 등 13가지의 다채로운 사진 효과 기능을 이용해 매 순간을 예쁜 사진으로 남겨보자. 와이파이와 NFC(근거리 무선 통신)기능이 있어 사진을 찍고 바로 모바일 기기에 전송할 수 있다. 떡방아 찻는 달 토끼도 선명하게 찰떡 쿵떡!

519,000원 / 소니스토어(store.sony.co.kr)



레고처럼 생긴 귀여운 블루투스 스피커 미니잼 박스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쉽게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미니 잼박스가 탄생했다. 255g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미니잼 박스는 압축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좋고 디자인이 심플하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좋아하는 음악만 동기화해 들을 수 있다. 총 9개의 톡톡 튀는 디자인으로 출시되는 미니 잼박스를 사면 소리나는 레고 블록 하나를 받은 느낌이다. 이걸로 젤가 게임 해도 되겠는데?!

와르르~
230,000원 / 조본(www.jawbone.com)

Motor

CAR OF THE MONTH

BMW 220d M Sport

경마장을
누비는
2시리즈



BMW 라인업에 화룡점정을 찍은 2시리즈가 짝수 시리즈
형님들 기 살려주러 왔다! BY 박정욱



5,190만 원

SPEC CHECK	엔진 형식	배기량	연료	최대 출력	최대 토크	제로백
	I4 직분사 디젤 터보	1,995cc	디젤	184hp	38.8kg.m	7.1초



BMW가 1시리즈부터 7시리즈까지 모든 라인업을 완성했다. 마지막 미싱링크는 2시리즈가 메웠다. 작년 가을에 출시된 4시리즈가 3시리즈 쿠페의 자리를 대신했듯 2시리즈는 1시리즈 쿠페의 후속이다. 하지만 2시리즈는 디자인이나 성능에서 1시리즈 쿠페와는 판이하다. 1시리즈 쿠페가 안전한 경주마 같은 느낌이었다면, 2시리즈는 거친 야생마 같다. 국내에는 그 중에서 가장 종마 같은 녀석인 220d M 스포츠 에디션이 선행으로 출전했다. 일단 덩치가 커졌다. 길이는 72mm, 폭은 26mm 늘어났다. 커진 차체 덕분에 넓고 낮은 스포츠 쿠페의 느낌을 더했다. 주행 성능은 더 폭발적으로 변했다. 시트에 앉아 엑셀을 밟는 순간 38.8kg.m의

강력한 토크밸이 차체를 튕겨낸다. 차체의 비틀림 강성은 13% 향상돼 급회전이나 급차선 변경, 롤링 등 거친 운전 습관에도 흔들림이 적다. 220d M 스포츠 에디션의 버킷시트는 앉는 순간 허리를 조여와 차와 운전자가 도킹하는 기분이 들게 한다. 단단한 하체는 운전하는 내내 차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동급 사양의 자동차 중 유일하게 후륜구동을 적용해 와인딩에서나 직선주로를 치고 나갈 때, 스포츠 쿠페답게 날렵하다. 그러면서도 차체의 전후 무게 배분을 50:50으로 똑같이 맞춰 안정감도 놓치지 않았다. 220d M 스포츠는 타고 달리기 위한 자동차가 아니라 '타고 놀기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다. 국내 출시 가격은 5,190만 원으로 책정됐다.

경쟁 차종인 아우디 A3나 벤츠 CLA보다 다소 비싸다. 하지만 자동차를 선택할 때 제원 상의 성능이나 가격이 아닌 운전하는 즐거움 자체를 추구하는 운전자라면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게다가 독일에서는 220d 기본형이 한화로 5,300만 원 가량이지만, 국내에서는 상위 등급의 M 스포츠 에디션이 그보다 100만 원 가량 더 싸다. 소형 스포츠 쿠페로 점점 눈을 돌리고 있는 한국의 젊은 세대를 확실히 잡겠다는 심산이다. 수입 세단 시장을 주름잡는 1, 3, 5 홀수 시리즈에 비해 저조한 성적으로 자존심을 구겼던 짝수 시리즈. 과연 막내 2시리즈가 BMW 짝수 시리즈의 구겨진 체면을 세워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10 **VOLKSWAGEN SCIROCCO**



시로코 R 라이징 블루
추영일 / 35 / 부산 / 패션무역회사

내 차 애칭: 라이징
추천 드라이브 코스: 동해안 7번 국도
드림카: 포르세 911

원피스 바니스타일
구두 슈즈원
목걸이와 팔찌 모드곤



반갑다. 이번 호 독자의 차 화보는
형형색색 시로코 세 대와 함께 했다.
시로코 동호회 자랑을 한다면?

문운기(이하 '문'): 동호회 사람들 대부분 개성 있는
자동차 시로코 오너답게 디자인이나 패션에 관심이
많다. 튜닝과 드레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모여서
커피도 마신다. 각각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다
특색이 있는 사람들이다.

살사 레드 색상은 시로코 R라인이고, 나머지 두 대는
시로코 R이다. R과 R라인은 어떻게 다른가?

추영일(이하 '추'): R라인은 선루프가 있고 범퍼와
휠의 생김새가 다르다. 그리고 R은 승차감보다는
퍼포먼스 위주라 매일 타기는 힘들다. 연비도 안
좋아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시내에서
주행하면 5~7km/L 정도 나온다. R라인은 연비가
좋아서 데일리 카로도 많이 쓰인다.

독자의 애마로 화보를 찍어 추억을 선물하는 화제의 코너 <독자의 차> 프로젝트가 벌써 열 번째 화보를 찍었다. 봄도 완연하고, 10회 촬영도 자축하는 의미에서 꽃보다 화려한 형형색색 시로코 세 대를 준비했다. 시로코 오너답게 대기업 회사원에서 패션회사 사장님까지 독자도 각양각색. 그렇다면 MAXIM도 큐트와 섹시를 겸비한 미스맥심 김지예를 출동시키는 수밖에.

BY 박정욱 PHOTOGRAPH YuD MODEL 2011 MISS MAXIM 준우승자 김지예



시로코 R라인 살사 레드
이형민 / 33 / 서울 / 회사원

내 차 애칭: 빨갱이
추천 드라이브 코스: 심야시간 울림퓍대로나 강변북로
드림카: 포르쉐 911

원피스 바니스타일

김지예의
숨 막히는
뒤태



그럼 데일리 카는 어떤 차를 몰고 있나? 아마 세단을 타겠지?

문: 아우디 A6를 몰고 있다.

추: BMW 320d를 몬다.

이형민(이하 '이'): 시로코 R라인이 데일리 카다. R라인 디젤은 연비가 좋고 주행이 부드러워서 데일리 카로 탈 수 있다.

시로코R에는 살사 레드 색상이 없는데.

이: 맞다. R에는 빨간색이 없다.

추: R은 블랙, 화이트, 블루 세 가지 색상으로 나온다.

스카이 블루로 랩핑한 차는 원래 어떤 색이었나?

문: 화이트였다. 그런데 차의 성향에 비해 단조로운 느낌이라 뒤는 색상으로 랩핑하기로 했고, 스카이 블루로 선택했다. 비용은 180만 원 들었다.

다들 애마의 색상에 만족하고 있나?

추: 아무래도 폭스바겐 고성능 차량은 블루 색상이 주를 이뤄서 라이징 블루로 선택했다. 폭스바겐 고성능은 단연컨대 블루다.

이: 차를 살 때 매장에 시로코 R라인이 색깔별로 다 있었다. 레드와 네이비 중에 고민을 하다가 더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면 문 두 개짜리 빨간색 자동차는 평생 못 탈 것 같아서 바로 질렀다.

Motor

This is My Car



시로코 R 스카이 블루(랩핑)
문윤기 / 37 / 울산 / 도매업

내 차 애칭: 로공이
추천 드라이브 코스: 밀양램 와인딩 코스
드림카: 알파로메오 4C

원피스 바니스타일
구두 슈즈원
팔찌 모드콘

문: 자동차는 남자의 장난감이다. 장난감을 갖고 노는 동심의 마음으로 자동차를 타고 싶어서 스카이 블루로 선택했다.

왜 시로코를 구매하게 됐나?

문: 처음엔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좋아 로터스 엘리스를 사려고 했는데, 막상 타보니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로코는 완성도가 높고, 로터스에 가까운 카트의 느낌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디자인도 너무 예쁘다.

이: 데일리 카로 쓰려고 디젤 자동차를 찾았다. 골프 GTD와 골프 카브리올레를 두고 고민하다가 골프 GTD를 시승하러 갔다. 그런데 직원이 시승차가 없다며 시로코를 권해서 타봤는데, 시선이 집중되는 게 너무 기분 좋았다. 당시 바이퍼 그린 색상도 봤는데, 빨간색이 가장 눈에 들어왔다.

추: 와인딩 하려고 싶다. 그리고 가성비도 최고다.

글쎄, 가성비가 별로라는 말도 많던데.

추: 세단하고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비슷한 차종과 비교하면 어불성설이다. 시로코 R이 포르쉐 박스터S와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거의 두 배나 난다.

여자들도 시로코를 좋아하나?

문: 와이프가 먼저 시로코를 사자고 했다. 사실은 로터스 같은 스포츠 카는 다 보러 다녔는데, 아내가 시로코를 시승해보고는 그냥 꽂혀버렸다. 여자가 더 좋아한다.

시로코와 같은 가격대에 구매를 고민한 자동차는?

추: BMW 1M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런데 시로코가 훨씬 잘생겼다.

이: BMW 120D와 골프 GTD, 그리고 골프 카브리올레를 두고 고민했다.

문: 원래 토요타 86, 아니면 아우디 TTS를 사려고 했었다.

시로코의 라이벌이 있다면?

추,문: 아우디 TTS 정도는 돼야겠지? 그래도 역시 시로코가 더 낫다.

시로코는 어떤 사람을 위한 자동차인가?

추: 싱글을 위한 자동차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싱글 남자에게 제일 어울린다.

문: 시로코는 애완동물 같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은 외로운 남자의 자동차다.

이: R라인은 연비가 좋아서 실용적인 운전자에게 어울린다.

너무 칭찬만 한 것 같다. 시로코에 대한 불만은 없나?

추: 시트가 너무 높다. 시트가 조금만 더 낮았으면 스포츠 감성이 더 풍겼을 것 같다.

이: 아주 만족한다. 출퇴근만 기다린다.

시로코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나?

문: 차가 예쁘니까 차 안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으면 젊은 여성들이 기웃기웃 거린다. 차와 어울리지 않는 중년의 남자가 그 안에 있으면 자동차에게 민폐일까봐 몸을 숨기게 되더라. 젊을 때 타고 싶었는데... 불혹을 앞둔 나이가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더라.

이: 차 구매하고 정확히 13일 만에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어떤 차가 박았다. 역시 시로코 엉덩이는 키스하고 싶은 엉덩이인가 보다. 내리는데 몸 아픈 것보다 차 걱정이 먼저 되더라.

추: 천안대에서 와인딩 하다가 뒷바퀴에 쇠가 박혀 사고가 났다. 수리 견적이 1,700만 원 정도 나왔다. 밀양에서 부산까지 차를 견인해서 오는데, 한 마디도 안 나오더라. 와인딩 조심합니다! 🙏



원피스 바니스타일 팔찌 모드콘

맥심 스태프
항시 대기!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This is My Car**



오너드라이버 독자를 위한 특급 이벤트는 계속된다. MAXIM 화보로 당신의 애마에게 지상 최고의 호강을 시켜줘라!

“타 본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뭐예요?”

지난 5년간 수십 종의 신차를 시승해 온 MAXIM의 자동차 전문 에디터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바로 ‘내 차’입니다.

배기량, 최고속도, 마력 등... 수많은 기준을 놓고 서로 최고의 차라며 떠들어대지만 ‘내 차’라는 특별한 존재 앞에선 모두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나와 함께 울고 웃고, 수많은 추억을 담고 달리는 ‘내 차’. 심지어 나를 먹여살리는 것도 ‘내 차’ 뿐이니까. 이 화보의 주인공은 어느 자동차 잡지처럼, 자동차 회사의 신차 홍보를 위해 제공된 ‘남의 차’가 아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쉴 새 없이 달려준 바로 ‘당신의 차’다.

MISS MAXIM을 만나!

잡지roman 만났던 미스맥심을 양팔에 끼고 잊을 수 없는 기념 촬영을! 간직해 뒀다가 아들에게 보여줘라.

당신의 차를 MAXIM 화보에!

레이싱걸을 거느린 모터쇼 슈퍼카처럼! MAXIM에 영원히 남겨주마.

당신의 자동차를 전국에 뽐내라!

튜닝하고 꾸민 당신의 자동차를 자랑해라!

이게 정말 내 차 맞아?!

최고 수준의 MAXIM 포토그래퍼, 조명팀, 에디터가 당신의 차를 멋진 화보로 남긴다!

덤으로 1년 정기 구독까지!

차가 공짜 구독 혜택도 안겨준다. 당신의 애마가 실린 호가 MAXIM 정기 구독 첫 권!

응모 요령

- 당신의 자동차를 직접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차종(모델명)/ 구입연도도 적어라.
- 메일 보낼 곳:
event@maximkorea.net

당첨 확률을 높이는 Tip

- 당신 차에 얽힌 재미진 사연을 적으면 더 유리하다.
- 안전한 차보다는 당신만의 개성으로 튜닝한 차가 더 유리하다. 갓 뽐은 새 차라면 튜닝 안 해도 된다.
- 같은 차를 모는 동호회 친구가 있다면 함께 신청해도 좋다.

MAXIM
시승기
#44

NISSAN JUKE sv

 님산의 문제작 주크는 욕을 많이 먹는 차다. 욕 먹는 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붕에서 비가 새는 현기차(요새는 [홍기차]라고도 읽대?)의 수타페처럼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분노를 안겨주고 욕을 먹는 게 하나요, 주크처럼 그냥 이유없이 욕을 먹는 게 둘째다. 후자의 주크처럼 누구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최악의 차>따위에 선정되는 건 왜일까? 우리 사회에선 요즘도 노랑게 머리를 물들이고 다니면 길가의 어른산들이 욕을 한다. 주크도 똑같다. 너무 썩다. 개성이 강해 모난 돌이 거슬리면 사람들로부러 정을 맞는다. 주크가 그냥 너무 못 생겼다고 까고, 내장재가 싸보인다고 까고, 기본 옵션이 부실하다고 깠다. 하지만 신기한 건 그들 모두 애초에 주크를 살 생각이 없는 자들이다. 못 생겼다는 그 개구리가 그래도 한 달에 100대씩은 꾸준히 팔린다. 주크는 마니악한 차다. 주크의 디자인에 꽃히거나, 가격을 의심할 괴(怪)성능에 꽃히면 주위에서 사지 말라고 굿을 해도 사고야 만다. 엄마한테 등짝을 맞고 길에서 노인네들이 혀를 차도 머리를 노랑게 물들이고야 마는 것과 같다. 이 과수의 외관이 애초에 맘에 안 드냐? 그럼 굳이 눈깔 피곤하게 읽지 말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라. 엔진의 능력치보단 허영 터지는 인테리어가 중요한가? 자네도 그냥 다음 기사로 고고, 휘이~

다들 갔나? 자 이제 남은 건 저 과팩함에 이유없이 끌리거나, 200마력에 육박하는 수입 스포츠 머신을 2천만 원 대에 득템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아는 자만 남았겠군. 주크가 땡기는데 다들 구리다고 초를 쳐대서 갈등 했나? 자, 그 자들이 왜 그리 주크를 끼는지 지금부터 알려주지. 그런데 말야, 아직 남아서 이걸 읽고 있다는 건 자네도 주크의 마력에 이미 빠졌다는 얘기가. 그렇다면 이 기사를 읽을 필요도 없겠군. 어차피 넌 저 떡두꺼비를 사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 자네도 그냥 다음 기사로 넘어가. 아무도 읽지마. WORDS 유승민 손안나 김소윤 PHOTOGRAPHY YuD

MODEL 에디터 김소윤





 오마이갓 드디어 드림카를 시승했어! 예전에 이거 사고 싶어서 국내 출시 언제하냐고 닷산에 전화하고, 목 빠지게 기다리다 만 거 샀지.

 명색이 '드림'인데 너무 소박한 거 아니요? 애스턴 마틴 같은 거 멋지잖아요.

 이게 허영이 짝어갓고, 비싸야 드림카냐? 차라리 덤프트럭이나 볼보 굴삭기라고 하지? 굴삭기도 한 대에 몇 억씩 해.

 굴삭기 드림 뭐예요ㅋㅋ 드림카라는 게 그런 거죠. 현실 다 생까고 갖고 싶은 차?

 너무 아득한 드림은 오히려 감흥이 떨어져. 미란다 커 아름다우신 건 다 알지만 커한테 끌리진 않거든. 오히려 옆집 아가씨나 직장 동료가 더 으쓱한 법이지. 그래서 모델도 현실 속의 우리 소운씨한테 부탁했잖아.

 아놔, 그런 거였나요. 현실적인 한국인 체형? 괜히 한 것 같애.

 야, 그게 어디가 현실적인 한국인 체형이야! 사람 허리가 왜 저래. 병 아니야?

 그러게. 왜 1년이나 숨기고 있었어? 그것도 모르고 너 같잖잖아. 죽고 싶냐?

 회사에 훈남이라도 하나 들이고 그런 소릴 해요. 동기 부여가 안 되잖아요. 됐고, 그럼 안나 선배 드림카는 뭔데요?

 나도 그닥 허황된 거 꿈꾸진 않아.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남자야? 그거 타고 멩기면서 뭐 발견할라고? 어린 게 취향 존나 올드하네.

 그래도 이렇게 두꺼비같은 드림카보단 낫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개성 터지네. 웨더링 지붕만 보면 완전 스포츠 쿠페같아. 그래도 난 디스커버리.

 애가 이렇게 성격 마냥 모난 걸 좋아해. 야, 그건 애 셋 정도 까면 타고, 너같이 팽팡할 땐 요렇게 아담한 CUV가 딱 이빠 임마.

 저 시승 토크는 이번 달에 처음 합류하는 거라 주크에 대해 사전 조사 꼼꼼하게 하고 왔어요.

구두 슈즈원

황스개구리
시승 영상



Motor GirlTalk



「2,890 만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차에 대한 비난이 많은 거죠? 일본 차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SK엔카에서 한 5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쿠가 '최악의 신차' 1위로 꼽혔대요.



중고차 사이트잖아. 중고생이 500명한테 설문 돌려서 뭘 알아? 거기서는 무조건 중고매매가가 덜 떨어지는 차가 왔어야. 최고의 차 1위는 뭔데? 설마 '무난한 은색차 2.0'이냐?



우리나라 사람들 자동차 취향 보수적인 거야 알아주잖아요. 주쿠가 해외에선 70만 대 가까이 팔아치운 닛산의 글로벌 히트작인데, 한국에서만 이래요.



튀는 차의 무덤이죠. 전에 외국인 친구가 놀러왔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무채색 차를 타면 헤택이 있는 거냐"고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길에 차가 거의 다 흰색, 회색, 검정 밖에 안 보여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러고보니 이 차 사진 폐북에 찍어서 올렸을 때, '뭣 생겨서 싫다'던 애들은 다 은행원, 공무원, 회사원들이었네요. 우리 주변에 포토그래퍼, 모델, 디자이너나 광고하는 사람들은 다 이쁘다고 난리였거든요.



내가 봐도 이 차 타는 남자는 웬지 살짝 수염 기르고 크리에이티브한 일 할 것 같은 이미지에요.



아하, 선호도가 그렇게 나누는구나? 나도 인터넷 좀 뒤져봤는데 일간지 기자들은 이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독설을 퍼부어 놨더군요. '이방인, 별에서 온 디자인, 요다를 닮은' 등...



리뷰라는 게 객관적인 척 해도 다 쓰는 사람 개인 취향일 뿐이니까요. 선배처럼 주쿠 시려는 사람은 그런 평가에 영향 안 받겠네요. 바로 그 디자인에 반한 거니까.



주쿠는 전에 빨간색도 봤지만 이 색깔도 참 좋아요. 파란색이랑 회색을 섞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파이트 블루'라는 색상이래요.



그래파이트 블루? 이름 안에 '그레이'도 있고 '블루'도 있네. 그레이틱한 블루라는 뜻인가? ...농담이죠? 'Graphite'는 '흑연'이잖아요.



알아. 시끄러워.



그런데 외국에서는 벌써 주쿠 새 디자인이 나왔나봐요? 얼마 전에 열린 제네바 모터쇼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했는대요?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어디가 어떻게 바뀐거야?



티나게 바뀐 건 헤드램프네. 닛산 350Z가 370Z로 넘어오면서 일자로 뻗어있던 눈같이 두 갈래로 찢겼잖아요? 쌍꺼풀 한 것 마냥. 그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패밀러 룩인가?



엄밀히 말하면 같은 디자인의 헤드램프는 아니야. 헤드램프처럼 생긴 저 뼈죽한 눈같이 사실은 방향지시등이거든. 그 밑에 안개등처럼 생긴 동그란 라이트 있지? 그게 헤드램프야.



정말요? 대박. 나는 또 웬 안개등이 이렇게 큰가 했네. 그리고 보니 진짜 안개등은 그 밑에 조그맣게 있구나. 이런 디자인은 정말 처음 봐요.



어쨌거나 같은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건 닛산의 라인업 안에서 주쿠가 가진 DNA가 370Z와 통한다는 의미겠지.



370Z는 어마무시한 스포츠카잖아요? 왜 하필 소형차인 주쿠랑 같은 눈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닛산에 다른 차도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주쿠가 기본형만 출시돼서 그렇지 해외엔 4륜구동 주쿠도 있고, 고성능

모델인 주쿠 니스모RS도 있어. 한 마디로 주쿠의 정체성은 존나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한 머신인 거야. 닛산에서 가장 공격적인 디자인의 두 차가 370Z와 주쿠라는데 설마 우연이겠어?



그런가? 안 그래도 아까 선배가 좀 밟을 때 150, 160km/h 쪽쪽 올라가는 거 보고 기대 이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너에도 꽤나 빠르게 진입했는데 차체가 날렵하게 돌아가고, 이거 대체 몇 마력이에요?



놀라지 마라. 이게 190마력이다. 고성능 모델인 니스모RS는 무려 218마력이라.



에에? 190마력? 이게 배기량이 몇인데요?



울지, 안나가 이제 뭘 좀 아네. 한 2,000cc 되나 했지? 놀라운 건 배기량이 1,600cc밖에 안된다는 거야.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여기 탑재된 기술인 직분사 터보 차저인데... 복잡한 얘기는



어려우니 치우고, 쉽게 말해서 주쿠에 박혀있는 엔진이 겁나 좋은 거다 이 말이야.



배기량이 높지 않으니 연비도 괜찮겠네요. 주쿠랑 경쟁 관계인 차는 뭐예요?



경쟁 차중이라... 내가 보기엔 제대로 콘셉트가 겹치는 라이벌은 없어. 다른 브랜드에는 이런



2015 주쿠 성형 후

포지션의 차가 없거든. CUV 중에 이렇게 튼튼 디자인도 없거나, 명색이 소형차인데 그 중에 이렇게 빠른 녀석은 더더욱 없고.



가격 면에서도 그렇네요. 쥬크 외에 국내에서 판매 중인 2천만 원대 수입차가 딱 10가지 있는데 **닛산 큐브, 스마트 포투, 시트로엥DS3, 포드 포커스, 폭스바겐 폴로, 푸조208, 토요타 코롤라, 피아트500, 혼다 시빅, 인사이트**, 그 중 가장 출력이 높은 게 꼭해야 혼다의 142마력짜리 시빅일 걸요?



그런데도 연비는 쥬크랑 거의 비슷해요. 차 값도 1백만 원 밖에 차이 안나고.



닛산이 쥬크를 세계에 65만 대 넘게 팔아치울 수 있었던 건, 이 폭발적인 190마력짜리 머신에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을 부여했기 때문이야. 원가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하진 않다' 싶은 편의 사양은 최대한 뺐지. 그렇게 해서 2,690만 원(쥬크S), 2,890만 원(쥬크SV)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가격을 낮추고 나니, 원래 쥬크보다 저렴했던 국산차들이 붙어보자고 덩비겠군요?



그렇지. 같은 소형 SUV라는 이유만으로 자꾸 쉐보레 트렉스(140마력)나 QM3(90마력)를 경쟁모델이라고 갖다 붙이는 데... 좀 어거지인 것 같아. QM3는 출력이 쥬크의 반도 안되네. 라이벌이거니와 차이가 너무 크잖아!



언론은 항상 뭔가 대결 구도를 만들길 좋아하니까요. 그게 없으면 왠지 허전하가 봐.



쥬크 입장에서 트렉스, QM3랑 라이벌이라고 하면 가오는 상하겠지만 하지만 뭐 어때? 더 좋은 차니까 다 발라버리면 되겠네! 나라도 트렉스 안 사고 쥬크 사겠다.



그런데... 안 팔리잖아요. 왜 안 팔리지? 진짜 못 생겼다고 안 사나? 난 귀엽기만 한데.



어떻게 체중(가격) 감량을 해서 한 체급 아래로 내려왔으니 손쉽게 짱을 먹을 줄 알았는데! '내장재가 고급스럽질 않네, 편의 사양이 실망스럽네'하며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또 허영이 짝잡아요. 아중마들은 엔진 성능보다 천원 가족 시트가 더 중요하단가요?



뭐가 그리 많이 빠질걸래? 앗, 선바이저 거울 볼 때 화장 조명 안 켜지네요? 여자는 차 안에서 화장 고칠 때 그거 좀 중요하네.



남자 만날 때 화장을 집에서 쳐 하고 나오면 되지 뭘 차에서 또 해? 또 똥 만나러 가려는 거 아냐. 시발 그딴 건 이어도 뜯어버려야겠네.



이거 전동 시트 아니네요? 시트 앞뒤로 움직이거나 뒤로 누울 때 수동으로 해야 해?



야, 필요 없어. 까져갖고, 뭘 차에서 자꾸 누울라 그래? 어차피 누울 일 생기면 남자가 번개같이 제끼니까 걱정 마. 전동 시트보다 더 빨라.



사이드 미러도 손으로 접어야 하고, 그 안에 열선도 없고, 갑자기 어두운 터널 들어갈 때 헤드 램프도 자동으로 안 켜져요? 설마 빗물 감지 와이퍼도 없고?



그냥 와이퍼 직접 켜면 되지. 야, 그런 것들이 전부 가격 거품이야. 손으로 직접 하는데 1초도 안 걸려. 원터치 방향지시등도 없는데 하나도 안 불편하구만. 손 병신도 아닌데 그게 왜 필요해?



하긴, 그런 거 다 달려있으면 쥬크같은 차가 2천만 원대로 내려올 수 없겠지.



허세 아이템은 빼졌지만 안전을 위한 옵션은 포기 안했다? 차값을 낮추려고 열선 시트도 빼버린 녀석이 내장 내비, 후방 카메라에, 에어백은 사이드와 커튼 에어백까지 풀 장착되어 있고, 내가 진짜 놀란 건, 요 작은 차체 속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하나 품고 있더라니까?



그런 점은 믿음직스럽네요. 화장거울 조명을 빼고 대신 에어백을 하나 더 박아 놓는 게 반대의 경우보다 당연히 낫겠네요.



잠깐만요, 열선 시트도 없다고요? 겨울에



그건 좀 괴로울 것 같은데... 덜덜덜 추워야 겨울이지. 하지만 타이어 공기압 체크 기능이나 전방 센서가 없다는 건 좀 아쉽다.



그런데 그거 얼마 안 해. 돈 내고 따로 달면 돼.



스피커도 음질이 좀 구려요. 그리고 방음이 별로 좋지 않은 차라서 그런지 오디오에 속도감응형 볼륨 자동 조절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완전 지 맘대로요. 차가 가만히 서있는데도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고장인가?



저처럼 자동차의 기계적인 성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소소한 편의사양의 유무에 따른 격차가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겠어요.

SPEC CHECK

배기량
1,618cc

엔진
직렬 4기통
직분사 터보

연료 취탈유

복합 연비
12.1km/L

최대 출력
190마력

승차 인원
5인승

구동 방식
앞바퀴 굴림

변속
CVT

최대 토크
24.5kg.m

차체 길이
4,135mm



Motor Girl Talk



그건 그래. 좋은 차에서 거품 좀 빠르다 이젠 빈티 난다고 욕을 먹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군. 날씬한 여자 좋대서 살 뺐더니, 칭찬은 커녕 가슴 작아졌다고 구박 받는 시추에이션... 내 생각엔 이런 거 다 달아주고, 인테리어도 좀 고급스럽게 해서 3천 중반대로 팔면 더 잘 팔리지 않을까요? 우리 나라는 비싼 차가 더 잘 팔린다잖아요.

알아서 하겠지. 시승 소감 말하랬더니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네?

볼수록 이 차가 점점 맘에 들다 보니 안타깝게서 그래요. 지금까지 '일본차'하면 웬지 고지식하고 공무원스러운 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 토요타나 혼다가 특히 더. 일본의 조직 문화 자체가 엄청 보수적이거든. 요새는 국산도 꽤 파격적으로 디자인하는데 어쩔 땐 일본차가 더 국산차 같아. "회. 사. 원." 이런 느낌.

그런데 말야, 닛산의 차들을 곰씹어보면 다른 브랜드랑 철학이 좀 다른 것 같아. 일본차 답지 않게 좀 엉뚱하고 실험적이라고나 할까?

쥬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사위처럼 생긴 박스형 경차 '큐브'도 닛산 차잖아. 처음 길에서 큐브 보이면 다들 신기해 했지. 그걸 기아가 벨름 베껴서 만든 게 '레이고'.

또 있죠. 아까 얘기 나온 370Z요. 작년에 시승기 쓰신 거 기억나요. 시대착오적일 만큼 아날로그 감성으로 똘똘 뭉친, 그래서 더 매력적인 클래식 스포츠카 'Z시리즈'는 거의 닛산의 상징이죠.

한 때 대히트였던 '무라노'도 엄청 과격하게 생겼죠. 도심형 SUV가 그렇게 공격적인 디자인을 하고 나올 수 있단니. 여우? 늑대? 중세 갑옷? 위화감은 심하게 드는데 중독성 있어요.

맞아. 쥬크, 큐브, Z, 무라노 모두 과격하지. 서로 전혀 닮지도 않았어. 각자 지 멋대로야. 그거 알아? 두껍 열리는 무라노도 있어. 엄청 이상한데 멋있어.

웃기게 생겼다. 전 무라노의 전면 얼굴을 볼 때마다 이게 생각나요. 무라노랑 닮지 않았어요?

전기차 '리프'도 닛산 차였네? 유럽 가면 모든 경찰차, 관공서 차는 썩 다 리프라던데.

전기차 연구를 60년 전부터 했다. 그리고 닛산에서 미국식 픽업트럭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 아냐, 이 회사 진짜 엉뚱하다ㅋㅋㅋ

그리고 일본차 브랜드 중에 유일하게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닛산이지. 최고의 슈퍼카로 치는 페라리나 벤틀리가 궁극의 사치품이라면, GTR은 그 사치품보다 무조건 빠르게 달리는 '괴물 기계'같은 느낌이야.

GTR? 그게 페라리나 벤틀리보다 더 빨라요?

유튜브에 영상 많아. 자기보다 몇 배 비싼 유럽 슈퍼카랑 1대1로 직선 경주를 하는데, GTR이 거의 다 이겨. 람보르기니나 부가티도 깨고, 심지어 전투기랑 경주해서 이기는 영상도 있어.



그럼 닛산 GTR이 최고의 슈퍼카 아님?

그거 이긴다고 최고의 차가 되는 건 아니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같은 슈퍼카는 빠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인류의 로망이자 부의 상징이니까. 그냥 도장 깨기 같은 거라고나 할까?

음, 닛산이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차는 아닐지라도, 기계적인 성능에 있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는 우리라는 자부심의 표현이군요. 닛산이라는 자동차 브랜드, 되게 재미있는 회사 같아요.

벤틀리 반 값이지만 벤틀리를 이기는 GTR이나, 포르쉐 반 값이지만 포르쉐에 덤비는 370Z이나, 닛산은 무슨 강자를 찾아 떠돌며 맞짱 뜨는 미야모토 무사시같아 "나, 니 반 값 밖에 안되는데 맞짱 한 번 떠볼래?"

그거 보면 닛산은 차를 비싸게 안 파는 거네요?

그런 셈이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쥬크의 가격도 마찬가지로야. 4천, 5천씩 하는 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어차피 살 생각도 없으면서 쥬크가 못 생겼다고 퐁 뿌리는 사람이나, 편의 사양이 구리다고 하는 사람이나 쥬크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지. 수려한 자태에 럭셔리한 내장이 그렇게 좋으면 가서 돈 주고 인피니티 사라 이 말이야. 어차피 쥬크의 진가를 아는 사람, 쥬크의 개성에 반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사게 되어 있거든.

명물 막걸리 집에 와서 사도 와인인 없다고, 투덜대지 마라? ☹️



나비 / 봉만대 129th 2014. 02



정인영 / 노라조 128th 2014. 01



강예빈 / 이현도 127th 2013. 12



스파카 126th 2013. 11



메다 왓다 퍼스 126th 2013. 11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 친격의거인 125th 2013. 10



Life Guard Special 124th 2013. 09



서유리 123th 2013. 08



공서영 122th 2013. 07



비키 121th 2013. 06



엘리사 컷스버트 120th 2013. 05



사유리 119th 2013. 04



나인뮤지스 손성아 118th 2013. 03



곽현화 117th 2013. 02



아리아나 그랜드 116th 2013. 01



박지민 115th 2012. 12



바 레파엘리 114th 2012. 11



113th 특별 한정판 MISS MAXIM 4강 B컷 모음집



강예빈 112th 2012. 10



아리아나 그랜드 111th 2012. 09



밀린 애쉬먼 110th 2012. 08



이상선 109th 2012. 07



에이드리언 블라키 108th 2012. 06



MAXIM EDITOR 107th 2012. 05



달사렛 자을 / 달사렛 이영 106th 2012. 04



나인뮤지스 세라 105th 2012. 03



애비 엘리엇 104th 2012. 02



라니아 티에 103th 2012. 01



카메론 디아즈 102th 2011. 12



제시카 고메즈 101th 2011. 11



100호 특집 100th 2011. 10



메이비 99th 2011. 09



로지 헨링턴 윌러 98th 2011. 08



나르샤 97th 2011. 07



미셸 트라너버그 96th 2011. 06



걸스데이 유라 / 걸스데이 민아 95th 2011. 05



차유람 94th 2011. 04



에이브릴 라빈 93th 2011. 03



김민아 / 송지선 92th 2011. 02



이슬아 91th 2011. 01



VNT 유미 90th 2010. 12



안나 쿠르니코바 89th 2010. 11



린제이 로만 88th 2010. 10



켈리 브룩 87th 2010. 09



나티샤 알람 86th 2010. 08



셀리아 이벡스 85th 2010. 07



칼리 쿠우크 83th 2010. 05

* 흑백처리된 커버의 월호는 품절을 의미합니다.

→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 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할 수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챙취하시길!
 *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MAXIM
 과월호
 충알 배송!
 (충알을 드리진 않아요.)



조현영 / 이영도 130th 2014. 03

하절색 신의칼



보일랑
말랑 애간장
태우네!





한국 팬들에게 '대만 신세경'으로
불리며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린
청순 미녀 **천쓰잉**이 드디어 MAXIM
과 만났다. 팜므파탈 자객으로 변신한
그녀의 치명적인 매력에 당신도
곧 무릎을 꿇고 행복하게 될 거다.

BY 손안나 PHOTOGRAPH YuD LAYOUT 이상윤

신의칼



귀걸이 러뷰카타



반갑다! MAXIM과 함께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원래 사진 찍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MAXIM 포토그래퍼분과 스태프들 모두 전문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웃음)

'대만 신세경', '소니걸' 등으로 화제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지?

처음엔 좀 놀랐어요.(웃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든 한국 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천쓰잉'이라는 본명보다 다른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 섭섭하진 않나?

'소니걸', '소니걸'이라는 별명은 처음 유명해지면서 얻은 별명이예요. 아직은 이르지만 나중에는 다른 닉네임으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연기자 천쓰잉' 이라든가.(웃음) 물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당신을 알아보고 들이대는 남자는 없었나? 전혀 없었어요. 거리에 정말 예쁜 한국 여자 분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평범 그 자체인걸요?

갑작스레 관심을 받으면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아침마다 조깅하는 걸 좋아해요. 특기라고 해야 하나? 꽤 오랫동안 달릴 수 있어요. 마라톤까지는 아니지만요.(웃음)

'신세경 닮은 꼴'로 알려져 있다. '솔직히 내가 신세경보다 이걸 낫다' 싶은 게 있다면?

절대 없어요! 궁금해서 몇 번 찾아 봤는데 정말 매력적인 배우더군요. 예쁜 데다 연기도 잘하고요. 그분에게 배울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신체 부위 중 가장 자신있는 부위를 꼽자면?

M자로 다물어진 입술요, 많은 사람들이 제 입술을 보고 무척 귀엽다고 칭찬해주시곤 해요.

34-24-32의 완벽한 신체 비율을 갖췄다고 들었다. 비결이 있다면? 아니면 혹시 그냥 유전인가?

꾸준히 운동하고 항상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너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게 말이죠.

하루 중 자신이 가장 섹시하다고 느낄 때는?

샤워를 하고 나서 머리가 젖어 있을 때?(웃음)

이상형은 어떤 남자인가?

쾌활한 성격에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요, 책임감도 강했으면 좋겠어요.

남자의 성격, 돈,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책임감 있는 성격?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가할 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녀요. 아, 그리고 가끔씩 온라인 게임도 하지요!

가장 재미있게 해본 게임 몇 가지만 꼽는다면?

좀비가 나오는 <레지던트 이블>을 재미있게 했어요. 온라인 게임 중에서는 대만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신의 칼>을 플레이했죠. 한국에서는 4월 17일부터 오픈 예정이예요. 제가 모델로 등장해요!

<신의 칼> 같은 무협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무협이라는 장르 특성상 액션의 표현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신의칼



귀걸이 모드곤
팔찌 리뷰카타
슬리브 팬츠 라장 by AP

신의칼

무협 영화 속 미녀는 현대 미녀와 비교해 어떤 차별화된 섹시함이 있다고 생각하나?
현대의 아름다움은 드러나는 외모에 있지만, 무협 영화 속 미녀의 섹시함은 그들의 내면에 있지요.

무협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가?

나뭇잎을 타고 지붕 위를 날아다니거나 경공술을 이용해 벽과 벽 사이를 넘나드는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요. 멋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지 않나요?

이번 MAXIM 화보로 인기가 치솟아서 한국 드라마에 출연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떤 남자 배우와 함께하고 싶나?

그전에 먼저 한국말을 배워야 할 것 같네요. (웃음) 개인적으로는 한국 배우 이민호 씨의 팬입니다. 껌

당신의 SNS 활동이 공개되면서 팔로워가 많이 생겼다.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

특별히 누구 한 사람이 기억에 남는 건 아니구요. 제가 출연한 단막극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나요)가 방송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게임, 전자 제품 광고는 찍어 봤으니 이제 앞으로 어떤 광고의 모델을 하고 싶나?

여자라면 뭐니 뭐니해도 화장품 광고가 아닐까요? 게다가 저는 한국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품질은 좋고, 가격도 엄청 합리적이에요(웃음)

끝으로 당신을 보느라 인터뷰 내용은 눈에도 안 들어올 MAXIM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안녕하세요! MAXIM 독자 여러분, 이번 기회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저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저는 웃는 것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도 저의 미소로 함께 기분이 좋아지길 바라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



구두 슈즈원
원피스 에스핏
귀걸이 러뷰카타

신의칼

“

M자로 다물어진
입술이 내 매력포인트다.

”



WORDS 조용재 HAIR 이도우 MAKEUP 황모류 VIDEO 김상수 ASSISTANT 김소은 김민준 이슬기

슬리브와 가운 라장 by AP

신의칼

“

샤워를 하고 나서 머리가
젖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섹시하게 느껴진다.

”

구두 슈즈원
귀걸이 모드콘
팔찌 모드콘

신의칼



천쓰잉
陳思穎

국적: 대만

별명: 대만 신세경, 소니녀

신체 사이즈: 160cm, 45kg

좋아하는 스포츠: 농구

ICON

열혈남아

熱血男兒 이윤석



국민 악골,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리는 그는 사실 누구보다 뜨거운 피를 가진 상남자였다.

BY 조용재 PHOTOGRAPH Zho



상남자 콘셉트가 이렇게나 잘 어울릴 줄은 몰랐다. 소감은 어떤가?

아주 짧은 경험이었지만 내 안의 다른 모습을 만난 느낌이다. 사실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다. 솔직히 말하면 미녀들 때문에...



아까 보니까 함께 촬영한 두 미스맥심 모델들 사이에서 침을 흘리는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랬던 것 같다.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 '윤석아! 이것은 네 인생에서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면서 말이다. 아쉽게도 안경을 안 써서 제대로 못 봤다. 보면서 촬영했어야 뭔가 확 오는 게 있었을 텐데.

오늘 콘셉트는 당신 취향에 최대한 맞춰봤다. 헤비메탈을 좋아한다면?

그렇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처럼 잘 사귀는 애들은 밴드를 했거든. 우리 바로 다음 세대에서는 중앙 현관에서 추는 힙합 댄스가 유행이었는데, 우리 댄 록 음악 하는 애들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헤비메탈을 접한 계기가 결국은 여자 때문이라는 건가? 건강한 남자로군.

사실 여자들을 꼬시고 싶은 마음에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난 음악만 들으면 인기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아...

지금이라도 음악을 해볼 생각은 없나?

노래 실력이 받쳐준다면 꼭 해보고 싶다. 기타도 배우긴 했는데 교통사고 후에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코드가 잡히지 않는다. 지미 헨드릭스처럼 오른손으로 배워야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었고, 아마 악기도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국민 악골'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 거부감이 전혀 없었나?

나름대로 리얼리티 쇼 사상 최초의 악골 캐릭터는 자부심이 있다. 김태원 형님도 내 후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강공치라든지 한민권이라든지 악골 캐릭터를 이어가는 후배들도 있잖은가.

의상 바이더얼
목걸이 킹크로치



미공개
인터뷰 보러
가기!



아내가 한의사다. 국민 약과 미녀 한의사의 만남이라니, 너무 절묘하다!

결혼하자마자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보약을 먹고 있다. 사실 그전에는 류머티즘약, 소염제, 위장약, 탈모약까지 양약을 열 가지 이상 꼬박꼬박 먹었는데, 지금은 한약 덕분에 다 끊었다.

예전에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정말 그렇게 다병(多病)했나?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감기에 걸리면 기본 3개월은 앓았고, 3개월에 한 번씩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고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1년 넘게 증상이 없다. 조금씩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낀다. 하지만 위장염이랑 탈모 쪽은 개선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남자의 자격>에서 몸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화보도 찍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

그것도 요요 현상이 있더라고. 열심히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할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평소엔 관리를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좀 오래 쉬었더니 지금은 근육이 없다. 소변으로 배출된 모양이다.

근육을 소변으로 뺀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그럼 아예 당시 근육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가? 나도 대체 애써 만들어 놓은 근육이 죄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아마 유골이나 화석 발굴하듯 솔로 샬살 쳐내면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

당신과 서경석은 콤플렉스 섭외하려 했는데 서경석이 너무 바빠서 할 수 없었다.

아니 개는 내가 분명 군대를 한 번 보낸 것 같은데, 또 군대에 들어갔더라. 가끔 연락하면 또 군대에 있다고 하고, 그래서 옛날만큼 자주 보지는 못한다.

<진짜 사나이>에 합류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

당연히 있지. 근데 나이도 비슷하고 캐릭터도 경석이와 많이 겹치지 않을까 싶다. 나중에 면회나 가려고 생각 중이다.

서경석은 어떤 친구인가?

우리집이 2남 2녀인데, 경석이 때문에 3남 2녀라고 생각할 정도로 든든한 친구다. 나보다 생각이 깊고 진중해서 내가 일을 저지르면 항상 뒤에서 마ური해주는 그런 친구다.

어라, 의외다. 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반대로 당신이 수습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경석이는 엄마 같은 친구랄까? 예컨대 내가 새벽 네 시까지 술을 먹으면 챙겨서 집에 보내 주고, 혹시 내가 사고라도 치면 조용히 뒤에서 수습해 준다. 집에서 밥도 해 주고 과일도 꺾어 주고... 의외로 곰살맞은 면이 있는 친구다.

형제 같은 친구라 했는데, 만약 아내와 서경석이 물에 빠지면 두 사람 중 누구를 구할텐가?

혹시 오해할까 봐 말해두는 건데, 경석이는 수영을 못하고 아내의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그게 리얼 상황이면 당연히 경석을 구해야겠지.

만약 당신 아내가 수영을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잔인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좋은 곳으로 보내주려다(웃음). 아, 물론 나도 물에 뛰어들어야겠지?

많은 사람들이 '규라인'을 떠났지만, 끝까지 남아 있는 의리의 아이콘이 됐다. 솔직히 거기 남아서 좋게 더 있나?

일단 내가 잘 버티고 잘 참는 성격이라 가능한 거다. 경규 형님이 몇 번만 참아드리면 또 아이처럼 해맑은 모습이 있는 분이거든. 그래서 최소한 '등에 칼을 꼽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 사실 나도 모르게 칼을 갈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러면 안 돼!' 라면서 속으로 마음을 다잡곤 한다.



그때 만든 근육? 이제 없다. 소변으로 배출된 모양이다.



그렇게 오래 이경규를 따르고 있으면 규라인의 메인 멤버 중 한명이겠군. 희소치 자주 할 것 같다.

메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 분하고 나뉘게 없다. '규라인 희식' 있다고 하면 둘이 만나서 짜장면 먹는다.

'골수 메탈 키드'임을 방송에서 가끔 어필했다.

마니아적인 얘기를 자주 못하는 게 답답하겠다.

그런 얘기 방송에서 백날 해 봤자 통편집된다. 게다가 어필하려고 해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알 만한 노래 얘기를 해야 하니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

록 콘서트에는 자주 가는 편인가? 몸도 좋지 않은데 쉽진 않겠다.

젊었을 땐 꽤 자주 갔다. 독감에 걸려 죽기 직전이었는데, 병원에서 링거 맞고 바로 메탈리카 콘서트장에 간 적도 있다. 공연 시작 전에 오프닝 밴드가 좀 지루해서 눈을 감고 있는데, 팔에 바늘 자국이 시퍼렇게 난 채로 쓰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연예인 이윤석이 메탈리카 콘서트에서 마약에 떨어 있다!"며 구경하고 있더라고.

그럼 요즘은 공연장을 멀리 하는 편인가? 마니아로서 쉽지 않을 텐데.

물론 대안이 있다. 맘껏 분출하고 싶은 날에는 흥대의 '쓰리썸'이라는 메탈 바에 간다. 완전 개망나니 데스, 스래시, 블랙 메탈만 주야장천 틀어주거든. 거기 가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입은 애들이 우르르 모여 있다. 얼굴도 여기저기 뿔려 있고 성적인 기호도 제각각인 친구가 많지.

그런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연예인이 있나?

그나마 구라 형이 메탈까지는 아니지만 록까지는 커버해주는 편이다. 경석이는 한 번 메탈 바에 데려갔다가 의절할 뻔했다. "이런 데 가면 안 돼!"라고 하더라. 가장 '썸'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면 자신 있게 '여행을 떠나요'를 부르는 친구다.

MAXIM을 빌어 그간 방송에서 얘기 못 했던 당신 취향의 밴드를 얘기해 달라.

카르카스, 메이헴, 카니발 콤스 등등... 강남의 뮤직 바인 '핑가스 존'에서도 새벽 네 시쯤 되어야 들어주는 익스트림 메탈이다. 손님 보내기엔 더없이 좋은 음악이지.

본인은 스스로를 어떤 남자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잘 안 믿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상남자를 꼽아보라고 얘기하면 내가 항상 베스트 3 안에 들어간다. 기복이 별로 없고, 감정의 동요도 심하지 않다. 쉽게 화내거나 좋아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나중에 한 번 말로 톡 표현하는 묵직한 느낌이 있다.

몸이 약해 보여도 상남자 이미지를 낼 수 있는 당신만의 노하우가 있나?

몸은 가볍되 행동이나 말은 무겁게 하라. 일종의 반전 효과를 주는 거다. 몸이 비실비실해서 우습게 봤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있는 모습. 그래야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남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남자란 어떤 남자인가?

쉽게 변하지 않고 진득한 남자. 너무 열정적이라 피곤한 것도 아니고, 너무 차가워서 냉정한 것도 아닌 '적당한 온기를 유지하는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렇다.(웃음)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요즘 남자들은 확실히 옛날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경제 지표, 취업률, 대학 진학률을 봐도 그렇고 결혼도 힘들다. 오늘 활영처럼 독자들도 가끔은 자신을 폭발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것처럼 나에게 익스트림한 음악을 즐기는 것이 나만의 해방구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자신만의 '익스트림'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

모피 대한모피
 자켓 바이더알
 티셔츠 블라우어
 바지 스톤아일랜드
 반지와 목걸이 킥크로치
 시계 닉슨

MODEL: 2012 미스백십 조우승 영삼미, 2013 TOP 4 이현정 HAIR&MAKEUP 이현정 LAYOUT 김태은 ASSISTANT 박정옥 전수진 채보진 VIDEO 김상수

이윤석의 위태로운 순간들 그의 관찰과 빠른 개그를 안다.



in <무모한 도전>
 '소방차 vs. 양동이' (2005.11)
 무거운 산소통을 메고 림보를 하며
 애처롭게 자빠지는 몸 개그 선사.



in <무한도전>
 '태리비만의 해적' (2008.07)
 나무 다리 위에서 넘어지기 직전
 현란한 테크닉을 선보였다.



in <세바퀴>
 '몸몸몸' 특집 (2013.04)
 UFC 선수 김동현의 암바에 걸려
 갓 쓴 사람 따라갈 뻔 했다.



이윤석

출생 1972년 2월 14일
신체 키 185cm/ 체중 60kg

데뷔 1993년 MBC 개그 콘테스트
대표작 허리케인 블루, 대단한 도전,
라인업, 남자의 자격, 무모한 도전, 썰전

COOPERATION 닉스 바이 캘리퍼 플렉(02-3284-1300) 대환코퍼(02-809-7350) 바이더알(02-2233-7774) 블라우어(02-516-2778)
스튜디오원(02-3446-9949) 김크로치(www.kingkroach.com) 할리데이비슨을 사랑하는 자유인들의 모임(cafe.daum.net/harleydavidson)

Subscribe

**최대
5만 원
할인!**



정인영 아나운서의 1월호, 가수 나비의 2월호, 레인보우 조현영의 3월호까지 3개월 연속 완판이다! 이참에 정기 구독은 어때? 품질 걱정 없는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구독 중 가격 인상 없는 서비스, 푸짐한 사은품까지! 정기 구독을 신청하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떡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떡=1원)

※사은품은 한정 수량하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왼쪽 QR 코드 스캔 후 확인하세요!



3개월 정기 구독시 무료 증정

MEGA TYCOON 안경

3개월	정가 17,700원	+ MEGA TYCOON 안경
6개월	32,400원 (정가 35,400원) 3,000원 할인 + 1,000떡 적립	+ MEGA TYCOON 안경
12개월	63,800원 (정가 70,800원) 7,000원 할인 + 2,000떡 적립	+ MEGA TYCOON 안경
24개월	126,600원 (정가 141,600원) 15,000원 할인 + 4,000떡 적립	+ MEGA TYCOON 안경
36개월	182,400원 (정가 212,400원) 30,000원 할인 + 6,000떡 적립	+ MEGA TYCOON 안경
48개월	233,200원 (정가 283,200원) 50,000원 할인 + 8,000떡 적립	+ MEGA TYCOON 안경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 | | |
|--------|-------------------|
| 하나은행 | 569-910012-00904 |
| KB국민은행 | 185801-01-004866 |
| 농협 | 355-0006-4797-03 |
| 신한은행 | 100-026-074070 |
| 우리은행 | 1005-701-637646 |
| 기업은행 | 208-107032-04-013 |
| SC제일은행 | 117-20-225316 |
| 우체국 | 012559-02-079161 |

WANNA BE HER MARIONETTE? STELLAR

귀여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능염한 마리오네트가 되어 돌아온 스텔라.
걸그룹 사상 전례없는 궁극의 섹시함으로 무장하고 우리 앞에 당당히 나타났다.
요즘 가장 핫한 걸 그룹 반열에 오른 스텔라와 MAXIM의 만남이라니!
기대하시라!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심장 짹 붙들어 매는 게 좋을 걸?

BY 조웅재 WORDS 박정욱 PHOTOGRAPH Zho



효은
목걸이 모드곤
원피스 라라샵



전율
셔츠 알로곤(신용균)
필피 액세서라이즈, 모드곤
팬츠 라라샵

뮤직
비디오보다
화끈한 촬영
현장!





→ 요즘 가장 핫하다는 당신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 영광이다!
오늘 촬영은 어땠나?

효은 우아하고 섹시한 느낌이 돋보이는 촬영이었다.
잡지는 언제 나오나? 궁금해 죽겠다.

진을 지금까지 찍은 화보하고는 많이 달랐다.

효은 언니는 봉에도 매달리던데?

가영 자연스러움과 섹시함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다. MAXIM은 섹시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오늘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의상이 있나?

효은 어깨를 노출한 옷! 내가 목선이 예뻐서...(웃음)

진을 난 다 좋던데?

민희 난 시스루 옷을 입었을 때가 가장 좋았다.

신곡 '마리오네트'가 대박을 쳤다. 데뷔 이래 가장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효은 대학교 O.T. 시즌이라 요즘은 대학교 행사에
자주 간다. 물론 군부대 위문 공연도 많이 가고, 화보
촬영도 많이 했다. 얼마 전에 게임 광고도 찍었다.

지금은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졌을 것 같다.

효은 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가수 팬도 우릴
알아본다. 지인들도 "길거리에서 너네 노래 많이
나오더라"라고 얘기해주곤 한다.

민희 방송국에서 우리 앨범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덕분에 매일 CD에 사인하면서 잔다.(웃음)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걸 그룹인데, 주변에서는
반응이 어떤가?

진을 사인 받아달라고 하는 팬들이 늘어났다.

친구가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도 우리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라.

민희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해 난리가 났다고
흥분하면서 얘기하더라. 자랑하고 다니느라
정신없다며 좋아하니까, 나도 덩달아 흐뭇했다.

군부대 행사는 자주 가나? 위문 열차는 예전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진을 우리는 거의 위문 열차 홍보 대사였다.
그래서 군부대 공연을 자주 갔는데, '마리오네트'를
발표하고 나서는 딱 한 번밖에 못 갔다.

'마리오네트'를 발표한 이후로 군 장병들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겠다.

진을 장난 아니었다. 무대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스텔라'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부터 함성 소리가
폭발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였단니까. 과장이 아니다.(웃음) 그 많은 장병이
전원 기립해서 우리의 춤과 노래를 따라 했다.

평소와 다르게 앙코르 요청도 많았고.

“
어릴 때부터
성숙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다.

”

↑
진을 (전유리)

출생 1994년 3월 20일
신체 168cm, 43kg

팀에서 맡고 있는 역할 섹시
이상형 탄력 있는 몸 상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어깨
취미 음악 들으면서 낙서하기
최우명 달님이 보고 있다.
섹시함이란?
여자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의 표현.

팔찌 모드콘
셔츠 알로곤(신용균)
신발 슈즈원

HAIR 민규/순수, 향탕 셀레브리티 MAKEUP 오혜진, 헤어/스타일링/순수, 향탕 셀레브리티 VIDEO 김성수, LAYOUT 김려은, ASSISTANT 현수진, 촬영진 LOCATION Y208 스튜디오



효은 (이효은)

출생 1993년 3월 16일

신체 170cm, 48kg

팀에서 맡고 있는 역할

할머니(식성이 울드하고 체력이 약해서)

이상형 강아지 상

자신 있는 신체 부위 곱디 고운 목선

취미 영화 보기 / 맛집 찾아가기

좌우명 현재를 즐겨라

섹시함이란? 여자가 가진 최고의 무기

그동안 왜 섹시 콘셉트를 시도하지 않았나?

민희 우리랑 안 어울릴 줄 알았다. 그때는 우리 나이에 맞는 귀여운 이미지가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섹시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해봤다.

그런 도전 정신에 깊이 감사한다. 앞으로는 어떤 콘셉트를 해보고 싶은가?

전율 개인적으로는 오렌지카라멜 선배님들처럼 귀여운 콘셉트가 좋겠다.

효은 맞아 신나는 노래도 해보고 싶다. 이번 노래는 가사가 너무 슬퍼서...(웃음)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 차트 10위권 안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

효은 대기실에 있었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 놀랐다. 믿기지 않아서 언니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했다.

민희 '마리오네트'로 나오기 전에 팬분들과 팬 미팅을 하면서 방송 차트 10위 안에 들면 같이 치킨 먹자고 공약했다. 그때는 진짜로 10위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공약은 지켰나? 에디터도 치킨 좋아하는데...

민희 아직 지키지 못했다. 조만간 꼭 실행하겠다.

MAXIM에서도 공약을 해달라. 다음 후속 곡이 방송 차트 5위 안에 들면 어떡할 건가?

효은 사람이 제일 많은 명동에서 프리 허그를 하겠다

그날 우리 명동에서 보도록 하자. 멤버 모두가 섹시하지만 특별히 가장 섹시한 멤버가 있다면?

효은 막내 전율이 섹시함을 정말 잘 표현한다. 골반을 살짝만 돌려도 동작이 요염하고 섹시해진다.

막내 전율이 가장 섹시하다는 주장에 반론을 내세울 멤버 없나?

민희 멤버들 각자 다른 섹시미가 있다.

전율 가영 언니는 청순 섹시, 효은 언니는 도도 섹시, 민희 언니는 큐티 섹시다.

민희 그리고 우리 막내 전율은 섹시 섹시!(웃음)

'마리오네트' 가사처럼 미련 때문에 남자한테 이리저리 끌려 다녀본 적 있나?

가영 다 한 번씩은 있다. 내가 다 안다.

민희 절대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효은이랑 가영 언니가 약간 마리오네트 스타일이다. 난 나를 더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니까 거의 내가 끌고 다녔다.

전율 나도 날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안 좋다고 하면 나 역시 마음이 안 가는 스타일이다.

뮤직비디오가 19금 판정을 받았다. 찍고 나서 '이건 뜨겠구나' 하고 느낌이 확 왔나?

민희 우리도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 하루 전날 풀 버전을 처음 봤다. 좀 놀랐다. '내가 이렇게 찍었나?' 하고 말이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웃음)

전율 그전에 이미 검색어 1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뮤직비디오가 나왔다. 이걸 공개하면 논란이 되지 않을까 우리도 살짝 걱정했다.

무명 생활이 길었는데, 후배 걸 그룹이 치고 나왔을 땐 기분이 좀 그랬겠다.

전율 물론 다른 후배 걸 그룹보다 우리가 음반을 많이 낸 것은 아니었기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

가영 당시엔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무대가 너무 그리웠다.

가수 활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나?

효은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쉬웠다. 보여준 모습이 없는데, 여기서 그만두자니 시작한 게 아깝더라.

민희 '스텔라는 딱 이 정도'라는 생각이 굳어지는 게 싫어서 서로 다독이면서 무대에 서는 날까지 이 악물고 연습했다.

효은 그래서 이제는 늘 신인 같은 자세로 무대에 서고 있다.

혹시 소속사가 연애하는 걸 말리는 편인지?

민희 우리 소속사는 연애 좀 하라고 난리다.(웃음)

가영 오히려 우리가 연애를 안 해서 혼난다.

“
나이가 들며 섹시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

→
민희 (주민희)

출생 1993년 01월 03일
신체 168cm, 45kg

팀에서 맡고 있는 역할 귀여움
이상형 아기 늑대 같은 남자
자신 있는 신체 부위 S라인이 부각된 허리
취미 영화 보기, 쿠폰 모으기
좌우명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섹시함이란?
여자라면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것.



←
가영 (김가영)

출생 1991년 12월 02일
신체 170cm, 48kg

팀에서 맡고 있는 역할 엄마
이상형 사막여우 상
자신 있는 신체 부위 길게 뻗은 다리
취미 음악 들으면서 하늘보기 / 요리하기
최우명 현재에 충실하게
섹시함이란?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숨은 매력

안무가 좀 민망하다는 의견이 많다. 처음 안무를 봤을 때 민망하진 않았나?

민희 연습복을 입고 안무를 배울 당시엔 선정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다. 의상이랑 분위기가 섞여서 더 아하게 보인 것 같다. 사실 별로 섹시하지도 않다.

무슨 소린가! 에디터가 봤을 때는 역대 최고였다!

민희 남자들이 섹시하다고 하더라. 원래는 과감하게 만지는 모션이 더 많았다.(웃음) 우리 나이가 좀 어리니까 그나마 많이 수정한 거다.

어... 어떤 식으로 만졌나?

민희 그냥 이곳저곳을 더 만졌다.(웃음)
효은 그리고 원래 누워서 하는 안무도 많았다.

<1박 2일>에서 국악고 열창으로 이름을 날린 가영은 드라마 <스파이 명월>에도 출연했다. 연기를 하고 싶은 욕심은 없나?

가영 기회만 되면 다 하고 싶은데, 아직은 스텔라 활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효은은 바이올린과 성악을 전공한 언니들이 있다고 들었다. 가수 한다고 했을 때 집안의 반대는 없었나?

효은 집에서 엄청 반대했다. 부모님께서 성악을 시키려다가 내가 너무 싫어하니까 뮤지컬을 배우라고 하셨다. 그러던 중에 몰래 오디션을 봐서 붙으니까 그때부터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해주셨다.

민희는 한양대 무용학과에 재학 중이다. 어떤 무용을 전공하나?

민희 한국무용 전공이다. 사실 가영 언니와 중 고등학교 동문인데 스텔라에 가영 언니가 있는 줄 모르고 들어왔다.(웃음)
가영 나도 민희가 우리 회사로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멤버 중 가장 애교가 많은 멤버는 누구인가?

민희 가영 언니랑 나는 전혀 애교가 없는 스타일이고, 효은이랑 전율은 애교가 흘러 넘친다.
전율 어렸을 때부터 성숙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일부러...
효은 난 팬들 앞에만 서면 애교가 흘러 넘친다.

전율은 탈지구급 '4차원 소녀'라고 들었다.

전율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나는 내가 별나라 공주라고 믿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내가 지극히 평범한 지구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지금은 정신 차리고 지구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걸 그룹이 되고 싶은가?

민희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걸 그룹이 되고 싶다.
가영 우리는 아류가 아닌 '제1의 스텔라'가 되고 싶다. 다른 누구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색깔을 갖고 여러 가지 콘셉트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룹 말이다.

이번 앨범이 큰 사랑을 받아서 다음 앨범 준비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

가영 이번에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받아서 다음 곡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하지만 관심받은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 애정 있게 지켜봐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

COOPERATION 라라샵(070-8631-5733) 알로곤(www.alogon.com) 액세서리존(www.accessorizekorea.com)
모드콘(www.modgona.com) 비온탑(www.beontop.co.kr) 와켓(070-4334-7237) 슈즈원(02-3443-1703) Y208 스튜디오(www.y208.co.kr)

민희
구두 슈즈원

가영
구두 슈즈원
팔찌 모드콘
바디 수트와 팬츠 라라샵



TRUTH OF LIE



그녀의 거짓말을 밝혀내는 5단계 스킬. 프로이트도 말했지.
“배신은 인간의 모든 구멍에서 새어 나온다”고. BY 손안나

MAXIM REPORT TRUTH OF L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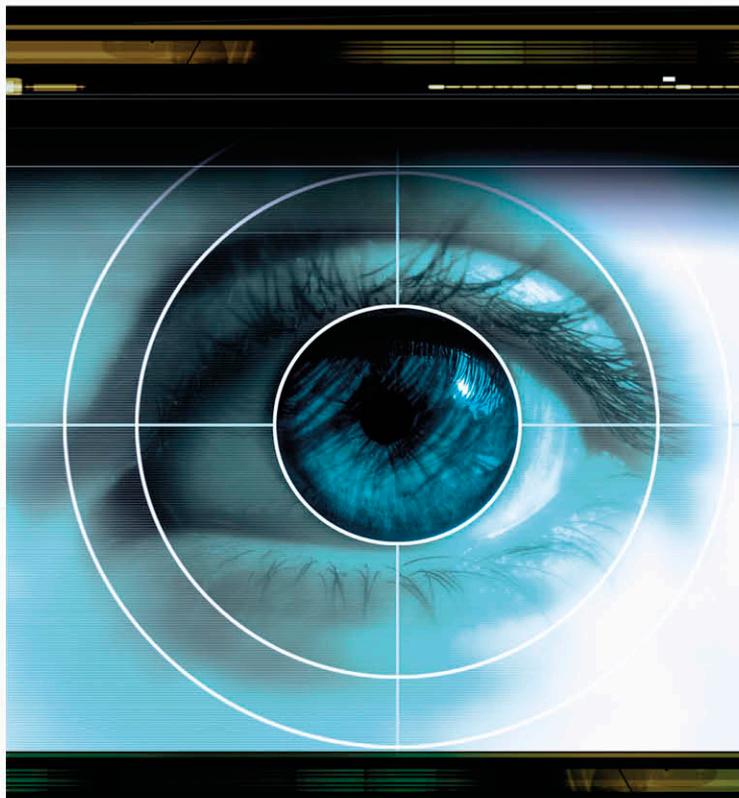
→ 당신은 상대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심리학자 찰스 본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이 시선을 피하거나 말을 더듬는 것, 무언가를 만지거나 굵고 평소보다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의 단서로 여긴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그 정도의 단서만으로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까?
《Detecting Lies and Deceit(거짓말 탐지와 속임수)》의 저자 알데르트 프레이는 “어떤 이들은 진실을 이야기할 때조차 천성적으로 부정직한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CSI》 같은 범죄 수사 드라마를 보면 극 초반에 꼭 이런 ‘천성적으로 부정직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형사들은 누가 봐도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이는 그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그냥 동네 바보일 뿐이고 범인은 따로 있다. 《타고난 거짓말쟁이들》의 저자 이언 레슬리는

“한 무리의 사람 중에서 거짓말쟁이를 찾아내야 한다면, 구석에서 웅얼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방에서 가장 유창한 사람을 뽑는 게 좋다”고 말한다. 그렇다. 범인은 바로 이런 유형이다.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말 많은 캐릭터 로저 ‘버벌’ 키티를 보라. 그는 심문 과정에서 경찰서의 계시판과 주변 풍경을 가져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내고, 수사관들은 그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다. 그가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카이저 소제일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진화론적으로, 속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그만큼 인지적·감정적·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거짓말쟁이에 맞서서 진실을 캐내기란 당연히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다. 우리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싸게 사시는 겁니다”라는 휴대폰 가게 직원의 말을 정말 믿어야 할까? “다들 훌륭해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네요”라고 말하는 면접관의 말에 희망을 품어도 될까? “선배님, 헤어스타일 바꾸니까 더 잘생겨 보여요”라고 말하는 여자 후배의 말은 빈말일까, 진실일까? 지난밤, 연락이 두절된 그녀가 “휴대폰이 꺼진 줄도 모르고 그냥 잠들었나 봐...”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간밤에 그녀에게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나?



Step 1. 눈동자의 움직임에 주목하라

우리는 상대방이 시선을 피하면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사람은 진실을 말할 때 시선을 피한다. “가만있어 보자...” 하면서 정말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기 시작하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간다. 하지만 거짓말 대답할 때는 되살릴 기억이 없다. 그 때문에 눈동자를 굴리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대부분의 유창한 거짓말쟁이는 상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거짓말을 한다. 상대에게 거짓말이 제대로 통하고 있는지 살짝 눈치를 보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라. “어젯밤 뭘 했어?” 그녀가 대답할 거다. “퇴근하고 요가 학원에 갔다가, 8시쯤 집에 와서 혼자 저녁을 먹었고, 책을 좀 읽다가 그대로 잠들었나 봐. 미안.” 만약, 그녀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보고 방언 터진 듯 술술 알리바이를 낸다면... 일단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얼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Step 2.

시간을 되짚어 보게 하라

범죄 수사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심문 기술 중에는 '거꾸로 말하기'라는 게 있다. 용의자에게 알리바이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말해보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일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꾸며낸다. 누구도 순서를 거꾸로 거짓말을 연습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짓말쟁이에게 일어난 사건을 시간을 거슬러 말해보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강한 위축감을 느끼며 버벅거리기 시작한다. 행적이 수상쩍은 그녀에게 어젯밤 자기 전에 한 일부터 거꾸로 말해보라고 하자. "자기 전에 책을 읽었고, 그러니까... 어... 8시에 잠들었는데... 어..." 그녀가 휴대폰을 꺼놓고 남자들과 술을 마신 건지, 클럽에 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8시에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 한 마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려면 일곱 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마르틴 루터- ”



Step 3.

찰나의 표정을 캐치하라

미국 드라마 <Lie to me>에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읽어내는 심리학 박사 칼 라이트만이 나온다. 박사는 테러범에게 어디에 폭탄을 설치했는지 물으면서 계속 엉뚱한 장소를 지적한다. 테러범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대방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에 안면근육이 순간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극중 라이트만 박사는 0.2초 만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이 반응을 '미세 표정(Micro Expression)' 이라고 말한다. 박사의 실제 모델인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30년간 인간의 표정에 대해 연구하며 이 '미세 표정' 분야를 개척했다. 그에 따르면, 1시간 정도만 연습하면 일반인도 잠깐 스쳐가는 이 표정을 읽어낼 수 있다. 영사기 렌즈에 셔터를 달아 사람들에게 약 50분의 1초 동안의 표정 변화 사진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그 표정을

읽어낼 수 있다.

물론, 이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다. '거짓 표정' 읽기다. '미세 표정'이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진실이라면, 거짓 표정은 그들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가면이다. 보통 오랫동안 지속되는 표정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10초 이상 지속하는 표정은 확실히 거짓이며, 5초 이상 지속하는 표정도 대개 거짓일 경우가 많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정의 표현은 몇 초 이상 얼굴에 남지 않는다. 놀란 표정은 놀란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파악하는 순간 사라진다. 그 때문에 지속 시간은 1초가 채 안 될 정도로 짧다. 이보다 더 오래간다면 그것은 놀라는 연기를 하는 경우 혹은 자신이 놀랐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일 뿐이다. 계속되는 당신의 추궁에 그녀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실망스런 표정을 짓는다. 당황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다섯을 센다. 그때까지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녀의 '실망스러움'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



TRUTH OF LIE

Step 4. 몸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계속되는 당신의 추궁에 그녀는 지금 패닉 상태다. '나를 떠보는 걸까?', '그냥 사실대로 말할까?',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어제 이 남자의 친구가 나를 보기라도 한 걸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해보지만 머릿속으로 오만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당신의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 망상이 떠다닐 거다. 하지만 아가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고 발끈하기까지 했으니 더 이상 그녀를 건드려선 안 된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자. 혹시 그녀가 컷볼을 만지거나, 이마에 손을 얹는다가나, 양손을 맞잡거나 손끝을 만지작거리지는 않는가? 사람의 몸은 위협을 느끼면 주요 신체 기관이나 근육에 혈액을 더 공급해 우리로 하여금 더 빠르게 달리고 더 높이 뛰고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혈액은

순간적으로 혈액 공급을 낮춰도 생명이 크게 지장이 없을 만한 부분에서 온다. 얼굴 표면이나 귀, 신체의 끝 부분 말이다. 이 부분에서 피가 갑자기 빠져나가면 모세혈관이 자극을 받아 한기나 가려움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부위로 손을 가져가거나 긁적거리게 된다. "그런 게 아니야. 오빠는 다 네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초조해하는 그녀의 손을 살포시 잡아보라.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짓말쟁이더라도 긴장을 하면 차가워지는 손은 감출 수 없다. 이것은 고전적인 신체적 도피 반응이다. 위기 상황을 감지하면 모든 피는 다리로 쏠리고 체온이 내려간다. 우리의 신체는 도망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나, 차가웠나?

Step 5. 거짓말쟁이의 대답법

"당신이 엄마를 죽였지?"라고 수사관이 물었다. 모친을 살해한 진범이라면 "아뇨, 전 엄마를 죽이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상대방의 질문을 반복해서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질문을 반복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것이다. 단어를 몇 개 더 말하는 데 드는 시간이 고작 2~3초인데 그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인지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최소 10배는 빠른 속도로 생각한다. 즉 질문을 반복하면서 버는 2~3초는 20~30초의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것과 같다. 태연하게 밥을 먹다가 이제 그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자. "너 어제 클럽 갔지?" 그녀가 "아니, 나 어제 클럽 안 갔는데?"라고 대답한다면? 장담하는데 그건 거짓말, 아니 개 구라다. 🚫

역사를 바꾼 거짓말 4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구라를 시전하던 역사 속 타고난 거짓말쟁이들.



"전쟁을 하지 않겠다"

1938년, 아돌프 히틀러가 영국의 네빌 챔베런 총리에게 한 거짓말이다. "체코슬로바키아가 국경을 새로 정하는 것에 대해 협상한다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유럽을 안심시킨 히틀러. 얼마 후, 그는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개새끼야...

"그리스 군은 철수하겠다"

10년 넘게 계속되던 트로이 전쟁은 오디세우스의 거짓말로 끝났다. 그는 "그리스 군은 철수하겠다. 이 목마는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선물이야"라고 말했지만 실은 목마 안에 그리스 정예 군인들이 숨어있었던 것. 목마에 숨어 트로이 성 안에 잠입한 그들은 목마 안에서 튀어 나와 단숨에 성을 접수했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끝냈다.

"선화? 개 밤마다 나 만나잖아..."

백제 30대왕 서동은 절세미인 선화공주와 결혼을 한 것도 거짓말 덕분이다. 서동은 아이들에게 "선화공주가 밤마다 자신을 만나러 온다"며 구라를 쳤고,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게 했다. 이 스캔들로 귀양길에 오르게 된 선화 공주는 그후 정말로 서동과 만나 부부가 됐다. 여자가 보살이네.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자신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닉슨의 거짓말. 지금도 닉슨을 상징하는 말로 알려져 있다. 대선 당시 민주당의 선거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일이 발각되자 닉슨은 이를 은폐하려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집무실에서 "워터게이트 침입은 국가 안보 문제이니 FBI는 이 문제에 끼여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한 그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멸망했다. 이 거짓말로, 닉슨은 미국 역사상 스스로 하야한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MISS M

2014 MISS MAXIM CONTEST

16강 다섯 번째 예선 통과자

하경

늦은 저녁, 야구 잠바를 입은 소녀가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그땐 몰랐다.
그녀가 이렇게나 성숙한 몸매를 가진
초절정 글래머였다는 걸.

BY 김소윤 PHOTOGRAPH 김도훈



하경

생년월일 1994년 10월 06일
주향 소주 세 병
서식지 숙대 근처
이상형 깔끔하고 귀여운 스티일,
스냅백이 잘 어울리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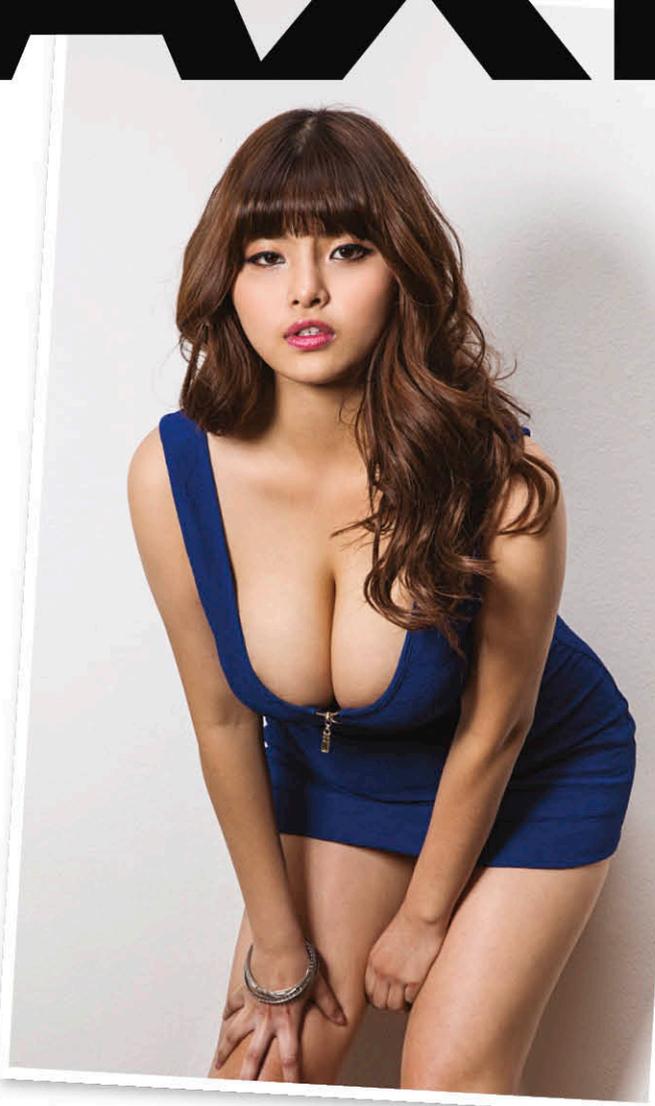
얼굴은 애기데
몸매는 다
컷네



구두 슈즈원

AXIM

OF THE MONTH



자신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내맛대로살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가슴이랑 발목 ㄹ_ㄹ

만우절에 했던 장난 중 가장 화끈한 것은?
저... 여자 좋아해여ㅋㅋ
(장난으로 누르고 백한 다면)

금요일 밤에 당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
아...? 과제하고 있을 듯ㅋㅋㅋ
학교 도서관!

스트레스는 주로 뭘 하면서 풀나?
친구랑 클럽까지 출근고 술싸고 같이서 잔다.

클럽에 갈 때 주로 어떻게 입고 가나?
가볍이랑 종아리가 들릴 듯한 옷

즐거 하는 게임이 있나?
가끔 베이플 스토리 스템시크는데 짜릿이다.

즐거 보는 스포츠가 있나?
축구 격관 좋아한다. 포항 스틸러스팬이다.

MAXIM 독자에게 전하는 각오 한 마디!
최선을 다할게요!!
사랑해요 오빠들 감 ㅎ



구두 스타카토



HAIR&MAKEUP 이현정 VIDEO 김상수 LAYOUT 이상운 ASSISTANT 김민경 이슬기

MISS MAXIM

2014 MISS MAXIM CONTEST

16강
여섯 번째 예선 통과자

유이

환한 미소로 현장에 있던
모든 이의 안구를 정화시킨 유이.
쾌활한 성격과 매력적인 말투로
스태프들의 마음까지 녹여 버렸다!

팬티 르페 언더웨어
구두 슈즈원



이유이

생년월일 1992년 1월 9일
주량 맥주 300cc 한 잔
서식지 서울
이상형 웃을 때 매력 있는 남자

그런 포즈는
어디서
배웠니





자신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완고양이?@#%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어깨라인. 가슴라인.. 몸
 요선 다들 예뻐서서 기기..**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한 독특한
 취미가 있나?
가끔 거울보 똑유안 입고 스코트 만족

요즘 가장 쏘는 노래는?
**진실 혹은 대담. 째웃치마
 (가인) (AOA)**

스트레스는 주로 뭘 하면서 푸나?
**머리 바꾸거나 노래 듣고
 가끔 마찰력 덩실댄다**

지금까지 들었던 최악의 작업 멘트는?
제가 본 여자 중 제일 자고 싶어요.

즐거 하는 게임이 있나?
요새 서든어택에 몰렸따!!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는? 왜?
아이언 맨 쿨 섹시하다 ♡ 30

MAXIM 독자에게 전하는 각오 한 마디!
**매일 우습다면 더 예쁜 Body로
 보답할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 3- 0**

Military



게임 속
최강
무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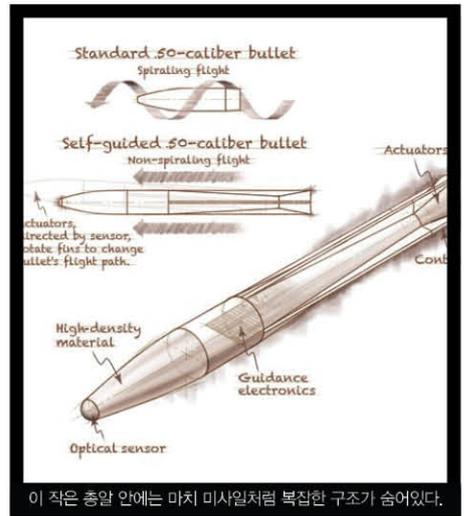
게임 속 구라를 현실화하는 현대 군(軍)의 과학 기술

혼자서 일당백의 전사가 되어 온갖 적을 묵사발로 만드는 FPS(First Person Shooting)의 주인공 캐릭터. 혹은 수십 대의 탱크를 지휘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속의 지휘관을 바라보는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에이, 저거 다 구라잖아!” 과연 구라에 불과할까? 과학 기술과 방위 사업 그리고 군에서 게임 속 상상의 물건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 BY 김민석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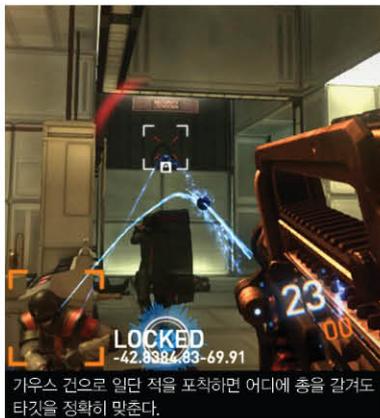
- <디펜스 타임즈> 객원기자
- <월간항공> 객원기자
- <밀리터리 리뷰> 객원기자
- <디펜스 21> 객원기자
- 미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리포터
- KBS 다큐 <사사기획 창: 차세대 전투기> 기술자문



1 구라. 총알이 알아서 적을 맞추던데?

미사일처럼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총알은 SF 밀리터리 게임의 단골 소재다. 2012년 2월, EA에서 발매한 <신디케이트(Syndicate)>에서는 사람들이 전자 장비를 해킹하고 통제하는 데 쓰는 DART 칩을 머리에 심어놓았다. 그들은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입에 총을 물려 자살시키거나 지역을 조작하는 짓을 할 수 있다. <신디케이트>는 국가 대신 대기업이 이런 장치를 사용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막장 세계를 그린 FPS 게임이다. 주인공은 온갖 방법으로 상대 회사의 경비 병력을 고자로 만들고 목을 꺾어가며 난장판을 만드는데, 이때 유용한 무기가 바로 EWS-59, 일명 '가우스 건(Gauss Gun)'이다. 벽이나 방패를 믿고 돌진하는 놈들에게 휘어지는 총알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총기다.

2014년 3월 발매한 EA의 또 다른 FPS 대작 <타이탄 폴(Titan Fall)>에도 비슷한 개념의 무기가 등장한다. 바로 '스마트 피스톨 mk'다. 가우스 건처럼 적을 한 번 인식하면 총이 휘어지든 구부러지든 총알이 무조건 목표물에 맞는다는 개념은 같지만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아예 모여 있는 병사들에게 한꺼번에 총알을 먹일 수도 있다. 엑스트라 피라미드를 상대하기에는 최적의 무기다.



가우스 건으로 일단 적을 포착하면 어디에 총을 갈겨도 타격을 정확히 맞춘다.



스마트 총알이 회전하며 적을 맞추는 모습

➔ 유도 총알의 현실화?

꿈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유도 총알은 의외로 빨리 실제 전쟁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 같다. 이미 2012년에 미국은 외계인을 고문한 끝에 유도 총알을 실제로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 정부 산하의 샌디아 국립 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ies)에서 실용화한 스마트 총알은 2,000m 밖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했을 뿐 아니라 총구에서 발사된 후 자유자재로 비행 궤도를 바꾸기도 했다. 12.7mm 구경의 스마트 총알은 공기역학적으로 교묘하게 설계해 초당 30회전을 하며 총알 속에 장착한 8비트 CPU가 자그마한 핀을 움직여 이동 방향을 바꾼다. 시수가 처음 겨냥한 레이저 빔을 따라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할 수 있는 것이다.

Military



〈스타크래프트〉의 마린



록히드 마틴의 헬크(HULC) 강화복



XXXL 사이즈다.

근데 고추기 썩겨.

간지나는 마스터 치프 성님, 우리 같은 일반인이 입으면 온몸의 뼈가 부스러질 거다.



고추 보호대를 사시면 고추가 안전합니다.

커지지는 않아요.



DARPA의 워리어 웹 강화복

2 구라2. 저거 입으면 무적이 되던데?

컴퓨터 게임의 역사가 40년을 넘어가면서 그동안 게임 개발자들은 좀 더 신선하고 강력한 무기를 창조하기 위해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왔다. 〈폴아웃 3〉의 휴대용 핵폭탄 '팻맨(Fat Man)' 같은 정신 나간 위력의 무기부터, 아예 대놓고 좇방망이를 만들어낸 〈세인트 로우 4〉의 '딜도 뱃(Dildo Bat)' 까지 온갖 종류의 무기가 난무한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자의 상상 속에서 탄생한 무기 중 가장 멋진 건 역시 입는 로봇, 즉 강화 외골격(Exo-Skeleton)이 아닐까?

사람이 옷처럼 장비를 입으면 그의 감각과 신체의 능력이 대폭 향상되는 강화 외골격. 〈로보킵〉이 떠오르는 천하무적의 장비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속 해병(Marine)과 불곰(Marauder)일 것이다. 사실 게이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블리자드가 밝힌 실제 유닛의 사이즈는 모니터에서 보이는 그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개새끼만 한 저글링조차 사실은 벙글호랑이만큼 크고, 질럿은 무려 3m가 넘는 외계인이다. 이런 우주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 인간인

테란 연방은 CM-400 강화 외골격과 5-4 전투복을 제작했다. 이 현대판 갑주에는 두꺼운 장갑과 무기 외에도 완벽하게 밀폐된 외피 안에 자체적 환기 장치와 산소 공급 장치, 영양 공급 장비에 배설 처리 장치까지 갖춰 물과 음식, 산소가 없어도 7일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 〈스타크래프트〉의 마린이나 불곰이 평범한 인간을 강력하게 만드는 장치라면, 정 반대로 일반인은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외골격도 존재한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시리즈 중 하나인 〈헤일로(Halo)〉에 등장한 '몰니르 전투복(Mjolnir Armor)' 이 바로 그것이다.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강도도 너무 세서 평범한 사람이 입으면 순식간에 전신 골절로 요단강 익스프레스를 타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주인공 마스터 치프(Master Chief)처럼 키 2m, 몸무게 182kg의 준수한(?) 슈퍼 병사만이 입을 수 있다.

→ 아이언 맨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총알을 막고 무거운 짐을 들어 수 미터를 점프하는 강력한 외골격 강화복이 실제로 탄생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꽤 빠른 시일 내에 군인의 군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강화복이 등장할 모양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병사용 외골격 강화복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명가 레이시온(Raytheon)은 벤처기업 사르코(Sarco)사를 인수한 후 XOS 강화 외골격을 내놓았다. XOS 1과 XOS 2는 게임 속 단단해 보이는 강화복과 달리, 비록 마른 에반게리온처럼 전선으로 추가 동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미사일을 주로 만드는 기업답게 미사일이나 폭탄을 쉽게 실어 나르는 용도로만 만들어진 때문이다. 반면 세계 최대의 방위사업체 록히드 마틴은 XOS와 달리 실제 전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화복을 내놓았다. HULC, 즉 헬크(Human Universal Load Carrier)라는 이름이 붙은 이 강화복은 내장 배터리로 40시간 이상을 가동하면서 병사들에게 58kg의 짐을 들고 시속 16km로 달릴 수 있는 괴력을 제공한다. 미국의 고등 국방 연구 계획국인 DARPA는 워리어 웹(Warrior Web)이라는 외골격 강화복을 개발 중인데, 옷 속에 입을 수 있도록 유연한 인공 근육과 액체 장갑으로 힘을 더하고 방어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의 LIG 넥스원이나 프랑스 국방부 등 많은 국가가 강화복을 실제로 만들고자 개발에 힘쓰고 있다. 아프간-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그들은 '병사 한 명을 보호하는 것이 곧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3 구라3. **총알 몇 발 남았는지 보이던데?**

〈서든 어택〉이나 〈크로스파이어〉처럼 고증 따위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온갖 희한한 무기가 등장하는 게임부터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나 〈ARMA 3〉처럼 리얼함을 강조하는 게임에 이르기까지, 성격에 관계없이 FPS에서 꼭 볼 수 있는 무기가 있다. HP와 총알 잔탄 그리고 지도나 방향을 표시하는 HUD(Head Up Display)가 그것이다.

FPS 게임을 플레이할 때 HUD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극단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게이머들이 게임을 개조한 모드에서 HUD를 모두 없앤 적이 있다. 플레이어는 몇 방을 맞아야 자신이 죽는지 알 수가 없다. 남아 있는 총알이 몇 발인지 알일이 외워야 하고, 불안에 떨며 재정전을 해야 하니 결국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화끈한 타격감이나 돌격의 재미 따위는 사라진다.



실용적이지 않으면서 어쩌나. 로봇은 남자의 로망!

4 구라4. **인간형 로봇이 짱짱!**

인간형 로봇이 탱크와 비행기를 한 손으로 '뺏아' 버리는 게임 속 장면들. 익히 알려진 대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미 〈마징가 Z〉부터 〈에반게리온〉이나 〈그렌라간〉 같은 사람 탑승형 직립보행 로봇이 등장한다. 이들은 기존 전쟁 무기를 비롯이라도 하듯 가볍게 제압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그럴싸하고 유명한 로봇 애니메이션은 〈건담〉 시리즈다. 국내에서도 상당한 팬층을 확보한 건담을 일본에서는 '리얼 로봇'이라고 부른다. 마징가 Z라던가,

→ **전장이 게임으로 변하는 마법의 HUD**

이에 최근 몇몇 무기업체는 FPS 게임의 HUD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가상현실 속 전투를 다룬 이런 게임은 어릴 때부터 플레이한 청소년들이 벌써 자라서 현실의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으로 성장했으니 말이다.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체 중 하나인 BAE 시스템스(BAE Systems)가 2014년 2월 공개한 'Q-워리어(Q-Warrior)'는 FPS 게임의 HUD를 실제 병사들이 전투에서 쓸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헬기 조종사들이나 전투기 조종사들이 헬멧에 장착하던 디스플레이인 HMD(Head Mounted Display)를 험한 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세계 최초의 보병용 디스플레이다. BAE의 보병 시스템 관리자 폴 화이트는 "Q-Warrior" 헬멧을 쓴 병사는 전장을 FPS 게임처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Q-Warrior 헬멧은 단순히 보병에게 LCD 화면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병의 전투능력 자체를 높여주는 장비이기 때문이다. 헬멧은 홀로그램으로 화면에 정보를 뿌리고, 증강현실을



워리어 헬멧은 전장의 상황을 마치 게임처럼 보여준다.

이용해 헬멧의 주인이 가진 무기의 숫자, 아군이 있는 위치를 알려준다. 심지어 자신을 지원하기 위해 비행 중인 스텔스 전투기나 공격헬기가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준다. 현재 미 육군의 특수부대조차도 폭격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거운 장비나 무장기를 이용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Q-Warrior 헬멧이야말로 진정한 FPS 게임의 HUD를 현실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타이탄을 타고 적 보병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미안, 그건 좀 힘들어...**

김이 쉴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은 이런 거대한 2족 보행 병기가 실전에 등장할 일은 없을 거다. 효율성 때문이다. 강화 외골격이나 입는 로봇이아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액세서리의 일이라고 치더라도, 타이탄 같은 7m 이상의 로봇은 상식적으로도 적에게 너무 쉽게 탐지된다는 약점이 있다. 55이 넘는 최신식 K-2 흑표 전차의 높이도 3m를 겨우 넘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직립보행 로봇은 걸리기 딱 좋은 표적이다. 게다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몸통을 바퀴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발걸음으로 쿵쿵쿵쿵 걸어서 이동한다면, 걷다가 파괴하는 공공 시설이 넘쳐날 거다. 하지만 2족 보행하는 로봇이야말로 남자의 로망이 아니던가! 언젠간 진짜 타이탄을 타고 전투에 임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새로운 무기는 늘 우리의 예상을 깨고 비논리적으로 등장하는 법이니까. 그럴겠지? 그렇다고 말해줘, 흑흑... ☹

· Hot Sex Bucket List ·

ULTIMATE DREAM SEX PLACE

25

당신이 죽기 전
꼭 해 봐야 할 25곳

이렇게도
하는군요.



당신이 작성한 버킷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혹시 죽기 전 사막 횡단, 스카이다이빙, 몸짱 되기 같은 뻘하고 상투적인 항목만 있는 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모험'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버킷 리스트를 더 짜릿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당신이 죽기 전 꼭 해 봐야 할 25곳을 뽑았다. 모텔 거울 방, 주차장은 이제 좀 식상하잖아? BY 김희성



돈다발 위

돈, 여자, 그리고 섹스라니.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걸 동시에 해보는 거다. 기왕이면 천 원짜리 말고 만 원짜리를 갈아놓고 하는 게 진짜 백만장자가 되어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느낌이 들겠지? 하지만 사정할 땐 튀지 않게 조심할 것. 그 돈 받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2

바나나 보트 위

구멍조끼는 벗는 게 더 스틸 넘치겠지?



3

아글루

모텔 거울방이나 텐트, 친구네 자취방은 이제 좀 식상해졌다. 세상에 존재하는 천만가지 기속 형태 중에 아글루에서 해본 사람 몇이나 있겠나. 생각만 해도 교환이 오그라들 것 같겠지만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기엔 이만한 장소도 없지.



그냥 주차장 말고 공항 주차장이 좋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 주인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 오금이 저릴 테지만 공항에 주차돼 있는 차 주인은 적어도 빨리 돌아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동안의 주차장 카섹스와 다를 게 없다고? 이제 차 밖에서 해보자. 차와 차, 벽과 차, 주차장 기둥 뒤 등 적절한 장소를 스캔하라. 침대 위에서는 삽입 전부터 끝까지 정성 들어 온몸을 예열해주는 남자가 사랑받지만 야외 섹스에는 대충 하는 게 모이다. A부터 Z까지 섹스의 모든 단계를 하려고 하지 말 것. 장소가 주는 흥분 때문에 당신이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녀의 몸은 이미 달아올랐다.



5

빙하

아글루에서 하겠다고 북극까지 갔는데 그냥 돌아오기엔 비행기 값이 아까우니 아웃도어에서도 시도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양새가 도통 그려지지 않지만 그게 바로 포인트다. 당신이 그녀를 너무 뜨겁게 만든 나머지 빙하를 녹인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할지도. 이런 프레온 가스 같은 가시나를 봤나.



6

스마트 포투 카브리올레

이 차를 볼 때마다 궁금했다. 과연 이 안에서 카섹스가 가능할까? 너무 좁은 나머지 상상도 못한 새로운 체위가 탄생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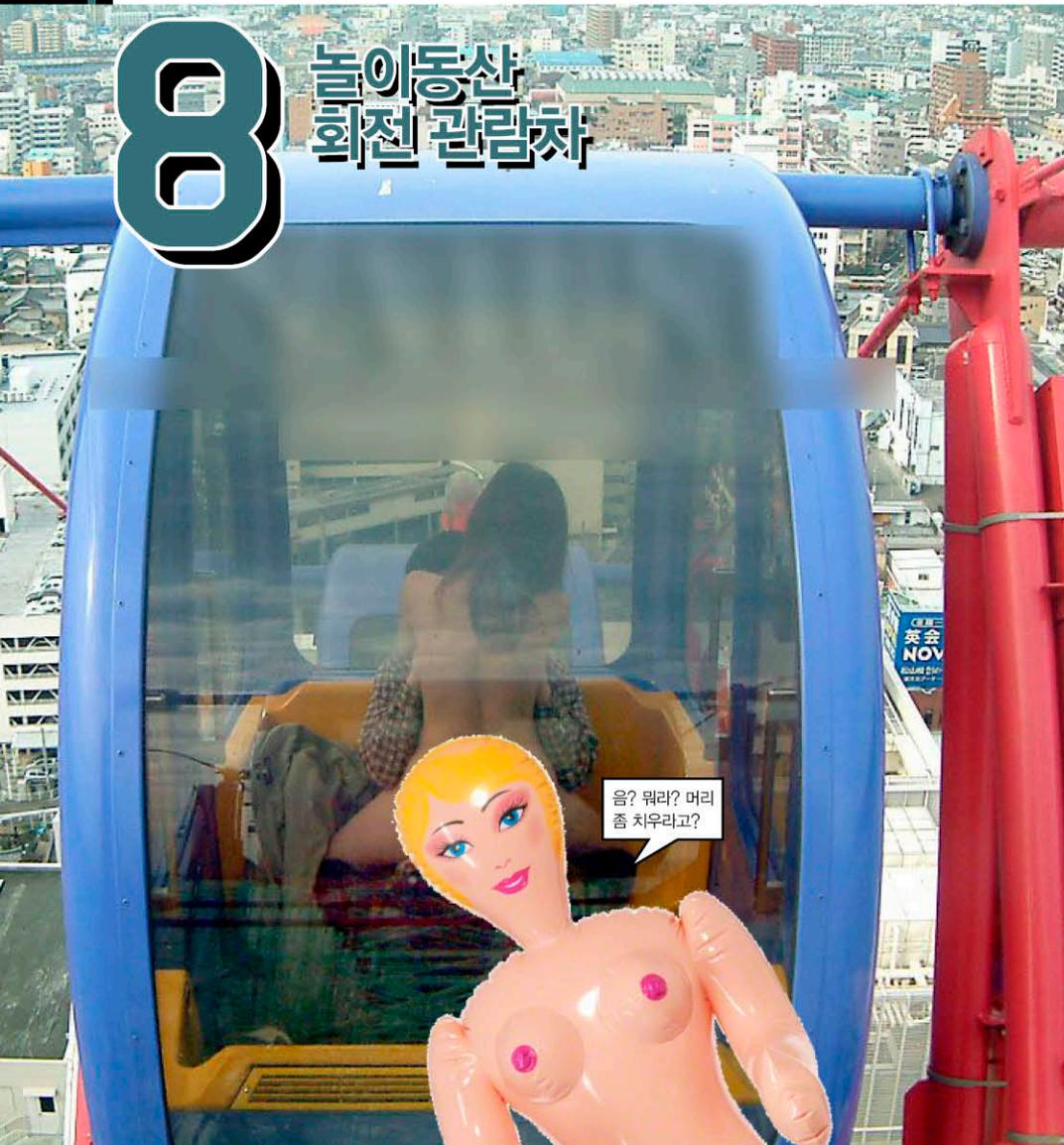
7

몽골고원 고비사막

사막의 한낮은 영상 54°C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사랑을 부르짖을 수 있다. 그러다 정말로 타죽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극한의 환경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법이니, 사막이 당신을 초인종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8

놀이동산 회전 관람차



관람차를 타는 연인들 99%는 안에서 양전히 있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자. 건너편 관람차 커플과 눈이 마주치거든 꼭 방긋 웃어줘라.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어차피 당신이 탄 관람차가 지상에 도착할 때쯤 아까 본 그 사람들은 내리고 없을 테니까.

9



양떼 목장

반드시 양이 우르르 지나가는 옆에서 해야 한다.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양이 보고 있다는 점에서 격이 다른 관전 플레이가 된다.

10



대통령 집무실

이걸 하려고 꼭 대통령이 될 필요까지는 없다. 빌 클린턴은 오를만 했는데도 정치 생명이 끝장났거든.



11

부모님 침대

아, 이미 해봤다고? 미안하다.



12

택시

기사님이 택시비는 댔다며 안 받는다면 당신은 할 만큼 한 것.

13



만리장성 케이블카

하고 많은 케이블카 중 굳이 왜 만리장성까지 가야 하느냐고? 만리장성 케이블카는 바람이 많이 불면 90도로 흔들리거든.



14

학생 식당

머리카락이 반찬에 떨어질지 모르니 그녀에게 머리카락을 씹우고 해야 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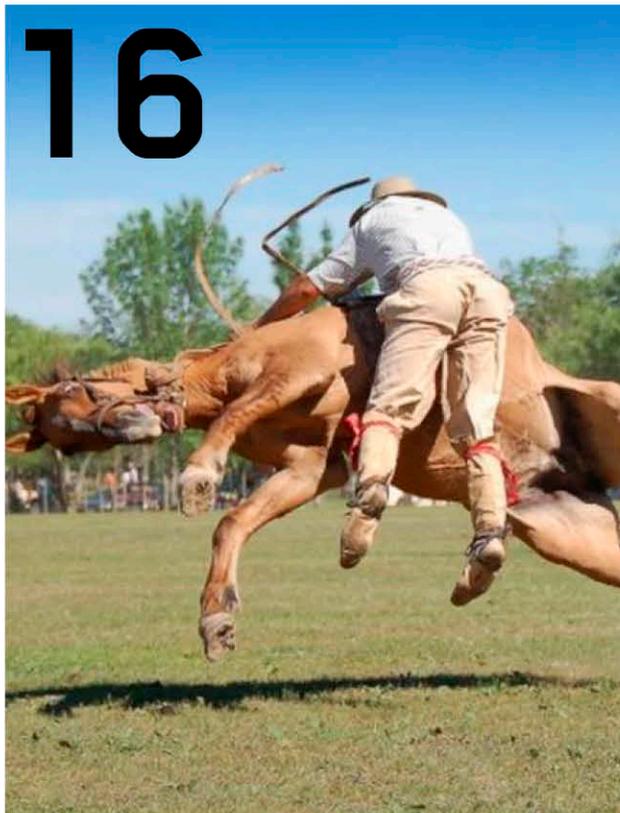
15



우주

우주 비행사들은 많은 것을 참아내며 무중력 상태에서 지내야 한다. 2주에서 6주까지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는다. 그래도 사람이 섹스를 포기하는 거 봤어? 무중력 섹스도 가능하다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지?

16



말

말을 타고 달려오던 진도희부터, 플레이보이 메이트의 목장 화보까지, 말은 미끈한 몸매와 강인한 힘을 지닌 예로틱함의 상징이다. 영장류가 등에 올라타 고미를 하는 말 기분이 좀 그렇겠지만, 그건 알 바 아니잖아?

무중력 섹스, 진짜 가능?

그... 어렵긴 한데 가능은 할 것 같네요.



무중력 상태에서 밀착이 가능한 섹스 슈트 2suit와 고인자 반나 본타의 모습
중요한 건, 했? 안 했?

왜 뻥센가?

무중력 섹스가 뻥센 이유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때문이다. A가 B를 밀면, B 역시 A에게 같은 힘을 가하게 된다. 분탕질, 요분질을 해대는 남녀는 서로에게 힘을 가하는데, 무중력 상태에선 서로에게 가하는 힘 때문에 계속 밀리면서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 장차나 제3자의 도움 없이는 몸을 밀착하여 애무하고 삽입하는 동작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 에일리언 헛바닥처럼 길이 조절이나 동작 자유자재인 물건이 아닌 이상에야 웬만한 대물, 아니 대물 할아버지라도 무중력 상태에선 무용지물일걸?

밀착을 위한 우주복 2suit

2006년 '반나 본타'라는 여자 방송인이 무중력 상태에서 두 사람을 밀착시키는 우주 옷 '2suit(투슈트)'를 고안했다. 이것의 프로토타입이 히스토리 채널의 다큐멘터리 <더 유니버스>에 실제로 등장했다. 아쉽게도 '진짜 이거 입고 할 수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초의 무중력 섹스를 담은 SF 포르노

성인물 제작사 '프라이빗 미디어 그룹'이 <우라노스 익스페리먼트2> 라는 AV에서 무중력 섹스 장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3,350m 상공의 비행기에서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 두 남녀의 섹스를 카메라에 담았는데 돈이 별로 없어서 20초밖에 촬영을 못했다고 한다.

NASA의 비공식 우주 섹스 실험? 사실?

NASA에선 무중력 섹스 훈련이나 실험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확히 밝힌 바가 없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우주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에 대한 실험과 훈련이 아예 없진 않았나 보다. 프랑스의 과학 전문 작가 '피에르 퀴러'는 우주 섹스 실험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NASA는 무중력 상태에서 가능할 만한 20개의 체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하고 그중 최적의 10개를 뽑아 직접 해 보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4개의 체위만이 '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졌으며, 나머지 6개 체위는 특수 탄력 벨트나 공기주입식 터널 같은 도구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참고로 그의 말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가장 쉬운 정상위 체위가 우주에서는 불가능했다"고.

우주에선 무중력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뜩이나 무중력 상태에서는 돌이 붙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거기에 심지어 우주라는 환경에선 인간의 심리 상태가 지상에서보다 훨씬 불안정할 테니 섹스를 어찌 마음 편히 하겠나. 운 좋게 성공해 우주에서 임신이 덜컥 되어도 우주선(고 에너지의 입자선)과 무중력 상태에 노출된 태아의 건강 상태를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걱정 마라. '인류의 우주 이주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학자들은 지금도 그 어디에선가 우주에서의 다양한 섹스 방법을 고안하고 있으니까.

말 나온 길에 우주 여행 티켓 사기



17

배 안 여기 저기

여긴 할 곳이 무궁무진하다. 난민 대피소 같은 3등급 객실부터, 사람 자는 모양새는 갓춘 2등실, 배 위라는 걸 제외하면 침실과 다른 없는 1등급 객실까지. 심지어 석양이 지는 갑판 위에서라면... 절로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아니, 디캐프리오랑 케이트 윈슬릿은 이 좋은 데서 키스나 하는 얼굴이 커플이었던 말이야?"



18

부엌 조리대

〈나인 하프 워크〉에서처럼 그녀의 눈을 가리고, 그 집에 있는 온갖 양념들을 몸에 발라가며 그녀의 감각을 깨워보자.



19

스키장 리프트

하다가 들키면 신종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소개하자.



20

회사 사정실

본인이 사장이라면 특별할 게 없지만, 그 사장 밑에서 개처럼 일하고 있다면 신나는 장소. 최고는 사장실에서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비서랑 하는 거지.



21

전체 관람가 상영관

자동차 극장, 19금 영화가 나오고 있는 영화관, 옆 자리와 칸막이가 있는 스위트 박스... 여기에서 모두 해 봤다고? 이 바닥의 최고 난도는 〈뽀로로〉나 〈겨울왕국〉 등의 가족 전체 관람가 애니 상영관이다.



22

싫어하는 사람의 결혼식

축복의 전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만끽하는 흥분. 어쩐지 싫어하는 사람 결혼식에 똥 뿌리는 기분이 들며 온몸에 전율이 전해져 오진 않을까?



경찰차

경찰이 순찰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녀의 손을 잡고 얼른 경찰차 뒷자리에 타라. 순경 아저씨가 문 두들기거든 그냥 차를 탈취하는 게 낫다. 전쟁 GTA를 너무 많이 했어!

24



비행기 화장실

〈돈의 맛〉 마지막 장면의 비행기 화장실 신. 여자를 세면대 위에 앉히고 했었지. 같이 들어가기 민망하면, 그녀에게 아픈 척을 하라고 한 뒤 그녀를 부축해서 가면 된다.

25



해적선

해적들에게 잡혀 럼주에 담금질을 당하지 않고, 잘 봤다며 우리에게 금붙이를 건네는 게 목표!

도전! 섹스퀸

장소는 다 봐 봤다. 이제 이 모험을 함께할 지구상에서 가장 화끈한 영장류 암컷을 찾을 차례! 누구와 구멍 동서가 될지 선택은 당신의 몫.



NO THANKS...

아니아 리제스카

10만 명의 남자와 자겠다고 공언한 스물한 살 폴란드 처자가 있다. 그녀는 지난 3월 16일 페이스북에 “남자 2,500명 째!”라는 포스팅을 올렸다. 그러고는 여기에 “더 많이 원한다!(I want more!)”라는 글을 덧붙이며 투자를 불대했다.



MIDDLE

린다 스파크스

24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트너와 섹스를 한 것으로 기록된 대단한 그녀. 2004년 세계 강행 챔피언십 앤드 에로티콘 (실제하는 대회다)에서 그녀는 919명의 남자와 24시간 동안 섹스를 하여 기네스에 올랐다. 어, 그러니까 1인당 94초 꼴?



SEX-O-METER

린제이 로한

화끈하게 놀 줄 아는 그녀. 지난 1월, 친구들과 장난으로 섹스 파트너 리스트를 적어 돌렸는데, 그 안에는 그룹 콜드플레이의 가이 베리맨, 마룬 파이브의 보컬 애덤 리바인, 저스틴 팀버레이크, 배우 잭 애프론, 호아킨 피닉스, 브루스 윌리스, 콜린 패럴 등 총 36명의 남자 이름이 거론됐다.



주먹이 운다

잠시 그 주먹 내려놓고 이 칼럼 좀 보고 가게나.
그러다 자네도 창살 뒤에서 울게 될라.



BY FELIX LEE

“

차고로 볼 구경, 싸움 구경만큼 재미있는 구경이 없다고 했다. 물론 제일 재미있는 볼 거리는 따로 있지만(역시 떡 구경이지)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상 보게 되면 재미있는 만큼 짜증도 날 거다. 역시 최고의 구경 거리는 싸움이다. 그런데 이게 구경할 땐 좋지만 내가 당사자가 되면 이만큼 피곤한 일이 없다. 감기가 병마의 시작이라면 싸움은 모든 충사의 시작이다. 가법계는 깡깡에서, 심하면 구속&인생 퇴결 하는 것이 폭력 범죄다. 일선 경찰들이 가장 많이 처리하는 범죄가 바로 폭력 사범이기도 하다. 자, 그럼 폭력 사건에서 꼭 알아둘 상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1 폭력 범죄는 일단 위이지 않는 것이 좋다

폭력 사건을 조사하면 99%는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싸울 때는 17:1도 손쉽게 제압할 것처럼 기세등등하던 놈들도 이상하게 경찰, 검찰에만 오면 연약한 척을 하며 자기는 맞기만 했다고 벽벽 우긴다. 그나마 현장에서 검거되어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이 확보된 경우나 주변 목격자들이 사건 초기부터 증언해 준 경우에는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서 한 쪽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누가 때리고 누가 맞았는지 증거로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목격자들도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쉽게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당신이 경찰이나 검찰이라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우리 검경이 내린 쉬운 해결책은 바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맞았을 가능성은 낮으니 각자 맞았다고 주장하는 대로 쌍방이 폭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정말 맞기만 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은 무척 억울하겠지만 모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모두가 자기는 맞기만 했다고 하니 달리 도리가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비 현장은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다. 일단 내가 아닌 일행만 여여도 나까지 덩달아 한 패거리로 몰려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물론 정말 억울해 보이는 케이스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걸러지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시비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억울하게 가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비가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살짝 접어주는 것이 낫다. 무서울 것 없는 막장 인생들에게 한 번 잘못 걸리면 곤욕도 그런 곤욕이 없다. 즉,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2 폭행? 상해? 뭐가 어떻게 달라?

맨손으로 싸우면 단순 '폭행죄'이고, 칼로 쏘시든 쇠파이프로 골통을 날리든 상대를 아작을 내는 정도가 돼야 '상해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대체 어디에서 나온 착각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우선 폭행과 상해의 차이를 알아야겠지? 아주 쉽고도 유치하게 설명하자면, 때리는 게 폭행이고, 다치게 하는 게 상해다. 때린다고 항상 다치는 건 아니니까 그 차이를 알겠지? 당연히 상해가 더 무거운 죄다. 폭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다치면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느냐 아니냐의 여부다. 법원은 상해의 개념에 대해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것"이라고 정의한다. 폭 출혈을 동반하는 상처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찰과상이나 멍이 든 정도만으로도 상해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폭행죄는 매우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런데 일반인의 법 감정상 경미한 피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잘 없다. 예를 들면, 엄마가 할 일 없이 방 바닥을 벽벽 긁는 당신의 등짝을 찰싹 때리거나, 간만에 만난 친구가 기쁜 마음에 당신에게 헤드락을 걸었다거나, 여친 몰래 섹파를 만나 응응 하다 걸린 당신에게 여친이 불꽃싸다구 연타를 날린다고 폭행죄로 고소하지는 않으니까. (물론 이 경우 여친은 폭행죄에 해당한다. 고소하려면 해도 된다. 이 짜질한 놈)

자, 이제 차이를 좀 알겠나. 그러나 실제로 법정에서 세게 되는 폭력 사건은 폭행죄보다 상해죄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3 폭력 사건은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된다?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폭력 사건은 합의하면 장땡이라는 거다. 근데 그렇게 치면 매 1대당 100만 원씩 20대만 맞으려면서 몽둥이로 20대를 후려갈긴 모 기업 대표가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 받을 일은 없었겠지(물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긴 했다). 그럼 어떤 경우는 합의로 해결이 되고 어떤 경우는 해결이 안 될까? 이걸 아주 중요한 문제니 자세히 알아 보자.

일단 폭력 사건도 다 같은 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 폭력 사건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폭행죄와 상해죄로 나뉘는데 합의를 했을 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폭행죄뿐이다.

관련 형법 규정(가운데 박스를 참조)에서 나온 것처럼 상해죄와 달리 폭행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제3항에 추가되어 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동안 MAXIM에 쪽 연재되어 온 Law & Order 칼럼을 꼼꼼히 읽는 독자라면 이미 알겠지? 이전 예전에 '명예훼손죄'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등장한 '반의사불벌죄'다. '반의사불벌죄'가 뭐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국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폭행죄를 범해도 피해자랑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나온 거다.

이와 달리 상해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더라도 검사는 얼마든지 이 상해범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볍게 밀친 정도가 아니라 치고 받고 하는 싸움다운 싸움이 벌어졌다면 상해를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멍 정도는 기본으로 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아예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다.

여기서 좀 더 유용한 팁을 주겠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 시비 현장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어쩔 수 없이 시비에 휘말리게 된 경우, 혹은 일행이 시비에 휘말린 경우 가장 명심할 것.

가능한 한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에, 즉, 지구대(파출소)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라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고 지역 경찰서 형사과로 사건이 넘어가면 이에 대한 사건 번호가 생기고 형사통합시스템에 기록된다. 그때 돼서 아무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지구대(파출소) 단계에서는 아직 사건 번호 입력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명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했다면 처음부터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사건화 하지 않고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가령 상해 사진을 따로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단순폭행죄로 입건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그냥 없던 일로 물어버리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싸운 사람들이 잘못했다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의하겠다고 하니 굳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거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칭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4 무서운 가중처벌

폭력범죄엔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폭처법')로 일부 폭력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건데,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 행위라도 폭처법에 걸리면 합의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규정(원문 박스글 참조)을 보면 '폭처법'이 가중처벌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을

① 상습범, ② 2인 이상의 공동범, ③ 누범, ④ 흉기 등 휴대 상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실 이들 범죄는 가중처벌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② 공동범이다. 공동범은 범행 현장에서 함께 행위를 공동으로 수행한 자를 말한다. 그런데 그 적용 범위가 꽤 넓기 때문에 싸운 놈의 일행으로 옆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범으로 엮이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물론 친구가 싸우려고 하는데 혼자 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꽤나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친구 땀에 같이 경찰서로 달려 오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예전에는 아간에 폭행을 하면 가중처벌 하는 규정도 있었다. 이 때는 밤에 사람을 때리면 합이고 뽀고 없이 가중처벌을 받곤 했다.

그런데 사실 대낮부터 사람을 때고 다니는 미친놈은 흔치가 않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폭력범들이 이 규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폐단이 있었다. 지금은 이 규정이 폐지되어 없다.

흉기 휴대 폭행/상해되는 상습범만큼 무겁게 처벌을 받는다. 꼭 흉기를 쓰지 않아도 흉기를 그냥 휴대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력을 휘둘러도 여기에 해당한다. 즉, 여자 하면 흉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때는 건, 흉기를 쓰는 것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 흉기를 쓰지 않았다 해도 말이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다 경찰서에 끌려왔다. 싸울 당시 내 주머니엔 등산용 칼이 들어 있었다(나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칼을 꺼내지도 않았고 그냥 소지만 했을 뿐인데도 가중처벌을 받는다.

위 규정은 흉기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법원은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것을 넓게 해석하여 자동차를 몰고 사람을 위협하거나 들이받는 경우도,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운전 중에는 함부로 사람을 겁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5 술 탓은 안 통한다

만병의 근원이라 하면 술과 담배가 떠오르는데 사실 필자 생각에 만병의 근원은 담배가 더 맞는 것 같다. 다만, 술은 만병의 근원 자리를 빼앗긴 대신 만취의 근원 행세를 한다. 술 한 방울 안 먹고 맨신에 사람 패는 것은 보통 멘탈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폭력 사건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게 된다. 보통의 선량한 시민들도, 부모까지 못 알아 볼 정도의 멍멍이가 되면 술기운에 의지하여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표도르가 된 것처럼 아무데나 시비를 걸고 다니는 것이다. 이런 경우 씹질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술김에 경찰에게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같이 세트로 엮이는 경우가 많다. 새벽 2시쯤 경찰서 형사과를 방문해 보면 정말 다양한 유형의 주폭들이 수감에 묶인 채 지랄발광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난리법석을 치는 주폭들도 차츰 날이 밝아 오면서 간밤에 자기가 얼마나 뺨질을 했는지 깨닫게 된다. 심중팔구는 자기가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던 일을 전혀 기억 못한다고 발뺌한다. 그렇지만 경찰, 검찰이 호구도 아니고, 그 말에 “다음부터는 술 조금만 드세요” 하고 보내줄 사람은 없다. 폭력 사범의 주취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더 좋지 않게 보는 검사나 판사들도 많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폭 기질이 좀 있다면 기억도 안 나는 상태로 엄하게 철창신세 지지 말고 당장 술을 끊을 것을 권한다.

6 갯값은 얼마를 줘야 하는가?

앞에서 본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면 폭력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시비에 휘말리게 됐을 경우 합의금, 소위 '갯값'은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인가? 만약 줘야 한다면 적절한 갯값은 얼마일까? 일단 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재산범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합의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합의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는 상해의 경우라도, 초범이고 합의를 한 채 누워치고 있으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폭력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벌 수 있었는데) 못 번 수익,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여러 요소들이 합산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일단은 주는 게 맞다. 당장 안 주더라도 추후에 피해자가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냥 주는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속이 편하다. 그렇다면 얼마를 주는 것이 적절한가? 이걸 정말 피해자마다 요구의 정도가 천차만별이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빨의 경우 살짝 끝이 깨지지만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폭력 사건 합의에서의 관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빨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보통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끊어 온 후 상해진단서에 명시된 주수에 따라 적절한 합의금을 교섭한다. 소위 진상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주당 합의금이 한없이 올라갈 수 있다. 결국은 피해자의 요구 정도를 일단 듣고 본인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처벌의 수위 같은 것을 고려해서 피해자가 달라는 대로 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방법밖엔 없다.

말년 잘못 키우면 남자한테 돈 퍼 날라 집안 말아먹고 아들놈 잘못 키우면 갯값 물어주느라 집안 말아먹는다고 했다. 그만큼 사내놈들이 쉽게 욱하고 쉽게 치고박고 그러다 돈 물어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천하의 쓸데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테크의 시작임을 명심하라. 올 한 해 욱하는 성미와 주폭스러운 술버릇을 고치도록 노력하자. 



修能神功

수능신공

Chapter.6 국어 영역II

MODEL 미스맥심 김지혜, 에디터 김상수 박정욱

손안나 장혜민 김희성 김소윤 김진욱 조웅재,

임원비서 정석영 PHOTOGRAPH YuD, Zho

금주, 금연, 금욕





채점하지
말라니까



MAXIM 편집부의 수능 생벽이 알려주는 1교시 국어 영역 10점 올리기 완결편.
수능 시험에서 노력파, 모범생 다 필요없어. 기술자한테는 안 된다니까? BY 유승민 이영비



〈수능 신공〉 여섯 번째 달이다.
지난 호부터 본격적으로 1교시 국어 영역
에 들어가면서 시험 볼 때 문제 푸는
순서만 바뀌어도 점수가 오르는 비책을 전수했다.
그 외에도 MAXIM 〈수능 신공〉이 선사하는 다양한
고급 기술(공수)들이 궁금하다면 어서 과월호를
구매해라. 엄마가 공부할 책 사는 데는 돈 아끼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①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어떤 장르를 좋아해?

국어 영역의 지문은 다양한 장르의 글이 출제된다.
지난 2014 수능 국어 영역에서도 설명문, 논설문, 두
기관 간의 협상 문단, 소개글, 고전 산문, 철학, 과학
이론, 현대 소설, 시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지문이
등장했지.
그간 모의고사를 좀 치러본 수험생이라면 잘
알겠지만 사람마다 자신이 유독 약한 장르의
글이 있어. 특정 장르의 지문만 등장하면 독해가
더러지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뿐더러 채점해
보면 정답률도 아주 가관이지?

수능 D-데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자신이
취약한 장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수험생의 자세겠지만...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시험 기술의 집약체인 〈수능 신공〉에서는 “취약한
장르는 건너 뛰어라”라고 가르치고 있어. 괜히 잘
풀지도 못하는 지문을 붙들고 있다가 페이스 말리지
말고 다른 지문부터 먼저 풀라 이 말이야.

공부량 담 쌓았으면 문학은 제끼라고

혹시 자기가 어떤 장르의 지문에 취약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국어 공부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면 특히
문학 지문에 약할 수 밖에 없지.
국어 영역에서도 소설, 수필, 시처럼 문학을 소재로
한 문제는 일종의 암기 과목과도 같은 성향을 띤다.
왜냐면 문학 작품에 대한 문제는 그 작품의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 예를 들어, 어떤 소설의 주제, 시대적 배경,
작가가 사용하는 서술 기법 등을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거나, 심지어 작품 전체를 정독한 놈들도 있는데,
너는 시험 시간에 난생 처음 그 작품을 접했다면?
전자와 후자간에 느끼는 문제의 난이도 차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겠지.

전자의 경우는 아마 단순 암기 과목을 풀 듯 큰
고민없이 빠르게 답을 적고 넘어갈 테고, 후자인
자네의 경우에는 난생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을 읽고 그
주제나 줄거리를 그 자리에서 추론해야 하니, 처 망할
수 밖에. 국어 영역에서 문학 작품은 암기 과목과도
같다는 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온 말이야.

비문학에서 승부를 걸어!

반대로 문학이 아닌 실용적인 글, 소위 논설문,
설명문, 평론글 같은 비문학이 지문으로 등장했을
때는? 공부 많이 한 놈에게나, 공부 안 한 놈에게나
이건 똑같이 처음 보는 글이야.
국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한들 설명문 따위를
줄줄이 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 이렇게 사전
지식 없이 부딪혀야 하는 비문학에서야말로 온전히
국어 독해 능력이 정답과 오답을 좌우해.
그간 수능 국어 공부는 좀 소홀히 했더라도 타고난
언어 센스가 좋거나, 잡지든, 유머 기사판이든 평소에
이런 지런 글을 읽으며 김치맨으로서 충분한 국어
생활을 해 왔다면 이런 비문학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충분히 정답을 골라 내려갈 수 있어.



헤.. 헤헤

뒤집어 말하면 국어 공부 열심히 한 놈들이 문학 작품들을 줄줄이 꿰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국어 센스가 떨어진다면서? 처음 보는 비문학 지문(설명문, 논설문 등) 앞에서는 공부 안 한 너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가지. 공부 안 하는 너같은 녀석들에게는 한마디로 비문학이 역전의 포인트란 말이야. 문학은 뒤로 제끼고 비문학에서 먼저 승부를 보라고.

문학 중에도 제일 엇갈은 것은?

하지만 공부를 안 했다고 문학 지문들을 모조리 제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 작년 수능 국어 영역에서도 총 45문제 중 무려 17문제가 문학에서 출제됐으니까. 근데 문학 중에서도 자기가 특히 어떤 쪽에 취약인지, 소설에 약한지, 수필에 약한지, 시조에 약한지 잘 모르겠다면?

수능 국어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장르는 바로 고전 문학이야. 아마 너도 마찬가지로일 테고. 그나마 현대문학은 글자를 읽을 수가 있지, 낯선 고전 산문, 고려 시가 같은 게 튀어나오면 독해는 커녕 읽는 것도 잘 안 될 걸? 이게 대체 한글인지 아닌지 글자 자체도 외계어 같은 데다가, 떠들거리며 읽어 봐도 발음부터가 영 이상하거든. 평소에 공부했던 작품이 아니라면 시험장에서 끔찍대고 읽어봤자 말짱 황이야. 어떻게 발음해서 읽는지도 난감한 이런 고전 문학이 지문으로 튀어 나왔다면 괜히 덤비지 말고 과감히 제껴. 문학 문제는 적잖이 암기 과목과도 같은 성격을 띠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전 문학은 진짜 암기 과목이야. 시험장에서 처음 만난 고전 문학의 글자들을, 땀에는 한 번 읽어 보겠다고 더듬더듬 읽고 앉아있는 짓은

'나 대학 가기 싫다'고 발버둥치는 거나 다름 없어. 도통 어느 나라 글자인지 모를 지문이 튀어 나왔다면 짝어도 좋으니 과감히 나중으로 미루고 넘어가라. 제발.

초치기 공부는 문학 작품 위주로!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 공부를 할 거면 비문학보다는 차라리 문학 작품을 공부해. 시험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땐 국영수보다 차라리 암기 과목을 공부하라고 하잖아? 같은 원리지. 총체적인 언어 센스가 성적을 좌우하는 비문학보다는 '알면 바로 풀리는' 문학 작품을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주워 담는 게 경제적이겠지?

② 긴 지문에 접근하는 법

문제를 읽은 다음에 지문을 읽어라

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건 초짜들이나 하는 짓이야. 문제의 논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문을 읽으면 아무리 집중해서 읽었다 해도 문제를 풀 때 다시 읽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 국어 영역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지.

먼저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들을 한 번 쓱 훑어봐. ①~⑥번 보기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어.

작년 수능 국어 영역에 나왔던 지문이다. 한 번씩들 읽어봐

(나) 나랏 :말쑈·미 中·동·國·국·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뫼·디 아·니·훅·썩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훅 ·배 이·셔·도 民·츨·내 제 ·쁘·들 시·러
퍼·디 :문·훅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호·야
:어·옛·비 너·겨 ·새·로 ·스·물 여·뫼 字·종·를 冥·그·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너·겨 ·날·로 ·뿌·매 便·뻔·안·한
·크·훅·고·져·훅 썩·르·미·니·라

뭘 묻는지 '문제'만 읽자고.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나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지문을 읽어야 할지가 보일 거다.

먼저 풀 문제

긴 지문을 잘 보면 ㉠㉡㉢ 같은 기호를 달고 군데군데 밑줄을 짝짝 그어놓은 게 보이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에 관한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해. 최근 수능 기출 문제를 예로 들어 볼까?

24. ㉠과 ㉡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과 ㉡의 개념이나 차이점에 집중하면서 지문을 읽어라. 파악이 됐다 싶으면 지문을 읽던 중이라도 24번 문제를 먼저 풀어버려라.

29. ㉠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의 관점이라는 게 뭘 집중하면서 지문을 읽어라. 파악이 됐다 싶으면 지문을 읽던 중이라도 29번 문제를 먼저 풀어버려라.

36. [A]단락의 서사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A]단락을 읽었으면 바로 36번 문제부터 푼다.

가끔은 다음과 같이 지문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와.

20. 밑줄 친 ㉠ 속담과 같은 뜻의 사자성어는?

34. 문맥상 ㉠~㉢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는?

이런 건 그야말로 밑줄 친 부분만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다. 지문을 읽다가 ㉠이 나오면 바로 풀어버려라.

이렇게 지문을 읽던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있으면 바로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을 읽는 습관을 들여라. 반복해서 지문을 읽는 수고를 확실히 덜게 될 거야.

나중에 풀 문제

위와 같이 ㉠... 기호가 달린 문제는 지문을 지엽적으로만 파악해도 풀 수 있는 반면, 긴 지문을 다 읽고 나서야 풀 수 있는 아래의 문제 유형도 있어.

Q. 뒷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Q. 뒷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Q. 뒷 글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Q. 뒷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Q. 뒷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딱 봐도 그렇지?

이렇게 한 지문에 딸린 3~4개의 문제 중에서도 먼저 풀 문제와 나중에 풀 문제가 따로 있다 이 말이다. 이러한 원칙이 서 있지 않으면 지문에 딸린 3~4개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지문 봤다, 문제 봤다'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시간만 까먹기 마련이야.

너도 슬슬 기술자가 되어가고 있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수능 신공>의 핵심은 하나부터 열까지 '시간 단축'이야. 그것이 실력을 키우지 않고도 점수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지. 장담컨대 <수능 신공>만 잘 구사해도 국어 영역에서 최소 10점은 올릴 수 있어(형 지금 이마에 엄지 찌고 있다). 2015 수능까지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공부까지 살짝 끼여주면 언어 영역 20점 상승도 절대 꿈이 아니야.

자, 이번 달도 수험 생활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야한 누나들을 잊지마. 



수석 에디터 유승민

수능 점수: 396점 (400점 만점)

주특기: 1교시 언어 영역

서울강서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편집장 이영비

수능 점수: 393.5점 (400점 만점)

주특기: 4교시 외국어 영역

광주과학교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슈스케는 집어치워



MAXIM이 각국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은 영웅들을 모아 범지구 연합군을 만들어봤다. 이 정도 구성이면 세계 정복은 일도 아니겠는데? BY 박정욱

일본 최강의 해군 히어로
도고 헤이하치로(1848 - 1934)



영웅 연합군
해군참모총장

— 불에 타는 러시아 발트함대



국가: 일본
아이템: 시모세
필살기: 러시아 함대 격파
별명: 동양의 넬슨



일본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로 꼽히는 도고 헤이하치로. 그는 러·일전쟁의 클라이맥스 쓰시마 해전에서 세계 최강 러시아 발트함대를 격파해 전쟁의 판도를 뒤집었다. 서구 열강이 하는 걸 모방만 했던 일본 관료들과는 달리 도고는 독창적인 지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등 열강의 해군은 포탄이 적 함대를 관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도고의 적 함대 공격법은 달랐다. 그는 러시아 군함에 쓰인 부식 방지 페인트가 쉽게 불에 탄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포탄의 폭발력과 인화성을 극대화한 화약 '시모세'를 개발하여 발트함대를 침몰시켰다. 그는 쓰시마 해전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일본 최고의 무공훈장인 공1급 금치훈장을 수훈했다.
무사 가문에서 태어나 전통 무예인으로 자란 그는 무사도 정신으로도 많은 존경을 받았다. 도고는 발트 함대 격파 이후 포로로 잡힌 러시아의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에게 직접 문병을 가는 어린 인품의 소유자였다고. 그에게는 의외의 롤모델이 있었는데, 바로 조선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다. 그는 공식석상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흠모하는 말을 자주 해 정부 인사들을 당황하게 했다. 참고로 쓰시마 해전에 출격하던 일본 해군 어뢰정인 충무공 이순신의 신위를 자기 배에 모시고 손뼉을 치며 승리를 기원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공1급 금치훈장

이상에게 뿌려졌으나 대부분이 최하위인 공6급과 공7급이며, 공1급 금치훈장은 단 41명만이 수훈(受勳)했다. 게다가 금치훈장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연합군에 의해 폐지돼 엄청난 희소성을 자랑한다.
주요 수훈자: 일본 육군 원수 스기야마 하지메

Hero's Medal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군인에게 수여했던 무공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금치훈장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백만 명

희대의 이중첩자
후안 푸을 가르시아(1912 - 1988)



영웅 연합군
국정원장



국가: 스페인
아이템: 두뇌
필살기: 구라 치기
별명: 가르보



1941년, 한 스페인 남자가 마드리드 주재 영국 대사관 문을 두드리며 영국군 첩보원이 되기를 자처했다. 하지만 영국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는 방향을 돌려 독일의 첩보원이 됐다. 그 후 영국 첩보부에 자수한 그는 영국의 이중첩자가 됐고, 독일에서는 암호명 '아라벨'로, 영국에서는 암호명 '가르보'로 활약했다. 그는 바로 역사상 가장 유능했던 희대의 이중첩자 후안 푸을 가르시아였다. 영국 첩보부가 이중첩자를 이용해 독일에 거짓 정보를 흘려 독일 첩보망을 쥐고 흔들었던 '더블 크로스' 작전의 중심에는 그가 있었다. 연합군을 돕는 게 인류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푸을은 스스로 이중첩자가 되었고, 뛰어난 창의력으로 수많은 거짓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독일에 흘렸다. 특히 그가 가장 큰 거짓말로 활약했던 작전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처참했던 전투이자,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완전 바꿔놓았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푸을은 연합군의 상륙지점이 노르망디가 아닌 칼레이며, 연합군 병력도 실제보다 훨씬 많다고 부풀려 거짓정보를 독일에 흘렸다. 독일은 푸을의 정보만

믿고 노르망디 주력군을 빼내 칼레에 이동배치했다가 결국 노르망디를 연합군에 내주고 말았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푸을이 이중첩자라는 걸 몰랐던 독일은 전쟁 말기에 그에게 첩십자 훈장까지 수여했고, 영국은 이를 비웃으며 그에게 영국 최고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빅토리아 십자 훈장

Hero's Medal

전쟁에서 적과 대항하여 가장 용맹함을 보여준 병사에게 수여하는 영국군 최고의 무공훈장.

1856년 빅토리아 여왕이 부군 앨버트 고의 요청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크림 전쟁 때 처음 수여됐으며 지금까지 1,357명만이 수훈(受勳)했다.

주요 수훈자: 버나드 로 몽고메리 장군

원샷 원킬 저격 왕
바실리 자이체프(1915 - 1991)



영웅 연합군
특전사령관



국가: 소련
아이템: 모스나강 라이플
필살기: 장교 골라잡기
별명: 러시아 토끼



공식 기록 242명, 비공식 기록 약 300~400명의 독일군을 사살한 소련의 바실리 자이체프는 닥치는 대로 저격하지 않고 군 지휘관급 장교들만 골라사살한 걸로 유명했다. 스탈린그라드에 저격학교를 설립한 바실리는 '새끼 토끼(바실리의 별명은 '러시아 토끼')라 불리는 제2 저격수 28명을 양성했고, 그의 제자들은 3천 명 이상의 독일군을 사살했다. 소련은 이 전설의 저격수를 소비에트연방영웅으로 추대했다. 그의 활약상은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서 영화화 되기도 했다. 바실리는 1943년 포격으로 부상을 입은 후 잠시 눈이 멀었는데, 이때 소련은 그의 시력을 살리기 위해 소련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였던 필라토프 교수를 파견하는 자극정성을

보였다고, 1991년 76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그가 죽은 지 열흘 만에 그가 목숨 바쳐 지켰던 소련이 붕괴됐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저격술은 소련군은 물론 전 세계 저격수의 바이블로 전해지고 있다.



소비에트연방영웅

Hero's Medal

1934년에 제정된 소련 최상위의 칭호이자 가장 높은 훈격이다. 원래 무공훈장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독·소전쟁 기간에 수여됐고, 민간 부문엔

'사회주의노력영웅' 훈장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공훈장으로 분류된다. 소련이 망한 1991년까지 총 12,775명이 수훈(受勳)했다.

주요 수훈자: 이오시프 스탈린

레지옹 도뇌르 vs. 가터 훈장

프랑스와 영국의 최고 훈장을 만든 자와 거부한 자의 말빨 대결



레지옹 도뇌르

"나는 이걸 팔랑거리는 어린애 장난감이라 부른다. 사내들은 이런 장난감에 이끌리는 법이다."
- 프랑스 최고 훈장 레지옹 도뇌르를 만든 나폴레옹이 한 말

"훈장은 무슨 빌어먹을 훈장, 약속한 내 돈이나 주시오."
-프랑스 정부가 진혼곡 사용료 3,000프랑 대신 레지옹 도뇌르를 주겠다고 하자 작곡가 베를리오즈가 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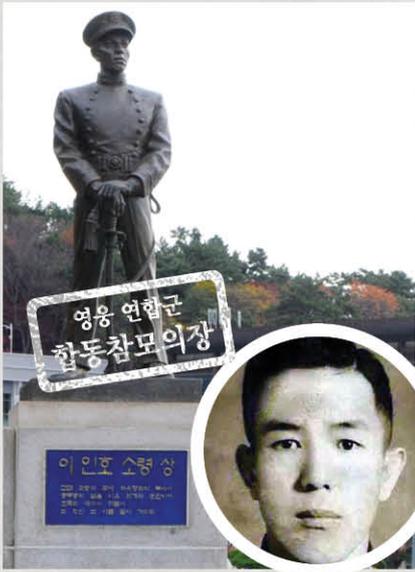


가터 훈장

"악을 생각하는 자에게 수치를!"
- 영국 최고 훈장 가터 훈장을 만든 에드워드 3세의 격언

"국민에게 파면이라는 훈장을 받고 나서 왕으로부터 가터 훈장을 받을 수는 없다."
- 1945년 선거에서 진 처칠에게 왕실이 가터 훈장을 제의하자 그가 한 말

살신성인 지휘관
이인호(1931 - 1966)



국가: 대한민국
아이템: 희생 정신
필살기: 수류탄 무력화
별명: 월남전 영웅



1966년 8월 11일, 베트남 푸이호아 평야에서 수행한 해공작전 마지막 날, 9중대 중대장 이인호 소령은 전날 체포한 베트남 첩자 일곱 명을 신문해 적의 은거지를 알아냈다. 이인호 소령은 곧바로 첩자와 대원들과 함께 헬기로 그곳에 도착했다. 대나무 숲에서 지름 70cm 정도의 동굴 입구를 발견한 이인호 소령은 대원 4명을 지휘하며 직접 동굴 수색을 시작했다. 동굴은 7자로 꺾여 있었다. 이인호 소령이 커브를 돌아 계속 진입하려 할 때 갑자기 수류탄이 날아왔다. 그는 대원들에게 "수류탄이다! 엎드려!"하고 외치며 날아온 수류탄을 재빨리 집어 던졌다. 하지만 곧 수류탄 또 하나가 그들을 향해 날아왔고, 다시 집어던질 여유가 없었던 이인호 소령은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 대원들을 보호하고 장렬히 전사했다. 이인호 소령의

죽음을 본 대원들은 소총을 쓰고 수류탄을 투척하며 맹렬히 돌진해 좁은 동굴 안을 지옥굴로 만들며 적을 사살했다. 정부는 이인호 소령의 살신성인의 지휘관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를 대위에서 소령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태극무공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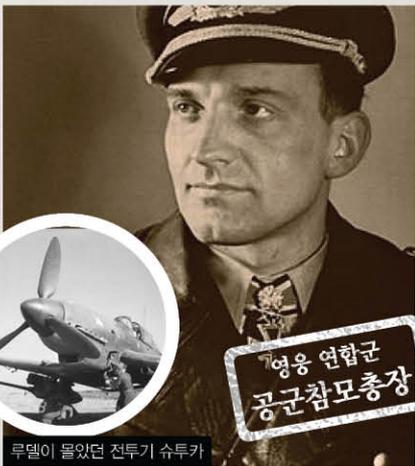
Hero's Medal

대한민국 최고의 무공훈장이다. 건군 이후 태극무공훈장 수훈자는 모두 320명. 다른 나라의 훈장보다 수훈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전쟁

유공자 163명, 월남전 유공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141명이 비전투 유공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주요 수훈자: 더글러스 맥아더, 전두환(후에 군사 반란으로 수훈이 취소됨)

(1945)의 실사판
한스 올리히 루델(1916 - 1982)



황금 다이아몬드 백엽 검 기사 철십자 훈장

Hero's Medal

정식 계통으로 인정받지 못한 철십자 훈장을 제외하면, 나치의 무공훈장 중 가장 서열이 높은 훈장이다. 1944년 2차 세계대전 전사자 중 최고 수훈자 12명을

선별해서 수여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생존자인 한스 올리히 루델만이 유일하게 수훈(受勳)했다.

주요 수훈자: 한스 올리히 루델 외 없음

2차 세계대전에서 세운 대기록이다. 혼자서 사단급 병력을 씌어 드신 거다. 이러한 전공으로 그는 독일 최고의 무공훈장 '황금 다이아몬드검 백엽기사 십자장'을 수훈했다. 그것도 8백만 독일 장병 중 유일하게! 엄청난 전공을 세운 만큼 위험한 순간도 많았다. 그는 2천 번 넘게 출격하는 도중 격추를 30번 당했고, 부상도 5번이나 당했다. 마지막엔 다리 한 쪽을 잃었다. 그래도 안 죽은 거 보면 거의 불사신 수준. 근성의 사나이 루델은 병원에서 퇴원하지 말라고 말려도 아군이 당하는 것을 보고 몰래 출격하기도 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목발을 짚고 등산가로도 활동했다. 독일군 원수 페르디난트 셰르너는 "루델 한 사람은 1개 사단 몫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스탈린은 그를 소련 인민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당시 평생 놀고먹을 수 있는 돈 10만 루블(약 300만 원)의 현상금을 그의 목에 걸었다.

허풍으로 따지면 슈퍼 히어로
김철진(1972 -)



국가: 북한
아이템: 김일성 초상화
필살기: 허언증
별명: 혁명전사



1994년 1월, 서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얼빠진 북한군 두 명이 태풍을 만나 실신 상태로 남한 경비정에 구조됐다. 북한군 하사 김철진과 상등병 김경철이었다. 이들은 수도 통합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은 후 판문점을 통해 북에 송환됐다. 여기까지가 두 어리숙한 병사가 남한에서 겪은 이야기다. 그런데 그들이 송환된 지 얼마 안 돼서 북한 노동신문은 6개 면 중 1개 면을 할애해 이들의 영웅적 행위를 선전했다. 노동신문은 이 두 병사가 남한의 귀순 공작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 독일
아이템: 슈투카
필살기: 밥 먹듯 출격하기
별명: 슈투카 에이스



통산 2,530회의 출격, 탱크 518대 격파, 트럭 700대 격파, 대공포와 포대 150대 격파, 다리, 철도, 병커 100개 이상 파괴, 소련군 전함 시월혁명호 반파, 마라호 격침, 상륙용 함정 70여 대 격파, 적 전투기 11기 격추. 독일 공군의 영웅 한스 올리히 루델이 낚아 그려터진 독일 폭격기 슈투카를 타고

이들이 남한에서 새 옷을 제공하자 "내가 입고 온 장군님 군대의 군복을 달라"고 했으며, 가져온 군복에 김일성 초상화가 없자 "수령님의 초상화를 돌려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두 혁명전사가 괴뢰군 100만 명과 대결해 싸워 이겼다고 부풀리기도 했다. 김철진은 일개 사병에서 단숨에 북한 최고 훈장인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았고, 군관(장교)으로 발탁됐다. 김철진을 이용한 정훈 교육이 효과가 있었나보다. 2년이 지난 1996년에는 19살의 상등병 정광선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남측에 구조됐고, 복송된 후에는 "남측 경비정이 구조하려고 하자 도끼를 들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저항했다"며 한술 더 떴다. 북한은 그의 절개를 찬양하며 공화국영웅 칭호를 또 다시 내렸다. 아무래도 북한은 훈장이 남아도나 보다.



공화국영웅

전공이 있는 자를 수훈하는 것이었으나, 2012년 광명성 3호 발사 관련자 101명과 2013년 지하 핵실험 관련자 100명에게 수훈되는 등 바람둥이가 화이트데이에 사랑 뿌리는 마냥 남발되고 있다. 이베이 사이트에서는 2,500달러에 판매된 바 있다.

주요 수훈자: 김일성

Hero's Medal

소비에트연방영웅을 모방한 북한 최고 등급의 칭호이자 훈장.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6월 30일 제정됐다. 취지는 한국전쟁에서 특별한



명예훈장 vs. 태극무공훈장

극대 극 혜택 비교



1 명예훈장

미국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훈하면 연금 1,237달러(우리 돈 약 130만 원)를 받으며, 퇴직 시 남들보다 10% 상향된 은퇴연금을 받는다. 이는 시세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수령액은 평생 계속 오른다. 또한 수훈자는 평생 의료 혜택을 제공받으며, 특별한 상황에서 군 수송을 요청하고 싶으면 미 공군을 호출할 수 있다. 장례식은 미군 최대 명예로 100% 지원되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수훈자의 자녀는 미국 사관학교 입학이 보장된다. 미군 부대의 특정 지명이나 전함 등을 수훈자 이름을 따서 지으며, 수훈자는 계급에 상관없이 대령이나 상원의원, 장군의 거주경례를 먼저 받는다. 전쟁 나면 목숨 걸간 하겠는데?



2 태극무공훈장

대한민국 최고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훈하면 생계 보장비 15~20만 원을 받는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수훈자의 자녀는 공무원 시험 시 5% 가산점을 받는다. 그래, 애국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지...

실존하는 랍보

존 바실론 (1916 - 1945)



바실론의 고향 뉴저지에 있는 그의 동상



국가: 미국

아이템: 브라우닝 M1917 기관총

필살기: 기관총 들고 쓰기

별명: 마닐라 존



1942년 10월 24일 밤, 미 해병대 1사단의 존 바실론이 이끄는 기관총 분대는 과달카날 섬의 톱가 지역에서 3,000여 명의 일본군 연대 병력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았다. 바실론은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다른 중대의 침호까지 달려가 기관총을 운반했고, 고장이 난 기관총을 수리해서 썼다. 보급이 끊겨 탄약이 바닥을 드러내자 적들의 저항을 뚫고 연대 본부까지 달려가 탄약을 가져오기도 했다. 바실론의 기관총 분대는 48시간의 교전 끝에 3,000명의 일본군 연대 병력을 초토화시켰다. 이 전투의 공로로 존 바실론은 미군의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훈했다. 명예훈장을 받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이 된 바실론은 1년 동안 전신 후원금 모집을 홍보하는 얼굴 마담으로 이용됐다. 그는 상부에 끈질기게 전선 복귀를 요청했고, 원대로 전투들이 있는 이오지마 전선으로 돌아간 그는 적의 박격포 파편에 전사한다.

존 바실론이 사용한 브라우닝 M1917 기관총은 탄약 무게까지 합해 20kg 이상이나 되고 반동도 크기 때문에 들고 싸우는 건 불가능했다. 미드 (더 퍼시픽)에서는 극중 존 바실론이 이 기관총을 들고 총열에 화상을 입어가며 싸우는 모습을 그렸고, 시청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실제로 바실론이 이 기관총을 들고 다니며 일본군을 상대했다는 증언이 많이 남아 있다. 오히려 실제 전투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들을까봐 드라마에서는 존 바실론의 활약을 축소해서 표현했다고.



명예훈장

Hero's Medal

미국의 적과 전투 중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눈에 띄는 용맹을 보여준 군인이라 판단될 때 수여하는 미국 최고의 무공훈장. 육군, 해군,

공군의 훈장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1861년 이후 지금까지 총 3,468회 수여됐다.

주요 수훈자: 영화 <블랙호크다운>의 실화 주인공 랜디 슈거트와 게리 고든

from MAXIM Australia 





SEXY THREESOME

SHERIDYN & RENEE & ELLIE

MAXIM 호주판 커버를 장식한 섹시 모델 **셔리딘, 르네, 엘리**.
그녀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SNS 스타다. 서로 죽고 못 사는 절친 미녀
삼총사의 뒷마당에서 열린 비키니 파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좋아요' 누를 준비됐나?

PHOTOGRAPH NEILDIXON 옮김이 김소윤

초특급 섹시
플파티 현장





Renee Somerfield

르네 소머필드

출신: 시드니
 생일: 1990년 5월 16일
 가장 좋아하는 술: 과일 맛 술
 트위터: @reneesomerfield

→ 이렇게 섹시한 미녀를 한 번에 셋씩이나 만날 수 있다니 영광이다. 셋이 친한 친구라던데, MAXIM 화보를 함께한

소감은 어떤가?

엘리: 저는 이번이 세 번째 MAXIM 표지 촬영이지만, 지금만큼 흥분한 적이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인 서리딘과 르네가 함께 등장해서 더 특별하죠.

르네: 세계 최고의 남성 잡지 MAXIM의 표지를 찍게 돼서 영광이에요. 특히 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명의 여성과 함께 말이죠!

서리딘: 촬영을 하며 무척 즐거웠어요. 초대해줘서 감사해요!

별말씀을! 이번 촬영의 콘셉트는 뒷마당 수영장에서 열린 여름 파티다. 뒷마당에 있을 때는 주로 어떻게 입고 있나?

엘리: 수영할 때에는 당연히 비키니를 입고, 강아지 데이지와 놀 때는 핫팬츠에 컨버스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거꾸로 눌러 쓰고 있어요.

서리딘: 강아지랑 놀아줄 때는 주로 짧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일광욕에는 역시 비키니죠.

르네: 우리 집 뒷마당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사적인 공간이에요. 태닝을 한 제 몸에 수영복 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비жай죠?(웃음)

뒷마당에서 일광욕하는 당신들의 모습을 자주 상상하게 된다. 이번 촬영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서리딘: 이렇게 셋이 모이면 항상 즐거워요.

르네: 촬영이 끝날 때쯤 우리 셋이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며 노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실시간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더라고요.

엘리: 함께 있으면 지루한 시간이 단 1초도 없어요. 촬영 현장을 누군가 지켜봤다면 우리더러 미쳤다고 했을걸요?(웃음)

셋이서 알고 지낸 지는 얼마나 됐나?

르네: 광고 촬영을 하면서 처음 만났지, 아냐?

엘리: 맞아. 3년 전쯤 일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성격이 비슷해서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꽂혔죠.

서리딘: 셋 다 채식주의자라는 공통점 덕분에 더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맛있는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러면 이런 파티를 열 때는 보통 어떤 음식을 먹나?

르네: 채소로 고기 맛을 낸 음식이 있어요. 고기랑 모양새도, 맛도, 냄새도 완전히 똑같죠. 고기에 환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채소 고기로 만든 요리를 먹으면 깜짝 속아요. 나중에 채소로 만든 거라고 밝히면 다들 놀라죠.

엘리: 바비큐 파티를 할 때마다 다들 저보고 요리를

해달라고 난리예요. 제 요리가 진짜 꼬기 요리보다 훨씬 맛있고 먹음직스럽대요. 게다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당신들의 뒷마당에서 열리는 수영장 파티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엘리: 친한 여자 친구들을 다 초대해요. 호주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DJ 허버나 브라운(MAXIM 2013년 11월호에 등장)이 비키니를 입고 텐테이블을 돌리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음악에 맞춰 차가운 마르가리타를 마시며 춤을 추거나 수영을 해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파티죠.

서리딘: 수영장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백조 보트가 떠 있어요. 그 위에서 놀다가 잔디로 가서 음주 축구를 하는 거예요. 딱 오늘 화보 촬영장 같은 분위기를 상상하면 돼요. 여기에 완전 섹시한 여자들 몇 명 더 추가되겠죠?

르네: 맞아. 딱 지금 같은 모습일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나?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파티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광란의 파티는?

엘리: 사람들은 우리가 방에서 속옷만 입고 베개 싸움을 하며 재미있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꽤 나쁜 여자들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라고요.



←
**Sheridyn
Fisher**

서리딘 피셔

출신: 센트럴 코스트

생일: 1986년 6월 6일

가장 좋아하는 술: 코코넛 향 시락

트위터: @sheridynfisher

from MAXIM Australia 





“

**My backyard
and pool area
is very private.
Have you
ever noticed
I don't sport
tan lines?**

우리 집 뒷마당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사적인 공간이에요.
태닝을 한 제 몸에 수영복 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보이죠?

-르네-

”



Ellie Gonsalves

엘리 곤셀브스

출신: 브리즈번
 생일: 1991년 2월 5일
 취미: 노래
 트위터: @EllieGonsalves

르네: 호주 MAXIM에서 연 'HOT 100' 파티가 가장 와일드했어요. 섹시한 바텐더가 거의 헐벗은 채로 술을 끝도 없이 나눠줬죠. 그날 밤은 정말이지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서리딘: 사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광란의 밤을 보냈어요. 어떤 파티든 배꼽 빠질 정도로 웃으며 끝이 나죠.

서로의 장점을 한 가지씩 빼앗을 수 있다면?

서리딘: 어떻게 하나만 고르죠?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엘리의 엉덩이와 복근, 르네의 입술과 다리 중 어떤 걸 가지면 더 좋을까요?

르네: 전 늘 서리딘의 늘씬한 다리를 부러워했어요.

엘리는 여자인 제가 보기도 정말 섹시해서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으로 손이 가요. 제가 늘 만지작거리죠. 그래서 수많은 남성이 저를 부러워해요.

엘리: 두 친구 모두 결점 없이 완벽해요. 아아, 하나를 고르려니 너무 힘드네요.

서로의 칭찬은 그만하고, 본인 자랑을 해보자.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엘리: 전 자신감이 강한 편이에요.

서리딘: 차이?(웃음) 제 큰 앞니를 보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토끼 이빨'이라고 놀려댔는데, 커서 저는 MAXIM 모델이 됐죠. 인생 참 재밌죠?

르네: 어렸을 때 저는 팔다리가 가늘고 키는 큰데, 가슴만 엄청 크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지금 누가 웃는 거죠?(웃음)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일 말고 또 어떤 활동을 하나?

르네: 일하다가 잠깐이나마 짝이 날 때는 해변에 가서 수영하고 보트를 타거나 캠핑을 해요. 아웃도어 활동에 푹 빠졌어요.

서리딘: 저는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수영복 브랜드 'Sheridyn Swim(서리딘 스вим)'과 'Swan Production(스완 프로덕션)'이라는 브랜드 사진 촬영 기획 프로젝션을 운영해요.

엘리: 요즘 제 수영복 브랜드에 열정을 쏟고 있죠. 환경 보호 단체인 'Wildlife Warriors(와일드라이프 워리어)'의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어서 행복해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겠군. 세 명 모두 SNS에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비결이라도 있나?

르네: 비결이란 것은 없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데, 주로 비키니를 입은 사진이 많죠. 그래서 그런가?

서리딘: <플레이보이>의 모델이 되었을 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아마도 일에 열정적인 제 모습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엘리: 저도 일하는 모습을 주로 올려요. 제 SNS에는 강아지도 자주 등장하죠.

SNS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서리딘: 주변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도전하는지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르네: SNS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친구도 꽤 사귀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당신을 팔로우하면, 그만큼 넓은 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엘리: 제 열렬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아요. 그 사람들이 제게 영향을 받아,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갖도록 할 수 있잖아요!

열린 집에 가서 당신들의 SNS를 팔로우해줬다. 마지막으로 당신들과 사귀려면 어떤 남자가 되어야 하나?

르네: 자기 생각만 하는 남자는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남자는 멀리서 봐도 티가 딱 나죠. 겸손한 사람이 훨씬 귀여워요.

엘리: 저는 남자를 볼 때 눈, 어깨, 몸 그리고 미소를 봐요. 따지는 게 좀 많나요?(웃음)

서리딘: 영혼이 담긴 눈빛, 자상한 미소 그리고 섹시한 향기. 하지만 센스가 가장 중요해요! 



STYLING SHERIDYN SWIM, INCREDIBLE SWIMWEAR BY ELLIE GONSALVES

2014 MISS MAXIM CONTEST

세계적인 남성 잡지 MAXIM에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아라!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 MAXIM 스태프들과 함께 판타스틱한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
온라인 예선 통과시
MAXIM 한국판 정규 월호 촬영

◆
MAXIM PARTY 포스터 모델 및 MAXIM의
PARTY GIRL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2014년 콘테스트 총 상금 700만 원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상금 10만 원)

◆
4강 진출 시 MAXIM 특별판 매거진
표지 모델로 발탁

◆
우승 시, 2015년 MAXIM 매거진 정규 월호
(1월~12월호 중 하나) 표지 모델로 선정

2013 MISS MAXIM
최종 우승자 김소희

참가 신청 방법

MAXIM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섹시함을 잘 표현한 사진을
10장 이상 업로드 한 뒤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쓴다.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

벌써 투표
시작했다고?



콘테스트 진행 방식

MISS MAXIM 콘테스트 온라인 예선에서는
본인이 올린 사진이 MAXIM을 통해 공개되며,
다른 참가자와 1대 1 인기 투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9일 간의 인기 투표 배틀에서 더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참가자가 예선을 통과한다.
예선 통과자에게는 즉시 상금이 지급되며,
'이달의 MISS MAXIM'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화보 촬영에 들어간다. '이달의 MISS MAXIM'
화보는 MAXIM 한국판 정규 월호 매거진에 실린다.

이어, 2014 MISS MAXIM 콘테스트 16강전에
진출하여 우승을 위한 토너먼트를 시작한다.
16강부터는 상금액수도 더욱 높아지니 숨은
매력녀들의 뜨거운 참가 신청 바란다!

문의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missmaxim@maximkorea.net

Style

JUMP UP!

에어 조던6 인프라레드



새 신을 신고 뛰어 보기엔 너무 아까운 그대

BY 조웅재 PHOTOGRAPH YuD

Air Jordan 6 Infrared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신발 가게 사장에게 30엔(우리 돈 약 300원)을 주고 갈취한 바로 그 농구화. 건담 대가리를 연상시키는 흰빨 컬러와 수줍게 드러낸 깔창 에어 라인까지, '에어 조던'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다. 2014년에는 수많은 조던 레트로 라인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인프라레드(Infrared)는 매장에 뿌러지는 족족 불티나게 팔려 재입고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 뭐, 이걸 신으면 덩크슛이라도 할 수 있느냐고? 물론이다. 187cm 이상의 장신에 흑형과 맞먹는 순간 근력만 있다면 어려울 게 없다. 단지 신발은 거들 뿐.
가격 189,000원



어디서 봤더라?

"이게 갖고 싶어요" in 슬램덩크



에어 조던의 덩크 쇼!



ASSISTANT 박정욱, 진수진 채희진
COOPERATION 스포카싱사(02-2605-5415) 흥태 에이티파이버(010-4703-6856)

봄을 알리는 청바지 10

할아버지 냄새 나는 코듀로이는 옷장에 넣고, 청바지를 꺼내자.

1. DL 1961 프리미엄 데님
 백바지의 시대는 분명 다시 온다.
 다크 진, 18만 원 / dl1961.com

2. 리바이스
 집에 리바이스 501 하나씩은 다
 있잖아?
 501, 8만3천 원 / levi.com

3. 허드슨
 봄을 알리는 연청으로 화사해지자.
 바이블 스트레이트 진, 21만3천 원
zappos.com

4. 게스
 파스텔 톤 상의에 어울리는 귀요미
 스타일의 완성.
 로버트슨, 10만5천 원
guess.com

5. Denim&Supply 랄프로렌
 청바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딱
 그 이미지
 슬림핏 진, 9만7천 원
ralphlauren.com

6. 갭
 밝은 스노우진 하나로 센스남이
 되어 보자.
 1969 슬림핏 진, 7만5천 원
gap.com

7. 칼하트
 귀여워 보이고 싶다면 생지 데님에
 스넵백을 쓰도록.
 시리즈 1889 링-스푼, 6만5천 원
carhartt.com

8. 트루릴리전
 고고장이나 플라장에서 분명히
 먹히는 스타일.
 로코 진, 24만5천 원
truereligionbrandjeans.com

9. 캘빈 클라인 진
 김칫국을 자주 흘리는 열령이는
 시도하지 말 것.
 화이트 워싱 진, 9만7천 원
calvinklein.com

10. 실버진
 튀고 싶지 않은 젠틀맨을 위한 청바지.
 슬림핏 진, 9만5천 원
silverjeans.com

청바지 길들이기

애인 같이 소중한 청바지를
 걸레로 만들지 않고 길들이는 법.

인내하기

최소 두 달은 절대 빨지 말고 주구장창
 입어라. 그리고 드라이클리닝을 맡겨라.

피서 가기

생지데님을 입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모래에서도 굴러라. 다 놀고 난 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벨랫줄에서 태닝
 시켜주자.

목욕하기

생지데님을 입고 반신욕을 한 후 그대로
 말린다. 스머프가 되기 싫다면 바로
 씻는 게 좋을 걸?

끝 때리는
 청바지
 광고



Drinkin' Time!

술독에 빠뜨려도 끄떡없을 방수시계들.

1. 닉슨 슈퍼 타이드

차고 다니면 어쩐지 손목을 새하얗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이름 '슈퍼타이드'. 이름이 주는 느낌만큼이나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무난한 캐주얼룩에 포인트하기 좋은 아이템.

214,000원 / 닉슨(nixon.com)

2. 시티즌 예코-드라이브

건전지 대신 주변의 빛을 모아 전기를 만들어 작동한다. 충전하고 싶으면 시계 찬 손을 높이 들고 크게 외쳐라. "지구인들이 나에게 힘을 줘!"

744,000원 / 시티즌 (citizenwatch.com)

3. 빅토리눅스 다이브 마스터 500

무려 수심 500m까지 방수가 가능한 놀라운 녀석. '맥가이버 칼'로 유명한 나이프의 명가 빅토리눅스의 제품이다. 그렇다고 시계에 칼날 같은 게 숨어있진 않으니 걱정 말고!

851,000원 / 빅토리눅스 (swissarmy.com)

4. 해밀튼 카키 네이비 서브 오토

클래식한 디자인의 시계판과 캐주얼한 오렌지 컬러가 묘한 조화를 이룬다. 공부 잘하면서 싸움도 잘하는 녀석을 보는 기분 아닐까?

2,136,000원 / 해밀튼 (shop.hamiltonwatch.com)

5. 스와치 스쿠버 리브레 플레이어로

손목에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가벼운 소재의 플라스틱 시계. 선명한 노란색과 파란색이 어쩐지 낯익다 했더니 호혹시... 보로로?

97,000원 / 스와치 (store.swatch.com)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칵테일: 70 Times Seven

남들 다 아는 흔해 빠진 칵테일 좀 그만 빨아라. 여기 필라델피아의 막솔로지스트 '자카리'가 탄생시킨 신상 칵테일, '세븐티 타임즈 세븐'을 소개한다.

- 진 1/2 oz
- 아페롤 1/2 oz
- 라임주스 1/2 oz
- 자몽주스 1/2 oz
- 시럽 1/4 oz

- 재료들을 셰이커 안에 넣고 얼음과 함께 잘 섞는다.
- 자몽을 얇게 썰어 장식한다.

Style news

봄철 필수 아웃도어 아이템, 마모트(Marmot) 배색 방수 재킷

아웃도어 브랜드 마모트(Marmot)가 세련된 디자인의 배색 방수 재킷을 출시한다. 봉제 선으로 물기가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심실링 기술을 이용해 완벽한 방수 기능을 갖췄다. 외피와 내피는 탈부착이 가능해 날씨에 따라 따로 입거나 동시에 착용할 수 있다. 가슴과 팔 라인에 배색 디자인을 적용한 파랑과 빨강 두 가지 스타일로 출시된다. 후드도 탈부착이 가능하니 일교차가 심한 봄철 아웃도어 재킷으로 제격이다. 꽃샘 추위 따위가 무엇이더냐?!

278,000원 / 마모트(www.marmotkorea.com)



행텐, 부드러운 내추럴 거즈(Natural Gauze) 셔츠 출시

이번 봄에는 만개한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남자로 거듭나보자. 아메리칸 모던 캐주얼 행텐이 선보인 내추럴 거즈 셔츠는 베 소재의 무명 직물 원단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부드러우며 통기성이 뛰어나다. 약간의 구김이 있어 더욱 멋진 내추럴 거즈 셔츠는 활동성까지 뛰어나 비즈니스 캐주얼 룩을 연출하기에 안성맞춤인 패션 아이템이다.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그날의 기분에 맞는 색상으로 스타일 해보자. 그녀와 격정적으로 놀다가 어딘가 다치면 셔츠를 찢어 살짝 그 부위를 감아주자! 봉대 대신!

19,900원 / HANGTEN(www.hangten.co.kr)



영덩이야 탐스럽게 봉긋 솟아라! GUESS 동안 팬츠

죽여라 복근 운동하고 식스팩 만들어봤자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랴. 남자의 섹시함은 봉긋 솟은 영덩이만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GUESS가 출시한 동안 팬츠는 동양인에게 최적화된 라인으로 디자인되어 남자의 영덩이를 더욱 탄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뒷주머니에 달린 금속 GUESS 장식은 영덩이는 더욱 봉긋하게, 다리는 길~어 보이게 해 훈남의 조건을 만족시켜준다. 봉긋 솟은 너의 영덩이는 그녀의 가슴에게 각성을 촉구하게 할 것이다. 응?

258,000원 / GUESS(www.guesskorea.com)



캐주얼 데이트 룩의 완성, 워싱 데님셔츠 브랜드드

만물이 소생하고 사랑을 꽃피우는 계절 봄이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썸녀를 만날 생각에 '내일 뭐 입지?' 고민만 하다 늦잠 자고 약속 시간에 늦지 말자. 럭셔리 의류 브랜드 브랜드드에서 봄을 맞아 워싱 데님셔츠를 선보인다.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데님셔츠는 어디에 매치해도 댄디한 매력을 뽐낼 수 있기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봄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캐주얼한 스타일에 맞춰 아자수 나무의 껍데기를 깎아 만든 너트 단추를 달았다. 데님셔츠가 잘 어울리는 남자가 진짜 마초제!

49,000원 / 브랜드드(053-428-5007, www.brande.co.kr)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블랙야크 워크핏(Walk Fit)

엄마가 말하길 신발은 발이 편한 녀석으로 신어야 한다고 했다. 블랙야크에서 출시한 워크핏은 가볍고 신축성까지 뛰어나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녀석이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발등의 압박을 최소화했고 루프 그립(Loop Grip)이라는 특수 밀착을 이용해 접지력과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향상시켰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색감이 돋보이는 워크핏 시리즈는 총 15종 37가지 스타일로 출시되며 패션 슈즈로도 제격이다. 발이 편해야 몸도 건강해지는 거야. 표 표 사 사 가 가능해야 사랑이 오래가듯이!

219,000원 / 블랙야크(02-2027-0800)

Watch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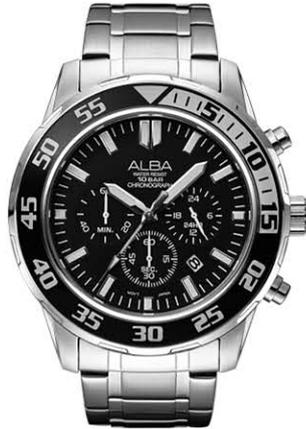
자스페로의 새로운 얼굴, 투파토레 TG201-16

남성적인 디자인에 최고급 기술을 녹인 새로운 다이버 워치 자스페로의 투파토레 TG201-16이 등장했다. 무광의 손목밴드와 12각으로 디자인된 베젤은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을 주며 강인한 남자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용두와 밴드에 자스페로의 로고를 각인해 자스페로만의 섬세함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했다. 자체 발광하는 수퍼 루미노바로 세팅된 인덱스와 시계 침이 탑재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시간을 확인하기 쉽다. 반짝 반짝 눈이 부셔~네!네!네!네!네!
597,000원 /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모든 패션에 완벽 맞춤, ALBA Active Gents AT3507X

따뜻한 봄기운에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스포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ALBA Active Gents AT3507X를 차고 건강미 넘치는 남자로 변신해보자. 보름달처럼 둥글고 큰 48mm의 케이스 위에는 숫자 인덱스가 크게 각인되어 쾌활한 남자의 시계임을 표현했다. 날짜와 24시간 시각 표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적용해 실용성까지 좋다.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모든 패션에 어울리는 AT3507X 하나만 있으면 올 봄 스타일 걱정은 게임오버! 만능 패션 아이템으로 딱!
240,000원 / 삼정시계(02-511-3182)



내 여자를 위한 고급스러운 시계, 밀튼스텔리 MS-105RW

밀튼스텔리의 미니멀한 특색을 담은 아름다운 시계 MS-105RW를 그녀의 손목에 감아주자. 청량한 느낌이 나는 푸른빛의 로마자 인덱스는 골드 색상의 문자판 위에 새겨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순백의 가죽 밴드와 메탈로 이루어져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가죽 밴드의 뒷면은 진한 분홍색으로 여성스러움을 부각했다. 밀튼스텔리 MS-105RW를 그녀의 손목에 채워주는 순간! 꿈쩍 마! 그녀의 마음을 훔친 죄로 당신을 체포한다!
161,000원
밀튼스텔리(www.miltonkorea.com)



극한 도전! Luminox Navy Seal Colormark 3052.BO

루미녹스의 베스트셀러 시리즈인 Colormark 라인에 새로운 모델인 3052.BO가 합류했다. 이 녀석의 케이스와 밴드는 탄소 섬유인 카본파이버로 만들어져 더욱 가볍고 견고하다. 또한 별도의 동력 없이도 25년간 빛을 유지하는 루미녹스 발광 테크놀로지 기술과 밝은 파란색과 오렌지 트리톤 가스를 적용해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도 가독성이 뛰어나다. 밴드부터 시계 침까지 올 블랙! 이런 것이 바로 흑간지 아니겠어? 이보다 더 특이한 놈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480,000원
미림시계(02-757-9866, www.milimwatch.co.kr)



개성이 톡톡 터지는 헬다이버 SB2C-1001BR

강렬한 이미지로 남자의 손목을 돋보이게 해줄 아이템 헬다이버 SB2C-1001BR가 출시됐다. 총알처럼 생긴 용두와 보는 위치에 따라 청량한 푸른빛을 띠는 블루코팅 글라스, 그리고 회전 베젤 등 톡톡 튀는 디자인이 돋보인다. 또 천연 가죽 손목 밴드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지금 헬다이버 홈페이지에서 후기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바로 참여하자. 살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헬다이버 SB2C-1001BR은 다른 녀석의 손목에 걸려 너에게 작별을 고할 것이다.
249,000원
헬다이버(www.helldiverwatches.com)



산뜻한 스타일링 아이템, 잉거솔 산타로사(Santa Rosa)

푹푹한 청춘의 힘찬 비상을 상징하는 고급 시계 잉거솔 산타로사 IN7208WHMB 모델을 소개한다. 파란색의 초침이 은색의 스틸 케이스와 어우러져 산뜻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산타로사는 시스루 백 디자인을 통해 시계의 내부까지 훤히 보여준다. 밤과 낮을 구별하는 문 페이즈와 2가지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듀얼타임 기능이 있다. 얼마 전에는 배우 이종석이 대학 입학식에 산타로사를 차고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웬지 차면 초능력 돌을 것 같은데?! 호이!
655,000원
잉거솔(02-3397-7100, ingersoll.kr)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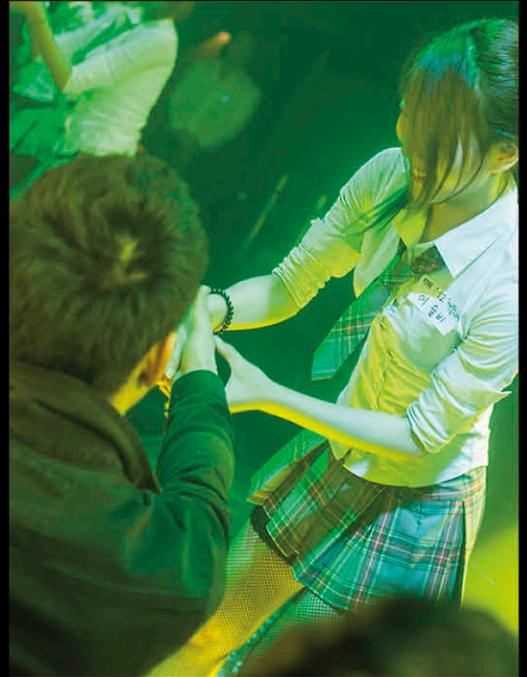
M2 THE SCHOOL 2014. 03. 01

 그거 아냐? 여자도 남자만큼 '교복'이라는 단어에 반응한다는 사실. BY 김소연



타이트한 셔츠, 체크무늬 미니스커트에 스타킹과 니삭스, 이런 착장이야말로 '섹시'를 의미하는 만큼 공통어가 아니겠나. 물론 당신이 진짜 '교복'에 끌리는 남자라면 아첨아첨 울며 쇠고랑을 득템할 확률이 높지만, 섹시한 옷에 교복의 냄새만 끼얹은 '스쿨 룩'은 남녀 모두를 안달 하게 한다. 흥대에 위치한 클럽 m2에서 '드레스 코드=스쿨 룩'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을 때, 이 동네의 섹시녀들은 모두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거다. "이건 꼭 가야 했!"





그렇다. 개강을 하루 앞둔 3월 1일, 홍대의 명물 클럽 m2에서 스쿨 록 파티가 열렸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소문을 들은 화끈한 미녀, 또 그런 미녀를 기대한 수컷들이 하나 둘 클럽 앞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아직 쌀쌀한 날씨에 그녀들이 걸쳐 입은 코트 아래로 아슬아슬한 체크무늬 스커트 밑단과 하얀색 니삭스가 보였다. 입장하기도 전에 에디터의 전투력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오늘... 진짜 제대로다."



Party



역시나 스킨 룩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클럽에 들어서자, 앞선이 터질 듯 타이트한 셔츠 차림의 소녀(?)들이 붐을 잡고 웨이브를 취대는 모습이 보였다. 하얀 니삭스 위로 드러난 허벅지도 테이블 위에서 흔들거렸다. 메인 디제이, 마제스틱&시온즈 (MAXIM 2013년 7월호에 등장)가 선곡한 현란한 음악에 맞춰 파티는 점점 광란의 도가니가 되어갔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자 술병을 든 교복녀들이 스테이지 위로 우르르 올라가 '드링크 타임'의 시작을 알렸다. 점심시간을 5분 앞둔 학생처럼 사람들은 흥분했고, 그녀들이 나눠주는 공짜 술에 모두가 얼큰하게 취해갔다.





학업에 지친 대학생, 연이은 공탈에 좌절한 취준생, 일에 찌든 직장인 모두 교복녀들이 내뿜는 색기를 자양강장제처럼 섭취했다. 에디터 또한 마찬가지. 함께한 친구들은 에디터가 최근 5개월 중 가장 신나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게 바로 스쿨 룩의 힘인가? 편집장님, 우리도 '교복 특집호' 한번 가요! 🍷

Smoke & Drink

오감 자극! 과일 작업주 스카이 보드카 마티니



냄새만 따라한 가짜 과일주는 가래 맛, 색, 향 모두 레알. 그녀를 훤히(혹 가게) 만들 농도 짙은 과일 작업주를 직접 만들어보자. BY 김소연

여자가
꼬이는 술
제조법



Helper 신호민
(a.k.a ALEX)

8년 동안 바텐더로 활동하면서 영국, 호주, 미국 등 해외에서 궁극의 칵테일 기술을 연마했다. 현재 국내 주류 회사에 근무하며 주류와 칵테일을 연구 중이다.

준비물

- 과일 향이 나는 스카이 보드카
- 열대과일(파인애플, 라즈베리, 청포도 중 선택)
- 바 셰이커 틴*
- 믹싱 글라스*
- 바 스푼
- 머들러*
- 스트레이너*
- 마티니 잔
- 얼음 약간

*바 셰이커 틴: 칵테일 등을 섞을 때 쓰는 스테인리스 컵

*믹싱 글라스: 입구가 넓은 유리잔

*머들러: 과일을 으개는 방향이

*스트레이너: 과일 찌꺼기를 거르는 망



1 본격적으로 제조에 들어가기 전, 마티니 잔에 얼음을 가득 채워 잔을 차갑게 식힌다. 여자는 이런 사소한 센스에 반하는 법!

2 이제 절구질을 할 차례다. 열대과일 한 움큼(청포도 8알, 파인애플 5~6조각, 라즈베리 6스푼 중 선택)을 믹싱 글라스에 넣고 머들러로 으개서 즙을 낸다. 쿵덕 쿵덕~

3 바 셰이커 틴 바닥에 얼음을 깔고 그 위에 과일즙이 담긴 글라스를 잔째 넣는다. 글라스에 얼음을 반 정도 채운 후 과일에 어울리는 플레이버의 스카이 보드카를 2온스 붓는다. 2온스는 약 60mL 이므로, 소주잔으로 한 잔 반 정도 넣으면 된다. 이제 손잡이가 긴 바 스푼으로 좌우 돌리면서 얼음과 액체를 확확 젓는다. 좌삼삼 우삼삼!

4 마티니 잔에 담겨 있던 얼음을 뺀 후 스트레이너로 과일 찌꺼기와 얼음을 걸러내며 글라스 안의 보드카를 따라 담는다. 과일즙이 섞인 때 잘 좋은 보드카 마티니 완성! 과일 조각으로 잔을 장식해 작업의 화룡점정을 찍도록 하자.

씹고 뜯고 마세요! 안주+술 일체형 블러디 메리 만들기

숙취에 좋은 토마토 주스로 만든 칵테일 블러디 메리. 미국의 '하드록 호텔 앤 카지노 빌복시' 사람들은 블러디 메리를 이렇게 푸짐하게 만들어 먹고 있었다.

맛있냐고? 보면 몰라?
난 코랑 혀가 없어서 맛을 몰라.



칵테일 만들기

- 보드카 1 1/2 oz
- 토마토 주스 12 oz
- 우스터소스와 타바스코 소스 약간씩
- 호스래디시 1/4 티스푼, 셀러리, 아스파라거스, 소금과 후춧가루 약간
- 레몬과 라임 각각 1/2 조각을 쥐어짜 즙을 낸 것
- 안초비(서양식 생선젓) 2마리를 아주 곤죽을 낸 것

보드카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셰이커 잔에 넣고 잘 젓는다. 그리고 보드카와 얼음을 넣어 잘 흔든 뒤에 긴 유리잔에 붓는다. 셀러리와 아스파라거스 등으로 장식한다. 이럴 때라도 풀 좀 씹어줘야지.

씹을 거리

1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뺀 새우 한 마리를 끓는 물에 넣는다. 미리 물에 레몬즙을 1티스푼 넣으면 향이 더욱 좋아진다. 3분 정도 익힌 뒤 꺼내 얼음 위에서 식힌다. 새우는 너무 많이 익히면 살이 딱딱해지니 주의할 것.

2 그릴에서 소시지를 구워 엄지 한 마디 길이 정도로 썬다. 삶은 새우로 동글게 소시지를 감싸 긴 이쑤시개를 푹 꽂아 고정한다. 이미 죽은 거니까 새우에 미안해할 건 없다. 이제 잔 위에 새우 소시지 꼬치를 얹어라. 다시 익사시키진 말고, 잔 속으로 빠지지 않게 살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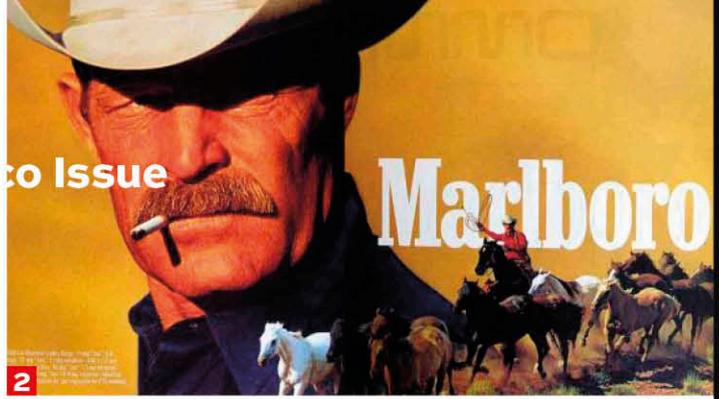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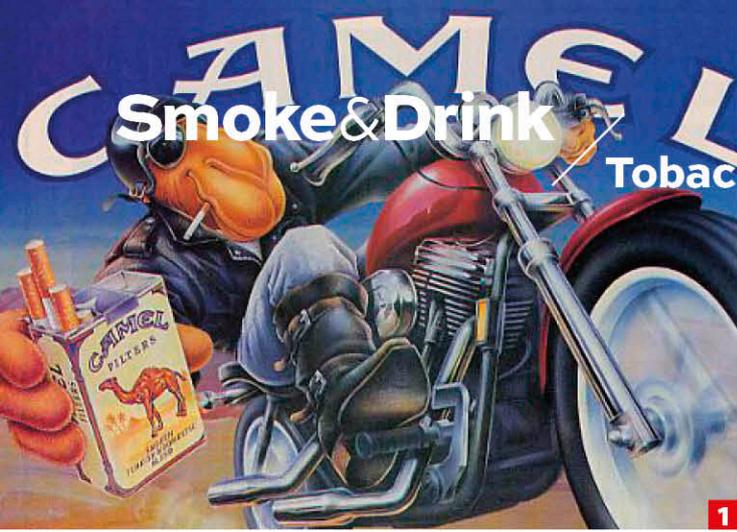
더 씹을 거리

1 쇠고기 패티를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한 뒤 그릴에서 굽는다. 이왕이면 그릴 자국이 예쁘게 나오도록 하는 게 보기 좋겠지? 새우와 마찬가지로 쇠고기도 너무 오래 익히면 뻑뻑해지니 화형은 적당히.

2 작게 자른 치아바타 빵에 버터를 발라 굽는다. 마요네즈 1큰술에 칠리소스를 몇 방울 넣어 섞은 것을 구운 빵에 퍼 바른다.

3 쇠고기 패티를 빵 위에 올리고 먹기 좋게 자른 양상추와 구운 양파, 치즈 등을 입맛에 맞게 얹는다. 그리고 빵, 방울토마토와 미니 피클 등과 함께 꼬챙이로 푹 쥘다. 이렇게 고정한 미니 버거 꼬치를 사진과 같이 잔에 올리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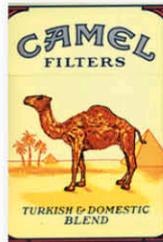
그들의 참신한 도전

이제는 너무도 당연한 담배 패키지.
하지만 한때는 혁명이었다. BY 김소윤

무슨 담배가 더 낫지나?



형이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



1 카멜, 첫 번째 비닐 포장

카멜은 터키산 담뱃잎과 미국산 담뱃잎을 적절히 섞어 자신만의 독특한 향을 만들어낸 브랜드다. 하지만 그 강한 향을 보존하기엔 패키지 종이에 코팅을 입히는

것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신의 한 수! 카멜은 사상 처음으로 담배 패키지 위에 비닐 포장을 씌워 출시한다는 기발한 생각을 했다. 겉에 비닐 옷을 덧입히자 향이 잘 유지됨은 물론, 습기에도 강해져서 흡연자들은 뽕뽕뽕뽕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됐다. 비닐의 매력에 빠진 흡연자들 때문에 카멜의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했고, 다른 회사들도 서둘러 비닐 포장을 도입했다.



2 말보로, 첫 번째 플립탑 박스

카우보이 모델을 앞세워 마초 담배의 대명사가 된 말보로는 사실은 여성 흡연자를 공략했었다. 여성들이 뽕뽕한 담배를 선호한다는 걸 깨달은 말보로는 담배를 보호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기존의 패키지는 팩 형식이라 핸드백에 들어가면 조루처럼 금방 흐물흐물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종이 박스 형식의 담뱃갑. 위쪽으로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플립탑 박스(Flip Top Box)라고 부른다. 각 잡힌 말보로는 레드 컬러의 뚜껑에 대해 '레드 루프(붉은 지붕)'라는 애칭까지 붙으며 흡연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3 럭키스트라이크, 첫 번째 빨간 테이프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담배가 있다면 바로 럭키스트라이크다. 카멜이 개발한 비닐 포장지가 핫한 반응을 보이자

럭키스트라이크도 발 빠르게 그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발한 센스를 발휘해 그걸 더 쉽게 벗기는 법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이제 빨간색 띠를 잡아당겨 비닐 포장을 뜯은 후 쉽게 패키지를 꺼낼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필터 담배 대부분이 선택하고 있는 패키지 포장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다. 역시나 쉽게 벗길 수 있는 게 사랑받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담배 이름에 드러난 시대정신

담배를 보면 그 시대가 보인다.



1940~50년대

드디어 이루어졌다! 독립의 기쁨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든 최초의 담배는 1945년 9월, 광복 기념으로 만들어진 '승리'다. 당시에는 그 외에도 '계명', '새별', '아리랑' 등 애국심 넘치고 희망찬 이름의 담배가 많았다.



1960~70년대

백세에 일해서 발전을 이루자!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내건 담배 생산을 지시했다. 그후 '재건', '새나라', '파고다', '희망' 등 경제개발 의지를 활활 불태우는 이름의 담배들이 잇달아 출시됐다.



1980~90년대

나가자 세계로~ 올림픽과 엑스포를 치르며 전 세계로 도약하던 때에는 '솔', '88', '엑스포' 등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담배가 많이 나왔다. 이중 솔은 200억갑 이상 판매되며,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담배로 기록됐다.

MAXIM BUYER'S EDGE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기는 스파클링 미니 엠(mini M)

낮은 알코올 도수와 달콤한 향에 시원한 청량감이 특징인 스파클링 미니 엠(mini M)이 출시된다. 국내 스위트 스파클링 와인의 대표주자 빌라 엠(villa M)의 특성을 이어받았으며 세련된 검정색 라벨에 미니버드(mini bird) 로고를 넣어 개성을 살렸다. 시원하게 반짝이는 레몬 빛깔의 미니 엠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탄산이 달콤한 과일 향과 어울려 입을 즐겁게 한다. 도수가 낮아 등산이나 레저 활동 후에도 가볍게 마실 수 있다. 산악회 아주머니들과 한 잔 찬찬찬!
275ml 5,000원 대 / 아영FBC 공식 블로그(ayoungfbc.co.kr)



UFC 전체 랭킹 1위 존 존스 컴백, <UFC 172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전>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자 UFC 전체 랭킹 1위 존 존스 선수가 20연승의 무시무시한 기록을 가진 브라질 대표 파이터 글로버테세이라 선수를 상대로 7차 타이틀 방어전을 갖는다. 2009년 단 한 차례의 반칙패를 제외하고 데뷔 이래 한 번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았던 존 존스 선수가 챔피언의 벨트를 지켜낼지 UFC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UFC 172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전>은 4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액션전문채널 수퍼액션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수퍼액션(080-080-0780)

장글장글한 세상, 쌓인 스트레스를 날릴 뮤지컬 <정글 라이프>

청운의 꿈을 품고 사회에 첫발을 디딘 신입 사원에게 사회는 어떤 곳일까? 뮤지컬 <정글 라이프>는 웃프고도 치열한 현대 사회생활을 리얼하게 담은 작품. 신랄한 비판 대신 유쾌하고도 통쾌한 느낌으로 풀어냈다. <요셉 어메이징>의 김경선과 <헤드워>의 조진아가 출연하여 연기와 노래 대결이 흥미롭다. 오피스 뒷이야기를 다룬 작품답게 공연은 삼성역에 있는 KT&G 상상아트홀에서 열린다. 아쉽게도 3월 30일까지이니 오늘 하루도 스트레스 받은 직장인이라면, 곧 스트레스 받을 취준생이라면 어서 어서 인터파크 뮤지컬 예매장을 띄우자!

플레이룸예술기획(02-3142-2461)



MAXIM에서 먹는 라면, 파송송사골

마감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밤샘. 하지만 맥심의 야식 창고가 비는 일 없도록 풀무원에서 투척해주는 라면이 오늘도 에디터들의 출출한 위장을 채워준다. 맥심 편집부가 요즘 한참 흡입하고 있는 풀무원 라면 '파송송사골'은 대파와 다시마가 직접 썰어넣은 듯 탱탱하고, 스프는 진짜 사골 육수를 건조해 만들었다는데 얼큰하면서도 맵지 않아 좋다. 참고로 라면은 김소윤 에디터가 참 맛나게 끓이지.

가격 4개들이 5,950원



가슴이 후끈 달아오르는 모바일 TCG(카드 교환 게임) 연희몽상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성인 미소녀가 나오는 TCG 연희몽상을 소개한다. 일본의 동명 인기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연희몽상은 유비, 관우, 조조 등 삼국지 속 영웅들이 연희(여자 캐릭터)가 되어 왕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모바일 게임이다. 풍성한 콘텐츠와 끊임없는 이벤트를 통해 유저들이 게임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 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비롯해 T스토어와 U+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단, 성인인증은 필수! 애들은 가래 휘이휘이~

무료 / 연희몽상(goo.gl/VkanAF)



**인퍼머스 세컨드 선(inFAMOUS Second Son™)
한글판 정식 발매**

PlayStation®4의 독점 타이틀인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인퍼머스 세컨드 선(inFAMOUS Second Son™) 한글판이 3월 21일 발매를 시작한다. 4백만 장 이상의 판매를 달성한 인퍼머스 시리즈의 후속으로 새로운 주인공 델신 로우(Delsin Rowe)가 초능력을 이용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도주하는 게임이다. 특히 이번 게임의 배경은 실제 도시인 미국 시애틀로 선정하여 디테일한 재미를 더했다. 디스크나 다운로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콜렉터즈 에디션에는 주인공 델신이 사용하는 비니 모자와 배지 등 다양한 선물을 포함한 알찬 구성으로 준비되었다.

디스크 59,800원, 다운로드 54,000원,
콜렉터즈 에디션 74,800원, PS4™ 번들 팩 553,000원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www.scek.co.kr)



내 안의 본능을 깨운다. 본격 본능자극 RPG <제천대성>

남자의 본능을 자극할 RPG <제천대성>을 소개한다. 게임 <제천대성>은 여래와의 천 년간 전쟁 때, 함정에 빠져 기억을 잃고 인간의 모습이 된 제천대성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찾기 위해 모험을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적을 공격할 때마다 쌓이는 분노계이지를 한 번에 표출하는 순간, 실제 제천대성으로 변신해 여의봉으로 적들을 공격하는 장면은 게임 유저들에게 쾌감을 준다.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는 MISS MAXIM 4인방이 홍보 모델로 나섰으며 그녀들의 비공개 화보는 제천대성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제천대성(jc.pupugame.com)



모바일 게임 <수호지 시즌2: 영웅의 등장> 대규모 업데이트

게임 유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수호지 시즌2: 영웅의 등장>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강력한 공격 능력을 보유한 근거리 영웅 손오공과 원거리 영웅 사오정이 새로운 영웅 캐릭터 시스템으로 추가됐다. 적의 이동 속도를 감속시키는 새로운 방어 건물도 추가되어 보다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다. 반면 신규 요물로는 건물을 파괴하는 공중 유닛 도깨비와 은신 유닛 잠행귀가 추가되어 긴장감을 더한다. 스타 프로게이머 홍진호가 수호지 시즌 2의 공식 홍보 모델로 나설 예정이다.

㈜네시삼십삼분(www.433.co.kr)



비타민 C음료 프링클 마시고 건강한 피부 만들자

건조한 환절기엔 내 몸의 수분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피부가 푸석해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제로 칼로리 비타민 C음료 프링클을 마셔보자. 프링클은 비타민 C 500mg을 함유하고 있어 기분전환에도 도움이 된다. 또 열량은 없어 살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다. 비타민C만 잘 섭취해줘도 신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면역력이 향상된다. 몸에 좋은 음식은 쓰다는 건 옛날이나 하던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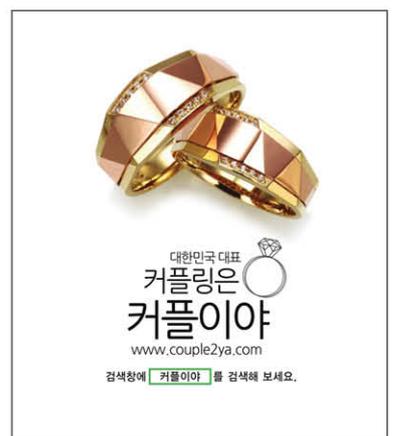
500ml 1,800원

현대약품(www.hyundaipharm.co.kr)

**벚꽃이 만개하는 봄,
'커플이야'로 그녀의 마음에도
벚꽃을 피워보자**

한해 가장 많은 커플이 생긴다는 봄이 왔다. 당신의 메마른 감성에 꽃을 피워줄 그녀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나?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남들이 꽃반지 만들어 선물할 때 넌 진짜 반지를 선물하란 말이다. '커플이야'는 자체공장에서 직접 만든 반지를 전광석화같이 빠른 배송과 거품을 쏙 뺀 유통 과정으로 제공하며 대한민국 커플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다. 봄바람이 날리면~출날리는 벚꽃 앞에~그녀에게 프로포즈를!
커플이야(www.couple2ya.com)



간첩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짹짹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라!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전역 인증
게시판
바로 가기



←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겠네.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가지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조부께서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MAXIM에 전역 신고만 하면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쓴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1명에게
멋진 '세이코 알바' 손목 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4년 4월 20일까지)

전역자랑깁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평생 30%

김정현
전역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
군 생활에 MAXIM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ㅋㅋ 전역 인증 올린다.



평생 30%

박은섭
애들이 나도 늦은
나이에 군생활 잘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너희도 금방 시간 지나갈 거야. 힘내고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전역해라. 그리고 요즘은 부사관
지원해서 목돈 만들어 사회로 나오거나 직업으로
심아도 괜찮은 것 같다. 대학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는 돈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한 거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군대에서 최대한
준비해서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뭐가 되었건
선택은 너희들 몫이다! 파이팅!!! 본부포대!!!



평생 30%

김병수
다들 잘
지내지?
가끔씩 거기가
그리울 때가 있다. 나는 밖에서 잘 지내고
있다! 다들 남은 군 생활 마무리 잘하고
건강해라.



평생 30%

권건휘
3569부대 159
대대 2중대 3소대
특히 1분대. ㅋㅋ
그동안 함께 지내는 추억 영원히 잊지 않을게!
공병 파이팅!!

위 14명을 비롯한 총 380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정기 구독 평생 30% VVIP가 되었다!



평생 30%

최승규
1월 말 전역하고
복합 준비한다고
바빠서 이제야
자랑한다. ㅋㅋㅋ 모두 잘 지내고 있나?
작년까지 내가 부대에 MAXIM 사갔는데
올해부터는 누가 담당일지 모르겠다. ㅋㅋ
암튼 내가 버킷 리스트에 쓴 100개 중에
하나인 MAXIM 전역 인증 이렇게 한다. ㅋㅋ



평생 30%

이동준
애들이 그동안 잘
따라줘서 고맙다.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전역했다. 다들 남은 군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남기고 간 MAXIM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서 다음 후임들에게도 전해줄길
바란다.



평생 30%

송홍규
이 순간도 땀이
치고 있을
후임들이야.
ㅋㅋ 누구나 하는 군 생활이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전역해라. 시간은 안 가도 추억은
쌓이니까 군대 있을 때가 맘 편한 거라고
생각해. 밖에 나오면 더 힘들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라. 나는 여기서 너희들을 대신해 잘 놀고
있을게. ㅋㅋ 다들 보고 싶으니까 나오면 꼭
연락하고!!!!!!!



평생 30%

송세현
내 생각엔 MAXIM
에서 내 이름을
볼 수 있을 거
같아 애들이. ㅋㅋㅋ 내가 쓴 글이 거기에 실릴
거거든! 항상 고생 많은 우리 말방의 의무중대
아이들!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다. 다
말해주지 못한 게 아쉽지만... 거듭 강조한다.
연락해라.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연락해라.
진심이다. ㅎㅎ



평생 30%

정은용
애들이 지금쯤이면 악기
연습하고 있겠구나. ㅋ
전역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보고 싶고 그림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는 싫어. ㅋㅋㅋ
자주 연락할게. 그럼 모두 행사 열심히 하고 몸조심해서
무사히 전역하길 바란다. 맥심 재밌게 보고, 낚아서
너털거리는 맥심은 다 버려. ㅋ 그럼 고생해~ 제방사
군악대 파이팅!>행사는 전투다! 잊지 마. ㅋㅋㅋ



평생 30%

이창준
4소대 아들들
(아들의 동기들)아
내가 군대에서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했다. ㅋㅋ 아직 짬이 안 돼서
힘들 텐데, MAXIM 과월호 보내나 이걸로 잘
해주지 못했던 것 대신할게. 힘내라!



평생 30%

김병운
본부대 보고 있나?
이 잉크도 안 마른
전역증을!! 부대에서
MAXIM 열심히 보던 기억이 엇그저께 같은데,
내가 벌써 민간인이야!! 부럽나? ㅋㅋ 군 생활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번에 전입
온 신병도 있을 테지만 좀 더 고생하고 다들 몸
건강하게 전역했으면 좋겠다. 그럼 고생해!!



평생 30%

이문섭
다들 잘 지내라.
ㅋㅋ 너희는
철야하러 가지?
형은 오늘도 헌팅 하러 간다. ㅋㅋㅋ 잠 못
자는 건 똑같은데 너희는 남자들끼리 있고
난 여자들처럼 있겠지? ㅋㅋ 잘 지내고
나중에 한번 보자!!!



평생 30%

이동국
부대에서 고생하는
후임들이! 조금
있으면 따뜻한 불이
온대! 일하기 좋은 날씨니 더욱 고생해라. ㅋ
ㅋㅋ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길 바란다!



평생 30%

허명
그동안 형 따라와
줘서 고맙다.
이렇게 내가 전역을
하는구나. 형이 늘 전역하면 MAXIM에다가 꼭
전역 인증 올린다고 했지? 우리 MAXIM 한 권
사서 다 같이 돌려보면 그때가 그림다. 형은
연애도 MAXIM으로 배웠다. ㅋㅋ 얼마나 MAXIM
을 좋아했으면 전역하면서 형이 너네한테 한
권씩 다 사주고 왔겠니. 아무튼 남은 군 생활
건강하게 잘하고 MAXIM은 꼭 전역할 때 밀로
인계하도록 해라!! 나중에 면회 가서 감사한다!
21대대~ 파이팅!

Unpicked

이달의 몸쓸 사진

휴지통에 넣다가 눈물을 흘리게 한 아까운 사진들



이 달의 뺱



COVER 천쓰잉(p.98)

못 쓴 이유 배가 고파서 몰래 혼자 초콜릿을 꺼내 먹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천쓰잉 씨가 저런 포즈를 짓고 있었다. 설마 뺱 뜯는 건가...?



이 달의 공포물: 여우계단



MOTOR 닛산 주크 시승기(p.92)

못 쓴 이유 닛산 주크 시승 토크 촬영 중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 김소윤 에디터의 얼굴이 사라졌다. 목이 돌아간 것 같아... 무서워.



이 달의 환자



ICON 이윤석(p.106)

못 쓴 이유 파이프를 들고 가장 자신 있는 포즈를 취해 보라고 하니 이윤석 씨가 자신 있게 목발을 짚었다. 아아...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다. 잠깐만, 눈을 좀 닦고 올게.



이 달의 터미네이터



그거 왜 샀어?(p.82)

못 쓴 이유 맥심 탈을 쓰고 열연한 이상운 디자이너에게 신발을 신으라고 하자 한참을 저렇게 혼자 영화 <터미네이터>를 찍고 있다. 앞에 동전 몇 개를 던져 주고 싶었다.

Unpicked



이 달의 오버액션



수능 신공(p.142)

못 쓴 이유 장혜민 에디터 뒤에 배경으로 깔린 엑스트라(마케팅 팀장 김진욱)가 지루 쓸데없는 개그 욕심을 부려서. "거기 배경 아저씨! 오버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감시다! 나 참..."



이 달의 유체이탈



수능 신공(p.142)

못 쓴 이유 아직 촬영 중인데 딴 쪽에서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이 들리자, 순간적으로 김소윤 에디터의 영혼이 육체 밖으로 퇴겔해서. "너 임마, 선배의 노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 달의 음란마귀



ICON 이운석(p.106)

못 쓴 이유 촬영이 끝난 후 안경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변명하셨지만... 이운석 형님, 전 다 압니다. 선글라스에 가려진 눈알이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달의 구경꾼



독자의 차 화보(p.88)

못 쓴 이유 촬영 중 갑자기 모델인 미스맥심 김지에 씨 뒤로 줄을 서는 김려은, 전수진 디자이너, 모델 하고 싶어서 그래? 말을 하지 그랬어...

MAXIM

KOREA

ICON

이윤석

‘국민 색공’, ‘국민 마초’가 되어 나타난
반평생 국민 약골 이윤석의 이야기

〈비틀즈 코드 3D〉의 음악 담당 MC
영배 해리슨의 유언

THE ULTIMATE FIGHTER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자
미모의 UFC 챔피언

론다 로우시

CAR OF THE MONTH:

BMW 2시리즈 M 스포츠

독자의 자동차 화보

Volkswagen

시로코 동호회의 습격

살 사람은 결국 사게 되는

Nissan 怪獸 주크

APRIL 2014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04



본 자료는 MAXIM Korea의 저작물이므로 개인 소장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곳에 재업로드, 제3자에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MAXIM
KOREA